

월호 스님(행불선원장)
화(火)는 공덕 태우는
불과 같다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3월 19일) · 주간

제1043호 2015년 5월 7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보고 느낀 생각들은 덧 없다.
덧없는 생각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넉넉하고 안락하다.

예산 30억원이상 사찰 재정 공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기자회견… 7월부터 공개

직영 · 특별분담금 · 4등급 사찰
사보 · 인터넷 통해 재정 공개
신용카드 시스템 확대 추진
예결산 미제출 사찰 제재조치

대중공사 논의 반영된 '성과'
"우선 실천 과제부터 제도화"

조계종이 오는 7월부터 직영 · 특별분담금 · 4등급(예산 30억원 이상)사찰에 대한 재정공개를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재정 공개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재정 공개 추진 계획은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예산 30억 원 이상인 사찰 오는 7월부터 재정 공개 △예산편성 지침 시달시 주요 지출항목 기준 마련 △문화재관람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마련 △간소화된 재무 프로그램 개발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 제재 등이다.

조계종 사찰이 전혀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봉은사 등 대형 사찰부터 작은 포교당까지 자신의 살림살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는 적지 않게 있어왔다. 예결산서를 통한 정보 공개의 경우 1년 결산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찰 81곳중 48곳(59%)이 공개하고 있다.

발표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직영 사찰 등에 대한 재정 공개이다. 대상 사찰은 약 50여 곳으로 조계종 전체 사찰 예산의 60%에 달하는 수치다. 조계종은 6월중에 대상 사찰 회의를 갖고 재정 공개와 형식,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7월 중 재정 공개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게 된다. 또한 재정 공개 대상 사찰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직영과 특별분담금, 4등급 사찰은 의무적으로 예산을 공개할 것"이라며 "사찰 신도를 중심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예결산 재정을 사보, 인터넷 홈페이지, 법회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입장료 징수 사찰은 총 64곳으로 현재 34%인 22곳만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그간 카드 결제 수수료와 결산 시재가 맞지 않아 시스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적인 종무행정 지도를 통해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자승 스님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6월 이내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관련 회계 처리 기준을 제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에 대한 제재 조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종단의 종헌과 종법에는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예결산서를 통한 보고가 없어도 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종법 개정을 통해 제재 조항 삽입해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에 대한 제재하고 재정 투명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자승 스님은 "중앙종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찰에 대한 합리적 제재 방안을 오는 9월까지 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에는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주지 연임 자격 부여하지 않고, 사찰 종무행정에 대한 불이익 등이 제재 방안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본말사 예산 편성 지침시 부문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대상 사찰에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계종의 이 같은 예산 공개 방침은 '종단 혁신과 백년 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이하 100인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사안을 반영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앞선 3차 100인 대중공사에서는 '사찰 재정 투명화'를 의제로 토론이 이어졌으며, 재정 규모가 큰 사찰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을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은바 있다.

이와 함께 종책모임 불교광장은 종단의 재정 공개 의무화를 천명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불교광장은 4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100인 대중공사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를 현실성 있게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면서 "사찰 재정공개는 종도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봉축 광화문서 시작

불기2559년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이 4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탑등은 현존 최고(最古) 석탑인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을 형상화한 것으로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점등식에는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등 서울지역 주요사찰 신도들도 참석해 탑돌이를 진행했으며 연등회 서포터즈 소속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국내 대학생들이 연등회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플래시몹'도 벌였다.

노덕현 기자

韓불교, 네팔 대지진 참사 돕기 '한마음'

부처님 탄생 성지 룸비니로 한국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네팔이 대지진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네팔의 아픈 눈물을 닦기 위해 한국 불교계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주요 종단들이 긴급 구호에 나섰다. **조계종**은 4월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네팔 대지진 참사 긴급구호단 파견을 결정했고 당일 오후 9시 네팔로 선발대를 급파했다. 우선적으로 20만 달러의 긴급 구호 예산도 편성했다.

선발대는 조계종 사회국장 각평 스님을 단장으로 조계종복지재단 공선주 과장, 서찬수 팀장, 아름다운동행 박성주 팀장이 참여했으며, 방콕을 경유해 28일 네팔 카드만두에 진입했다.

조계종봉사단 선발대는 현지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긴급재난구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4일 종단 최초로 네팔인 국제포교사(라빈 법사)를 배출한 진각종도 네팔 JGO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구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촌공생회, 더프라미스 등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도 27일 중 책임자를 파견하고 본격적으로 모금활동 및 구호활동에 나섰다.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네팔지부를 통해 수도 카드만두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피해주민 돕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자원활동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팀을 통해 식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3만 달러를 우선 구호 기금으로 전달했다.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이사장 법등)도 4월 28일 긴급구호 선발대를 파견했다. 더 프라미스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긴급구호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네팔과는 2010년 부터 커피나무 심기 프로젝트로 인연을 맺어왔다.

애도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4월 27일 지진 참사를 겪은 네팔에 불자들이 힘을 모아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위로 메시지 발표 전 네팔대사관을 통해 2000만원을 먼저 구호기금으로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위로메시지를 통해 "네팔은 지구촌 성지이자 인류의 안식처로 네팔의 국민들과 마음의 안식을 위해 네팔을 찾은 순례자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앞장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촌 공생회는 4월 27일부터 네팔 카트만두에서 식수 지원에 나섰다. 현재 종단과 구호단체를 중심으로 구호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주요종단, 단체 애도문

조계종 구호 선발대 파견
공생회 등 현지 활동 시작
구호 모금 · 법회도 이어져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애도문을 통해 "이번 참사의 조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우리 종단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구제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우리 종단은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네팔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고통받는 네팔국민을 위하여 구호활동 및 모금활동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기원했다.

구호 기금 기부도 속속 답지하고 있다. **홍법문화재단**(이사장 정우)과 통도사 구룡사, 여래사는 네팔 지진 긴급구호기금 1억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4월 27일 전달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5월 1일 오전 10시 지관전에서 5월 정기법회를 지진으로 고통 받는 네팔 국민들을 위한 법회로 봉행하고 피해지역 돕기 성금 모금을 전개했다. 한편, 이번 네팔 대지진으로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스얌부나트 사원을 비롯해 히말라야의 보다나트 스투파 등이 포함됐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관련 기사 3 · 18면〉

'감사 편지' 공모 수상자 발표

본지 · 수효사 효림원 공동 주최… 대상에 강희숙 씨

182명 응모… 9명 수상 영예
5월 11일 동산반야회관서 시상식

현대불교신문사와 수효사 효림원이 공동 주최한 감사 편지 공모 수상자가 발표됐다. 심사 결과 대상에는 강희숙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에는 이무성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소영 씨와 한주영 씨가, 입선에는 윤정란 · 신지웅 · 정재인 · 최혜경 · 강태정 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25일까지 한달여 간 진행된 공모에서 182명이 부처님, 스님, 스승, 부모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를 응모했다.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우수상과 입선 수상자에게도 소정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동산반야회 강당에서 진행된다.

본선 심사를 맡은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과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시인)은 "감사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생각 못했던 감사할 일이 너무 많구나. 삶이란 감사로 살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면서 "마침 가정의 달이니 부모님과 스승에게 엽서 한 장이라도 감사 편지를 쓰면 좋겠다"고 심사 소감을 전했다.

신성민 기자

세계평화 간화선 무차대법회
증명 :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
초대합니다. 善男善女들이여 광화문 광장으로 모두 다 모이자!

옛 부처님이 나기 전에 누가 우주의 주인인가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 체성은 평안한지라
온 세계가 한 집이요 정이 있고 정이 없는 모든 만물이 한 몸이로다.

이시대에 재현된 부처님의 영산회상
2015년 5월 16일(토) 오후 7시 광화문광장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051)746-2256
www.seon.or.kr
부산 해운대구 우동 2로 40-6

선학원, 새 비구 비구니 18명 수계

28일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 독자 행보 가속화

부산 금정사서 교육 진행
새로 제작한 가사도 지급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수계식을 열고 18명의 승려를 배출했다. 독자적인 계단 설치와 수계식으로 봉행함에 따라 계 과 완전한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학원은 4월 27~28일 부산 금정사 금강계단에서 구 계 수계산림을 회향했다. 이 자리에서 새로이 탄생한 비구 15명, 비구니 3명에게 각각 수계증을 수여하고 9 가사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9 가사는 선학원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선학원 문장(심볼마크)이 새겨져 있다.

회향식에 앞서 이사장 법진 스님은 선학원사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어 재단법인 선학원 구 계 수계산림 계단위원회(전계사 철오)는 오전 9시 비구 수계식을, 별소계단에서 비구니 수계식을 각각 엄수했다. 이후 계단위는 비구 비구니계 수계를 마친 오전 11시 비구 비구니 합동으로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구 계를 수계한 비구 비구니 18인은 선학원 승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전법도생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회향식은 낮 12시 10분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됐다. 전계사 철오 스님은 회향식 법문을 통해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나가 세간의 사표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계법 숭의 모범을 우리 선학원 승가들이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기 2559년도 선학원 승적부에 첫 등재된 수계증을 수여받은 수계자들은 사홍서원을 끝으로 회향식을 마쳤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은 4월 27~28일 부산 금정사에서 독자적인 구제계 수계산림을 열고 18명의 스님들을 배출했다.

조계종 신임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

현응 스님, 27일 임명장 수여… 비구니 스님으로 최초

"교육 불사 안정에 최선"



첫 비구니 불학연구소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수경 스님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로 교육 행정에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계 교육원 산하 불학연구소 신임 소장에 수경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비구니 스님이 교육원 부장급 교역직 인사인 불학연구소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4월 27일 집무실에서 신임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현응 스님은 "불학연구소장에 비구니 스님이 임명된 것은 단적으로 처음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불학연구소는 단 교육 정책의 싱크탱크와 같은 곳. 새로 임명된 스님께서 단 교육불사 안정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식 직후 신임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 제2기 교육 불사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한편, 첫 비구니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1980년 법일 스님을 은사로 수계(사미계)를 받고 삼선승가대학을 업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을 취득하고 동국대 및 삼선승가대학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무원 문화부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동국대 일반대학원 선학과 강사, 삼선불학승가대학원 교수로 후학양성을 위해 정진하고 계시며, 단 고시위원회 위원이다.

신성민 기자

승가청규 제정 등 쇄신의제 완성 추제

자승 스님, '종단 불신해소' 100인 대중공사서 밝혀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도출된 단 쇄신 4대 의제 10대 과제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9일 '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단쇄신위원회가 제시했던 4대 의제 10대 과제 시행에 중점을 둘 것을 천명했다. 단 불신의 해소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승 스님은 합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2012년 백양사 사건 이후 자성과 쇄신을 위해 단 쇄신위원회가 구성됐고 단 행정, 입법, 문화를 일신하기 위한 4대 의제 10대 과제를 성안했다"면서 "하지만 당시의 절박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여하를 떠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 의제 10대 과제는 변화를 바라는 도들의 신념이 담긴 것"이라며 "승가청규 제정을 필두로 쇄신 과제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6월까지 활동한 단쇄신위원회가 성안한 4대 의제 10대 과제는 △승가청규 △ 단 무 쇄신 △승가복지제도 △선거제도 등 단 전반 문화의 변화를 위해 만들어 다.

승가청규는 불교 사회참여 등에 대한 실천 분야를 중시하고 일상 위의에 대한 바라이제 목차를 통한 제한 분야를 병행하는 형식으로 정해 다. 또한 수행의 장, 생명의 장, 평화의 장, 나눔의 장, 문화의 장으로 각 분야 수행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10대 과제에는 3원 체재 개편, 문화부원장 신설 등 무쇄신안과 법계직무제도 안착, 호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승 스님은 "지난 27일 재정 투명화를 위해 재정 공개를 발표하면서 사회 지지를 이끌어냈다. 대중공사를 통한 소중한 결실이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공론을 모아낸다면 단 쇄신을 이끌 수 있다"고 강 했다.

이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단에 대한 자 감을 가진다면 자성과 쇄신을 이뤄

쇄신 동력 저하에 책임 통감

"종단 신뢰 회복위해서는
출재가 도덕·규범 준수 중요"

단은 거듭날 수 있다.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단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10모둠은 그간 자신들이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모둠들은 3시간여의 토론을 통해 단불신의 원인으로는 △승가공동체 내 경제적 불평등 △선거제도의 부작용 △인사의 불공정성 △사법기능 약화 △복지제도 미비 △사회참여부 등을 꼽았다.

실제 5모둠에 참석한 양한웅 계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 계 의 권력 구는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그대로 닮아 있다. 5%의 스님만이 권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불신 원인은 스님에게 8할, 이중 지도부에 7할이 있다"면서 "기 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상벌제도가 미비해 재정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불공정한 양형으로 사법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선거 제도 개선을 비롯해 승가교육 혁신, 승려복지제도 안착, 홍보제도 개선, 신도 참여, 무분별한 폭로 행위 지양 등을 불신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불교는 신뢰부재 상태"

오전에 이뤄진 단 불신의 원인에 대한 브리핑에서 발제자로 나선 성택 고려대 교수는 한국불교는 불신보다 신뢰 부재 상태가 더 깊게 보여지고 있음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교수는 불신과 신뢰 부재는 구별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불신은 주로 교 내부의 문제지만 신뢰 부재는 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문제라는 게 교수의 설명이다.

불신의 문제에 대해서 교수는 "스님 혹은 재가활동가 등 개인의 비윤리적, 비불교적 행태가 단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교계 내에서 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출재가자들의 도덕적 자질과 불교적 규범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뢰의 부재에 대해서는 불교에 대한 사회적 지도력의 상실이 기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수는 "설문 사에서 선방 수좌 스님들의 신뢰가 높다고 집계된 것은 불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불교적 정체성에 입각한 사회 참여와 담론 선도가 필요하다"고 강 했다.

이어 " 교의 신뢰는 권위와 직결된다. 하지만 권위가 사라질 때 권위주의가 등장한다"면서 "부처님, 출가수행자, 불교의 권위는 실천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계제은 4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제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4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직선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사"

사부대중 연대회의, 27일 공청회… 직선제 당위성 논의

계 총무원장 선거의 직선제로의 전환을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 중앙 회의원 장명 스님(삼화도량 책위원장)은 '바람직한 총무원장 직선제 방안' 제하의 발제를 통해 현재까지 제시된 직선제 방안을 점검했다.

스님은 2009년 설문 사의 토대로 직선제 실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와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한 2009년 설문 사에 따르면 승가 전통의 입장에서 37.7%가 직선제를 찬성했으며,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40.4%가 직선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추대제는 권력 독점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6.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부정의 응답은 16.9%에 그쳤다.

이런 설문 사 결과에 대해 장명 스님은 " 도들은 직선제가 대중공의에 의한 단 운영이라고 하는 대중공사 전통과 개혁 정신에 부합하고 부정선거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1994년 단 개혁 이후 헌· 법이 세속의 삼권분립에 입각해 제개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단의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직선제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명 스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선제 방안을 분석·점검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선제 방안으로는 △승랍 20년 이상 모든 승려에게 선거권을 주는 안 △승랍 10년 이상 모든 승려에게 선거권을 주는 안 △비구 중덕(승랍 10년), 비구니 혜덕(승랍 20년)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안 등이다.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명 스님은 "세 가지 직선제 방안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문 사와 공청회를 통해 도들의 바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선거공영제의 실시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징계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주적 역할 강화 △당선 무효 심판 제도의 신설 등의 논의도 단 차원에서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규 변호사(참여불교 재가연대 공동대표, 교단자정센터 원장)가 ' 단 개혁 21주년 왜 직선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문수암 주지 이암 스님, 전국푸른수행자회 운영위원 부명 스님,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명칭변경 공고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이하 전사련")는 지난 4월 21일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로 법인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명칭 및 사업변경에 따른 전국지부법인종단 단체등록증, 대표자임명장, 지부법인설립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오는 5월 1일부터 재교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제단연합회
총재 장각성 / 회장 무산 / 전국지부법인종단관리위원장 무공 / 대외협력위원장 성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909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2198-5022~4 FAX : 02-2198-5025
http://kntga.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특허출연 결정서 공고

◆ 특허출원인 성명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출연인코드 120140041538)
◆ 법인설립허가일 : 제2012-43호(2012. 4. 9.)
◆ 법인등기부등록번호 : 110321-0039311
◆ 법인등기번호 : 003931

◆ 법인사업의 목적 및 종류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특허출연결정과 관련하여 종단 전국종도에게 다음사항을 고지합니다.

❶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특허출연 결정 신문공고 이후 법인본점 승인절차 없이 사찰등록증, 임명장, 승려증, 세무서 고유번호증 등 각종 종단등록 서식에 법인명칭을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 상표법 침해행위로 간주되오니 종단 전국사암 종도 및 사부대중께서는 재등록 분한 신고를 신속히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5월 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제계제 총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909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2198-5022~4 / FAX : 02)2198-5025

무엇이 진정한 믿음과 지혜의 삶인가?
길을 찾아 속시원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마음의 묘한 깨달음은 마음의 길(心路)이 끊어진 바로 그곳에 있다"고 어떤 선사는 말씀하셨고 불교의 믿음은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생각과 생각이 다한 곳을 말합니다.

불교인들은 "인간의 궁극적 이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마음을 깨친 해달의 세계를 말하고, 유교인들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인(仁)의 세계를, 도교인들은 말이 필요없는 도(道)의 진리를,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충만한 애(愛)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인생과 대자연의 세계는 은현 변화하는 신묘한 신명의 세계 실상에서 실로 미묘막측한 현지우현(玄之友玄)의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깨달음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여 더 생각하는 길이 없을 때 그곳이 곧 생각이 끊어진 삶이요, 그것이 곧 자유의 삶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하지만 진실로 골깊은 아픔을 안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 중생은 신명세계의 현묘한 조화에서 유서 깊은 속시원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有)의 형(形)만을 견(見)하는 시점을 초월하여 무(無)와 신(神)을 투시하고 관(觀)할 줄 아는 총명력을 길러 나가야 현명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참 지혜인 "무(無)와 신(神)을 관찰 할 줄 아는 예지의 양성이 오늘날 더욱 절실해 지고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무(無)와 상(象)이라고 보고 육체를 유(有)와 형(形)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정(精)과 신(神)이 합한 것이며, 이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신명세계의 살아있는 무궁한 조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무상보리의 경지에서 천지조화의 천문을 열고 상담하는 현무궁 신모 금당 선생을 만나면 업장소멸의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가사의한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십시요!

금당 선생을 만나는 순간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현무궁 신모 금당
꼭! 사전예약 H.P 010-3629-7373 / TEL 02)2198-5023~4
■오전 : 10시부터 ~ 17시까지 종로사무실(두산위브파빌리온 909호)
■오후 : 18시부터 ~ 20시까지 대치동 현무궁

"南南갈등 해소부터 불교가 관심가져야"

고유환 교수, '통일시대 토론회' 서

"통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4월 28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법응)이 남북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개최한 '통일시대의 준비-국민적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장했다.

고 교수는 '평화통일 국민통합 방안' 발표에서 "통일을 달성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그 무엇보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한마음을 모은 것이 특징"이라며 서독의 사례를 들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서독의 경우 33000명의 정치범을 빼오기 위해 1963년부터 1989년까지 동독에 35억 여 마르크(한화 약 2 1천억 원)를 지급했으나 서독 내에 여론은 이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고 교수는 "불교계는 가장 먼저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을 하나로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내에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이란 목표에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사회법 분쟁 중재기구 문 열다

불법화해중재원, 법원 조정기관 지정

최근 불교계 분쟁이 사회법 제소에 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중재하기 위한 기구가 창설됐다.

대한불법화해중재원(원장 최공웅, 前 특허법원장)은 4월 23일 서울중앙법원 법원장실에서 16차 외부연계 정기관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부협약 체결에 따라 민사 정제10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사건이 대한불법화해중재원에 배정돼 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복잡, 다양해지는 유형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기 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불법화해중재원 관계자는 "그동안 불교 내 단 관련 법률 분쟁 등이 3심까지 가며 불자간, 단간 불신이 깊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 정 절차가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불교 단 간 반목이 해소돼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목판 일제제사 '첫 결실'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硏 〈전국사찰 목판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4년부터 실시한 전국사찰 목판일제 사의 첫 결과물이 나왔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근 〈2014년 전국사찰 목판 일제 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국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요목판을 사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인천 · 경기, 충청, 전라지역 54개 사찰의 목판 9310점을 대상으로 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실린 목판 정밀기록은 총 315점으로 기 사에서 동일한 판 의 목판을 분리해 사하거나, 다른 내용의 목판을 동일 항목으로 사하는 등의 오류도 바로잡았다.

특히 2014년 사 과정에서 기 목판 외 75점의 신규 목판을 발견했으며 278점의 목판이 도난이나 화재 등의 사유로 유실된 것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찰 소장 목판 대부분이 경장(經藏) · 율장(律藏) · 논장(論藏)과 선사(禪師)들의 찬술서, 불교의례 관련 목판이지만 천자문 · 유합(類合, 한자 학습서) 등을 비롯한 사대부의 문집류도



문화재청과 제계제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전국 사찰 목판 일제제사 2014년 보고서. 인천, 충청 등 54개 사찰 9310점의 목판을 제사했다.

9310점 조사해 315점 자료화

훼손상태 및 보존환경도 기록

디지털이미지 변환, DB화 특징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전체 297 목판 중 간행 기록이 있는 목판은 152 으로, 고려시대 이후 불교 관련 목판 인쇄물의 간행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사찰이 단순히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쇄물의 간행과 보관 등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목판일제 사 결과물은 향후 인문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단순한 사에 그치지 않고 목판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여기에 유형별, 판 별로 목판을 재분류해 개별 목판의 크기와 무게 등 제원사항과 광곽(목판 테두리) 크기, 행자수 등 서지사항을 세밀하게 표기했다. 또 목판의 판각시기와 판각처, 각수(목판을 새긴 이) 등의 기록 또한 수록했다. 이와 함께 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해, 균열, 뒤틀림, 글자 손상 등 현재 훼손 상태를 비롯해 수장 공간의 화재 가능성 및 습기, 미생물 등과 관련한 보 상태 및 훼손 위험성까지 포괄적으로 보 상태를 정리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여기서 더 나가 올해부터 후속사업으로 요목판 인경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사가 완료된 전남지역 중요목판을 선별해 올해 중순경 인출 사업이 진행되며 인출된 인경본은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결과를 사찰 소장 목판의 체계적인 보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선시대 불교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방송, 지구촌 곳곳에 행복 전하자"

불교방송 후원자 초청 창사 25주년 기념식

연기자 김혜옥 씨 등 공로자 감사패 전달

BBS불교방송은 불교방송 후원가 들을 VIP로 초청 창사 25 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4월 24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는 BBS불교방송을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해준 불자 250여 명이 초대돼 불교방송의 창사를 축하해 었다.

불교방송 이사장 하 스님은 기념사에서 "25 년을 맞은 건 위로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래로는 사부대중의 부단한 정진이 있어 가능했다"며 "현재 TV개설로 방송시설 확장과 새청사 불사를 위한 후원회 발 이 필요하다. 관심 부탁드린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밖에도 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각 단 총무원장, 정의화 국회의장,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등 각계 인사의 축하인사가 영상 메시지로 전달됐다. 자승 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교방송이 창사 25 년을 맞아 사옥건립 추진과 방송 구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천만 불자들의 후원으로 건립된 불교방송이 더 많은 행복과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따뜻한 성원을 보내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불교방송 진행자이자 연기자인 김혜옥 씨, 25년 동안 불교방송 법당을 지켜온 대명화 보살 등 5명의 불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밖에도 불교방송의 사옥건립과 국민통합과 평화를 발원하는 기도, 미금 중학교 합창단과 창작찬불 동요제 대상팀의 축하공연, 불교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응답하라 불교방송' 등이 이어 고 연등 점등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BBS불교방송은 4월 24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창립 25제년 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룸비니 성지는 피해없지만 스와얌부나트 등 복구만 10년"

나빈 법사, 영봉 스님이 전하는 네팔 피해 현황



영봉 스님



나빈 법사

영봉 스님

세종학당에 재해대책본부 구성

"6월부터 장마…전염병 우려"

나빈 법사

제2,3 성지 불교 유적 무너져

"아비규환 자체…천막서 생활

네팔과 북인도를 강타한 이번 대지진으로 현재까지 약 1만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렵게 현지와 연락이 닿았다. 통신시설이 마비된 탓인지 수십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했다. 자 끊겨 녹록하지 않은 현지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었다. 지진발생 3일 후인 4월 27일 진각 위덕대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인 네팔로 귀국한 나빈 법사는 "태어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은 처음 본다. 아비귀환 그 자체다. 언제올지 모를 여진에 집이 무너질까 공원이나 골프장 등에 간이 천막을 치고 잔다"고 울먹였다. 이어 나빈 법사는 "네팔의 제1성지인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는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 108산사순례회 회 선묵 혜자 스님이 2008년 건립한 선혜학교는 다행히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 2성지인 스와얌부나트 사원과 제 3성지인 보르나트 사원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다. 이들 사원은 관광업 등에 사하는 네팔 불교도들의 생계 수단인데 이후 이들의 삶이 걱정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유적지 복원에 최소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29일 출국 전 서울서 만난 네팔한인협회장 영봉 스님도 "네팔은 6월부터 3개월간 장마가 시작된다. 이재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 될 것 같다. 수많은 전염병과 기아 등이 염려가 되는데 이런 인간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봉 스님에 따르면 네팔한인회도 카트만두에 있는 세 학당에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세 학당은 벽면에 금이 간 것 외에는 다행히 지진피해를 비켜갔다. 네팔한인회는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돕는 활동을 전개중이라고 한다.

영봉 스님은 지진 발생 직전 한국에서의 일처리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스님은 지진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계 긴급구호단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는 한편 한국서 구호물자를 모으는데 력하고 있다. 영봉 스님은 특히 지진과 장마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걱정했다. 영봉 스님은 "네팔은 대부분의 집이 흙벽돌이기에 장마철에 추가로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카트만두는 그나마 외신들로 인해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방 도시의 경우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구호가 어려운 해발 2500m 고도 이상에 로 불교도들이 거 하는 만큼 불교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네팔 불교는 힌두교와 라마교가 혼재되어 있다. 네팔벨리에는 엄격한 구분이 없는 힌두사원과 불교사원이 2천5백여 개에 달한다. 정확한 불교신자는 네팔 전체 인구 중 8% 정도이다.

김주일 · 노덕현 기자



네팔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파괴된 가옥의 모습. 현재 1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제공= 제계제 사회복지재단〉



일 주 문



봉축 수계대법회

동국대 정각원 법타 스님은 5월 12일 오후 4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을 전계사로 봉축 수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02)2260-3017



통도사 어울림한마당

양산 통도사 원산 스님은 5월 23일 오후 2시 초산유원지에서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055)382-7187



한강시원지체험관 개관

평창 월정사 정념 스님은 5월 9일 월정사에서 오전 9시 30분에 한강시원지체험관 개관식을 진행한다. (033)339-6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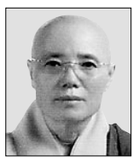
용주사 하안거 결제기도

화성 용주사 성월 스님은 6월 1일 오전 10시 용주사 대웅보전에서 하안거 결제기도를 입재한다. (031)234-0040



제5회 연꽃문화제 개최

의왕 청계사 성행 스님은 5월 10일 오전 10시 청계사에서 제5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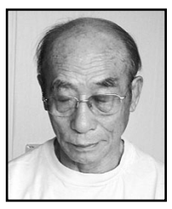


전국비구니선원 제15차 정기총회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 대응 스님은 5월 7일 오전 11시 양산 내원사에서 선문회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담선법회 개회 등을 논의했다.

정태혁 명예교수 별세

4월 16일 미국에서, 불교원전 연구 분야 개척



산스크리트어 등 불교원어를 통한 불교학 연구 분야를 개척한 향운(香雲) 정태혁 명예교수가 4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장지는 롱아일랜드 파인론 공원이다.

1922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난 정 명예교수는 195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1963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1966년 오타니대 박사를 수료했다. 교사를 거쳐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로서 후학양성에 매진했으며 퇴직 후 동방불교대 학장 등을 지냈다. 한국정토학회 초대 학회장을 비롯해 인도철학회 요가학회 야유르베다학회 회장등을 지냈으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노인문제연구소장 등도 역임했다.

정 명예교수는 국내 최초로 〈표준 범어학〉과 〈기초 서장어〉 등의 문법서를 출간해 불교원전 언어를 통한 연구 방법을 제시했으며 국내 인도철학분야를 개척했고, 불교학과 인도철학 비교연구에 주력했다. **노덕현 기자**

원효학술상 우수상에 김종욱 교수

'원효와 하이데거의 대화' 연구로



불교와 서양철학의 실험적 접목

비전임 부문 박범석 연구원 영예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4월 27일 '제6회 원효학술상' 교수 부문 우수상 수상자로 김종욱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수상작 '원효와 하이데거의 대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교수〈사진〉는 불교와 하이데거의 사상을 비교한 연구로 한국불교 철학의 세계화를 시도해왔다. 현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동국대 HK연구단 단장을 맡아 불교와 서양철학 등 사상 · 문화간의 융합연구를 주도해왔다. 이번 원효와 하이데거의 대화 또한 그 연장선상이다.

주최 측은 우수상 선정 이유로 "김종욱 교수의 저술은 불교와 하이데거의 사상을 비교하는 쉽지 않은 주제의 연구서로서 각각의 사상적 깊이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상 간의 차이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소통시키려고 한 연구 작업을 통해 한국불교 철학의 세계화 내지는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도로서 학술적 의의와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비 전임교수 부문에서는 박범석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인권개념의 불교교육적 쟁점' 으로 장려상을 받으며, 학생부문에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배호 씨가 은상을 받는다.

한편, 원효학술상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시상하는 국내 불교철학 관련 권위 학술상으로, 2009년 제정됐다. 교수부문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이, 비전임교수부문 장려상은 300만원, 학생부문 은상은 2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5월 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매일 3시간 씩, 4개월 책 필사하며 공감

위승환 관장, 정찬주 작가에게 〈천강에 비친달〉 필사본 기증



정찬주 작가(사진 왼쪽)가 위승환 관장에게 〈천강에 비친달〉 필사본을 전달받고 있다.

위승환 태백산맥문학관 관장이 4월 13일 화순군 이양면 이불재에서 정찬주 작가(62)의 장편소설 〈천강에 비친 달〉 필사본을 저자에게 기증해 화제다.

위 관장은 〈천강에 비친 달〉을 2백자 원고지에 연필로 1104매를 필사해 이날 정 작가에게 기증했다. 위 관장은 매일 3시간씩 4개월 동안 필사하면서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을 밝힌 〈천강에 비친 달〉을 더욱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위 관장은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한글이 집현전 학사들의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창안과 왕의 지시를 받은 신미대사에 의해 절에서 비밀리에 창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독서회 모임 등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천강에 비친 달〉은 1월 5일부터 31일까지 EBS FM 라디오에서 배우 강신일 씨가 낭독해 청취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현재 2만부가 판매되는 등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출가 원력 되짚는 계기 삼겠습니다"

첫 1급 조계종 승가고시 수석 합격 선응·송탁 스님



중앙승가대 교학처 교학국장 선응 스님〈사진 오른쪽〉과 수원 아리담문화원장 송탁 스님〈사진 왼쪽〉이 대한불교조계종이 처음 치른 1급 승가고시에서 전체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승랍 25년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진행된 1급 승가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비구 · 비구니 스님에게 상장이 수여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급 승가고시 수석자 스님들을 시상했다. 이날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은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선응 스님과 수원 아리담문화원장 송탁 스님에게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지안 스님은 "조선시대에도 명종대에 이르러 승가고시가 다시 시행되면서 불교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승가고시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두 스님이 최선하달라"고 당부했다.

비구 스님 가운데 1등을 차지한 선응 스님은 "1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중앙승가대 소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학인 스님들이 종단의 인재가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열심히 수행정진해 종단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기불교를 공부한 송탁 스님은 비구니 스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송탁 스님은 "종단에서 처음 시행한 1급 승가고시에 1등을 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지만 마음 속 지혜와 자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출가 정신을 다시 돌아보고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송탁 스님은 문화를 중심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도량인 아리담문화원을 수원에 최근 개원했다. 스님은 "개인적으로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 등에 관심이 많다.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명상을 통한 포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4월10일 치러진 1급 승가고시는 수행 및 교화활동 이력, 활동계획서 등을 토대로 심사갈마위원회의 면접갈마로만 치러졌다. **신성민 기자**

"묵조선풍의 새 장 열어 나가자"

조동종 제10대 총무원장 대은 스님 취임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을 잘 파악하여 조동종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한국불교의 중심에 종단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종 제10대 총무원장 덕우 스님 취임식이 4월 26일 조동종 총무원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이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사업은 종도들에 대한 교육불사"라며 "체계적이고 차질없는 교육과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사회적 역할에 중생과 하나 되는 종단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현 가능한 불사부터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 종단과 개별 사찰들이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방안들을 찾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덕우 스님은 또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사부대중들과 함께 의논하고 평등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종단의 발전은 바로 우리가 발원하고 시작하는 이 자리부터 시작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오늘 다시 한 번 초심을 가다듬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은 "묵조선맥을 고양시키고 중생 삶의 희망을 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애종심으로 일할 덕우 스님을 중심으로 종도들이 뭉치고, 수행과 정진을 이어가 달라"고 법어를 내렸다.

승정원장 심월 스님의 축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승애 노원구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취임법회에 이어 조동종 창종조사인 동산존자 양개 대화상 헌다례재가 진행됐으며 이어 사랑의 쌀 전달식도 열렸다. 조동종은 노원구청에 지역의 독거노인과 어려운 주민을 위해 백미 200포를 전달했다. 취임식에는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을 비롯해 비롯 부종정 법공 스님, 승정원장 심월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전국사설사암聯, 한국불교종단연합회로 명칭 변경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종단연합회(이하 한불련)로 법인명칭을 변경했다. 한불련은 3월 인천 보명사에서 열린 임시총회서 명칭 변경을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한불련 전신인 전사련은 2010년 4월 30일 사단법인을 설립 현재 300개 종단 및 신행단체가 등록된 법인이다.

한불련 관계자는 "북한불교 교류와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불교의 발전과 학술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불련 법인사무국은 전국지부 등록종단, 단체에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임명장, 지부설립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재발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奉 대한불교원효종 원효보살 1329주기 추모대재 行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조이신 원효보살님의 1329주기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도여러분들의 무루 동참 바랍니다.

■ 봉행위원단 ■

종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총무부원장 보원 규정원장 일륜
원로위원 혜초. 수진. 수경. 각운. 성호. 법진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무상. 자광. 능관. 법관. 명운. 현수. 지광
선거관리위원장 석불
선거관리위원 춘명. 현수. 정운. 무공

종학원장 옥천 법규원장 무상 고시원장 자광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범일 의전실장 석해

부산교구원장 석불 대구교구원장 서응 울산교구원장 지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제주교구원장 법원
경기교구원장 해인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전북교구원장 경오 경북교구원장 성죽 강원교구원장 성암

총무부장 해진 재무부장 천수 교육부장 도선 문화부장 대호 사회부장 법장 포교부장 성우
복지부장 원해 의전부장 무해 규정부장 무종 기획부장 법민 사회국장 보문 규정국장 남주
복지국장 법선 의전국장 향적 사무국장 도현 조사국장 최석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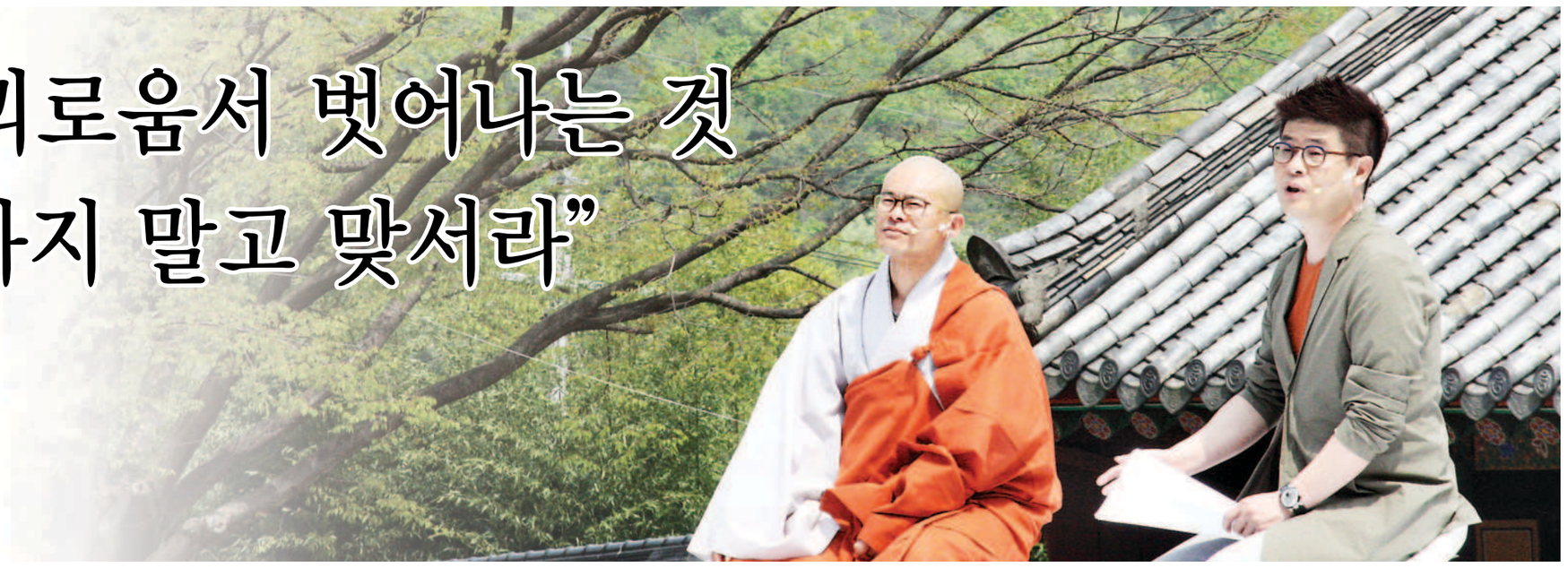
원효보살 1329주기 추모재

◆ 일시 : 불기 2559(2015)년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경주시 용담로 79-48 경주실내체육관
◆ 문의 : 총무원 054-743-0700

* 가사장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강신주와 함께 하는 **해탈 토크 콘서트 현장**

“해탈은 괴로움서 벗어나는 것 고통 피하지 말고 맞서라”



통도사 원산 스님 등 400여 명 참가
진로고민·자녀문제 등 질문 쏟아져
즉문즉답 속에 “고민 타파 됐어요”

‘굴레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다.’ 해탈을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다.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원하지만 해탈로 나아가는 길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스스로를 얽매이는 수많은 고민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며 주저앉게 한다. 이런 현대인들의 고민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MBC(사장 윤길웅)는 4월 24일 통도사 서운암(주지 동진)에서 ‘강신주와 함께하는 해탈 프로젝트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서운암 주지 동진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철학자 강신주 씨는 인터넷방송 팟캐스트를 통해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이들의 고민을 명쾌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올해의 책 1위로 꼽힌 〈감정수업〉을 비롯한 〈다상담〉시리즈와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등 30여 권을 저서를 펴냈다.

특히 토크콘서트에는 교무국장 정진 스님이 사회자로 함께해 친근한 말투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스님은 어렵고 딱딱할 것이란 편견을 깨기도 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해탈이란 말은 ‘풀 해, 벗어날 탈’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행이 아닌 행복한 나날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다양한 고민 상담 진행돼

토크콘서트에서는 먼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한 여성의 고민이 나왔다. 이 여성은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며 현재 무직인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유학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놨다.

강신주 씨는 “고민을 한다는 것은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라며 “갈림길은 고민이라기보다 선택의 기로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 스님은 “스스로를 잘 살피라. 직장도 남자친구도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쉬고 선택한 바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결혼 후 시부모의 종교생활 강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한 여성의 사연도 공개됐다. 이 여성은 “기독교인이지만 시부모님 강요로 먼 거리에 있는 시댁 근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며 “문제는 남편의 직장 문제로 시댁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가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강신주 씨와 정진 스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주 씨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헤어지라’”며 “이런 여건 하에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챙겨놓지 않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스스로 지키는 능력이 없다면 시댁에 들어가 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강 씨는 이어 “시부모들은 화목한 기독교가정을 지키고자 할 뿐으로, 며느리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입장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 스님은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가 있다”며 “어떤 방향이든 결정하고 움직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 지기 때문에 빠른 결정과 함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으로서 무소유를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등이 나왔다.

가족 간의 소통 문제 나와

이어 즉석 질문 시간도 마련됐다. 울산에서 온 서경자(56)씨는 “24살 아들이 있는데 대화와 소통이 어렵다”며 고민을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 스님과 강신주 박사는 “포기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소통이 잘 된다는 기준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 한 후에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많이 성장해서 그렇구나 하고 알아야 한다. 입을 닫고 들어라”고 조언했다.

서경자 씨는 “말을 좀 줄이라 하셨는데 아들 말을 좀 더 들어야겠다고 느꼈다. 돌직구로 말씀 하셨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양한 질문들은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의 공감도 이끌어냈다.

부산에서 온 김현희(가명 · 38)씨는 “자신도 어린 자녀가 둘이 있어서 기독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이 특히 안타까웠다. 엄마가 그렇게 약한데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느냐 한발 더 내딛어야 한다는 말은 정말 마음에 와 닿았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 하면서 정진 스님은 “고민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것이지만 고민 해결은 선택인거 같다. 머물러 있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선택해서 나아가라”고 조언했다.

강신주 박사는 “삶에 대해 용기만 있으면 고민은 없는 거 같다. 고민의 반대말은 용기라고 생각한다. 머리가 좋으면 자기 합리화하고 비겁하게 만든다. 정면 돌파해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산을 타는 것과 비슷하다. 한발자국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도사 서운암=하성미 기자

강신주의 해탈 프로젝트는?

울산MBC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강신주의 해탈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 3부작과 토크콘서트 1부작으로 진행됐다. 인생의 굴곡을 빼닮은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사계절이라는 형식을 빌려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품고 있는 고민을 해탈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한 기획이다.

계절별 촬영 중 ‘제1부 여름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불처럼 뜨거운 여름을 의미한다. 여름을 빼닮은 20대 청춘들과의 만남으로 진행됐다. 학업과 진로,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20대 청춘들과 개인적인 가정사와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청춘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는 시간이다.

‘제2부 가을, 당신의 맨얼굴을 보았는가?’에서는 자신의 진짜 참모습을 찾고자 하는 30~40대 여성들과의 대화다. 가을의 통도사에서 진행됐으며 더불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통도사의 조계암, 극락암의 선원과 무문관을 공개한다.

‘제3부 겨울,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는 통도사에서 최초로 진행된 단기 출가학교 프로그램이다. 암환자, 교장선생님, 은행원, 성폭력 피해자 등 각자의 사연을 품고 통도사를 찾은 출연자들이 참가했다.

‘제4부 봄, 감정의 주인으로 서다’는 프로그램의 마무리이자 모두의 새로운 출발을 염원하는 계절인 봄을 주제로 통도사 서운암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송은 5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11시05분 울산 MBC에서 방송된다. 토크 콘서트는 5월 16일에 방송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울산 MBC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울산 MBC가 개최한 해탈 프로젝트인 ‘서운암’ 토크 콘서트에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교무국장 정진 스님을 비롯해 원산 스님 등이 참여해 대중들과 소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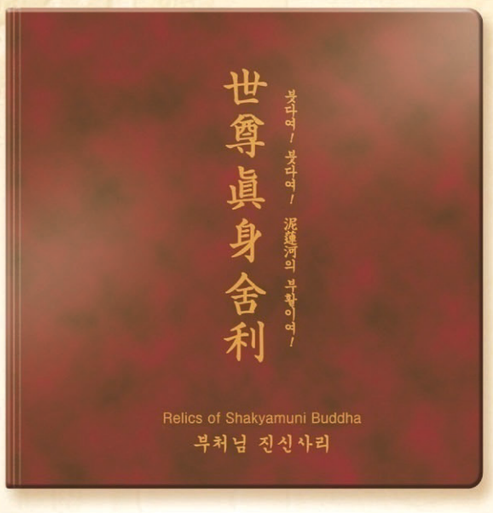


참석자들이 토크콘서트를 지켜보며 박장대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부처님의 고귀하고 영롱한 사리사진**을 친견하여 세세생생 복덕을 누리세요

– 국내 최초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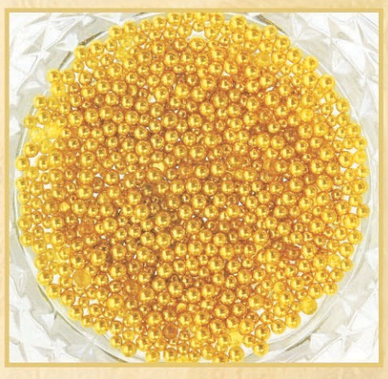
世尊眞身舍利 붓다여! 붓다여! 泥蓮河의 부촐이여!



若見如來舍利 卽是見佛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 것은 즉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대반야열반경)



부처님 진신사리



황금사리
부처님의 혈(血) 사리로써 황금색의 장엄하고 화려한 사리



사리불사리외 아라한사리 모음

부처님 사리는 수정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과 함께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등 오색영롱한 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부처님과 동일체로 생각하였고 가장 진지하고 경건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불자님가정에 진신사리집을 모셔놓고 기도 하시게 되면 엄청난 환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신사리친견법회에서 촬영된 아주 고귀하고 장엄한 사리사진입니다.)

3. 부처님의 사리집을 소장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4. 부처님의 진신사리의 진가(眞假)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사찰에서 의식시 법당에 모셔놓고 불공을 드리면 무량한 가피(加被)를 보실수 있습니다.

• 크기 : 30cm X 30cm, 166면, 총천연색 칼라 사진집 •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처님 사리 증명서 첨부
• 정가 : 280,000원 구입문의 : 055-388-0919 총 무 : 010-7283- 0089

보급처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계좌번호 : 농협 351 – 0793 – 0193-63

신행 · 포교 소식

90개 군부대에 3만개 자비선물 지원

군종교구, 4월 30일 선물포장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군장병 자비의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군종교구는 불서 〈매일매일 만나는 부처님〉, 합장주, 과자류 3종 등을 담은 위문품 3만개를 자비의 선물로 마련했다.

자비의 선물은 육해공군 신병교육부대 36곳과 최전방 격오지 군법당, 백령도와 연평도 등 최북단 도서지역, 해안초소 54곳 등 총 90곳의 군부대에 부처님의 자비심을 담아 전하게 된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군종교구는 오는 5월말까지 자비의 선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군포교 지원단체 회원 40여 명은 4월 30일 자비의 선물 포장 작업을 전개했다. 자비의 선물 겉면에는 '봉축 부처님오신날-부처님 품안 따뜻한 병영생활-군종교구' 가 새겨져 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군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심을 전하는 뜻깊은 불사인 만큼 보다 많은 불자들이 자비의 선물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사경공모전 진행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6월 12일까지 '제18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사경체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제시된 사경시안에 사경한 원본 △제시된 경구를 이용한 자유표현 작품 △제시된 경구를 1일에 1회씩 10일 이상 사경한 노트 등 1가지방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정신성과 예술성, 창작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공모전은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봉축위원장상이, 최우수상에 동국대총장상, 우수상에 조계종포교원장상과 파라미타총재상, 불교신문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전국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모전은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사경시안을 내려받아 작품을 완성한 뒤 오는 6월12일까지 파라미타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제4회 108유아수계법회 개최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제4회 108유아수계법회' 를 5월 9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개최한다.

108유아수계법회는 '부처님께서 미래에 부처가 될 사람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는 본생담의 경전내용에 근거해 '마정수기' 와 계를 받는 의식이 진행된다.

봉은사 측은 "부모의 신앙을 자녀의 마음에 담고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과 인연을 맺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기원하는 자리"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봉은사는 4월 28일 '힐링멘토와 함께한 행복여행 콘서트' 를 회향했다. 마지막 콘서트에서는 불교 명상심리학의 대가인 서광 스님이 나서 현대인의 심리 치유를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힐링콘서트는 혜민스님과 원빈스님, 정목스님, 서광스님이 멘토로 나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 가르침 실천하니 사업도 탄탄대로"

불교계 기업형 마인드케어프로그램 '각광'



'대추씨' 와 춤명상 힐링운동회 모습.춤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불교가르침 경영에 접목하니 사업이 더욱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동국대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경영자들은 불교적 가르침에 따른 기업경영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례용품 전문업체인 에프엔에스를 경영하는 남승현 대표(20기)는 "불교에서는 하심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경영에 도움이 됐다"며 "생산고객의 입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했더니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최근 명상 등 불교 수행 방식을 기업경영에 도입하는 CEO들이 늘며 불교계 기업형 마인드케어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먼저 서울 주요대학 중 유일하게 불교분야 기업경영 최고위과정을 운영하는 동국대는 매학기 40여 명의 기업가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찾고 있다.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이하 불교최고위과정)은 2004년 문을 연 뒤 지금까지 20기 66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처음에는 이름난 사찰의 승려들이 주로 이곳을 다녀갔지만 점차 이름이 알려지면서 불교 신앙을 가진 기업인 · 정치인 · 법조인 등이 찾기 시작했다.

개강 초기에는 불교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강좌로 시작해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불교와 사회생활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미래지향의 상생 경영과 불교정신 △불교의 교육철학과 미래교육 △고령화시대의 불교사회복지 △현대 산업디자인과 불교예술 △불교 마케팅의 과제와 전망 등의 강좌가 인기다.

정승석 불교대학원장은 "불교 최고위과정에 수료한 기업경영가들이 기업 · 사회활동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열기에 덩달아 바빠진 이가 있다.

동국대 불교경영과정, 기업가 인기
기업형 자비명상 매년 3000명 연수
최근 소셜 마인드케어 서비스도 선뵈

기업체를 찾아 자비명상을 전하고 있는 마가 스님이다. 스님은 2002년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곡사에서 진행한 4년 동안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삼성 · 우미건설 · 신한은행 등 기업연수도 진행했다. 최근 1월에는 한국문화연수원과 기업경영 케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마가 스님의 기업체 대상 자비명상의 특징은 감성경영을 위한 대화훈련. 임직원들이 서로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고 칭찬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애니어그램, 코칭 등도 함께 진행된다.

마가 스님은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화를 통한 소통"이라며 "불교의 가르침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이 담겨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최근 불교계에는 소셜벤처기업도 탄생했다. 2012년 10월 설립된 '대추씨' (대표 권민희)는 에너지충전워크숍인 ' 어른이놀이터' 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셜벤처기업을 거쳐간 인원은 3년간 약 3000여 명에 달한다. 그동안 기업을 찾아다니며 진행한 워크숍 회수만 280여 회. 기업체 면면을 살펴봐도 넥슨, KT&G복지재단, 한 살림, 아이디병원 등 다양하다. '대추씨' 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마음피트니스' 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툴킷으로 최대 6명까지 사무공간에서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5월에는 페이스북 '마음피트니스' (https://www.facebook.com/0Mindfitness0)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마음 측정 및 상담도 진행한다.

툴킷을 판매한 수익금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팀과 함께 사회복지사를 위한 '소진예방프로그램' 보급으로도 환원된다.

권민희 대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라며 "이러한 힐링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기업 발전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소외계층 위한 '행복바라미' 대장정 들어가

5월 1일 개막행사,
내소사 괘불 광화문에 걸어
스포츠스타 대거 참여



4월 30일 행복바라미 축전을 위해 광화문에 걸린 미황사 괘불



행복바라미 카드결제에 동참한 자승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 산하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은 5월1일 '2015 행복 바라미 문화 대축전' 을 열며 내소사 괘불을 광화문 광장에 걸었다.

행사에는 행복바라미 홍보대사 이용대, 최현주등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스타들이 참여했다. 개막장소인 광화문 광장은 전통등 및 보물 제1268호인 내소사 괘불, 전통한옥 등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전통문화를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성됐다. 광화문광장에선 남사당패놀이, 가야금 연주, 승무 · 법고 · 바라춤 공연을 펼치고 널뛰기, 투호놀이, 버나 돌리기 등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전통문화축제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10곳에서 연다. 2일 인천 · 수원, 3일 광주 · 전주(3일), 10일 부산 · 울산 등에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축제를 진행한다.

날마다 좋은날은 전국 주요도시 10곳 등 전국 140곳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모금장소가 증가했다.

각 지역에서 모인 기부금을 따로 합산하지 않는다. 그 지역 사찰 신도회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카드 단말기를 활용한 기부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이 모금캠페인을 통해 2013년 209명, 지난해 260명의 이웃을 도왔다. 올해는 5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기흥 이사장은 "행복바라미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대축전과 날로 각박해져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상생과 사회적 공동 선(善)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9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3천배로 세상 아픔 함께하며 자비행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5회 난치병어린이 돕기


정계정사회복정재단이 개최하는 '국 · 내외 난치병어린이 정원 3천배 철야정진(이하 3천배철야정진)' 이 올해로 15회를 맞는다.


2013년 '3천배 철야정진' 에서 발원문을 낭독하는 김두정 어린이.

14년 동안 7억 5천만원 모연
700여명 어린이 치료비 제원
2012년부터 해외 환우 돕기도
5월 9일 제계사 등 전국서 실시

두종이는(11세, 남) 2살 때부터 중이염과 탈장 등의 수술을 시작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3살 때 고관절을 다치면서 난치병인 뮤코다당체 침착증을 앓고 있음을 알았다. 아버지는 소작농사를 짓고 어머니마저 병져 누워 할머니가 두종이를 보살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었다. 이런 두종이는 2012년 계종사회복지재단이 봉축을 앞두고 실시하는 '난치병어린이 지원 3천배 철야정진' 을 통해 수술비를 지원 받았다. 수술후 빠른 쾌유를 보인 두종이는 2013년 서울 계사에서 실시한 '3천배 철야정진' 에 참석해 발원문을 낭독해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계종사회복지재단이 개최하는 '국 · 내외 난치병어린이 지원 3천배 철야정진(이하 3천배철야정진)' 이 올해로 15회를 맞는다. 이 행사는 지난 14년 동안 진행돼 약 7억 5천만원을 모연했으며 70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며 불교계의 대표 모연행사로 자리잡아왔다.

계종사회복지재단 김경담 과장은 "3천배 철야정진에 참여한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모연금을 암 백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치병 환우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완치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몇 명의 어린이들은 수술을 받고 난 뒤 다음 해 철야정진 참석해 발원문을 낭독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경우가 있어 후원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단순한 모연 행사가 아니라 3천배를 통해 환우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데에 이 행사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초창기에는 서울 계사에서만 실시됐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자비나눔의 의미를 알려나가고 있다. 현재는 계사는 물론, 용주사 마곡사 직지사 동화사 통도사 고운사 선운사 등 교구본사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 단위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가고 있다. 굳이 3천배가 아니더라도 1080배, 108배 혹은 정근 등 기도를 통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모연행사가 되도록 전국적 행사의 규모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매년 30여명의 국내 환우를 돕는 것은 물론 2012년부터는 해외 환우 3~4명씩을 지원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을 기원하는 기도를 함께해 사회적 고통을 나누는 행사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올해도 지난해의 정신을 이어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네팔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할 계획이다.

계종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교구본사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 행사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목표다. 난치병 환우는 물론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불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모연행사를 만드는 것도 목표다. 또한 해외 지원도 10여명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이에 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제15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 지원 3천배 철야정진' 을 5월 9일 계사를 비롯해 전국 단위 사찰에서 각각 실시한다. 3천여 명이 참여 예정인 이번 행사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음성공양을 시작으로 108참회기도 후 저녁 8시부터 3천배 정진에 들어가며 다음날 새벽 3시 회향식을 통해 3천배 수행증 전달로 마무리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계사 주지 원명 스님, 혜민 스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1천만원을 후원한 혜민 스님은 5월 9일 행사에서 발원문을 낭독할 예정이며 108배를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페북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 돕기의 중요성도 알릴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 공간 넓어진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개관 4월 27일 기념행사


4월 27일 열린 서울노인복정센터 분관 개관식 및 기념 행사에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하는 장면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스님)는 4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운현궁 SK허브 102동 1층에서 센터 분관 개관식 및 기념 행사를 가 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이번 분관 설립은 보다 넓은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어르신의 욕구와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이 맞물려 실현되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여가문화 공간인 바둑장기실, 도서관, 체력단련실, 서예실이 분관으로 확장 이전되었으며, 선배시민학교의 모형을 창출할 실험실인 상상교실과 홀몸남성 어르신을 위한 요리교실이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어르신 여가문화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 임종석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 계사 주지 원명 스님,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구자훈 협회장 및

경운동 SK허브 102동 1층에
도서관, 체력단력실 등 확장 이전

서울과 경기지역의 노인복지관 관장들이 참석해 분관 개관식을 축하해 주었다. 또한, 서울노인복지센터 풍물동아리들의 신명나는 사물 공연과 탑골문화예술학교 남성합창반의 축하공연이 이어 고 커팅식, 분관 라운딩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 공간을 넓혔다.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년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군포장애인복제관 '樂 페스티벌' 개최

4월 25일 군포 철쭉동산 야외무대에서


군포장애인복정관 락페스티벌을 개최

전국 장애인 락밴드 축제 '제4회 전국 장애인 밴드, 2015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 이 4월 25일 열렸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이 주최 · 주관하고 군포 철쭉동산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이번 락 페스티벌에는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 은 음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육성과 문화권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4번출구, 블루스카이, 락드림, 화요일 두시, 카운트다운, 청춘밴드 등 장애인밴드 6팀이 참여해 열띤 공연을 펼쳤다.

개그맨 심현섭은 진행자로 프로밴드 '크라잉넛', '갤럭스익스프레스', '브로큰발렌타인' 은 재능기부로 공연에 참여했으며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쿨워커스', 장애아동의 부모들로 구성된 '모락밴드' 도 참가해 행사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정혜숙 기자

광진노인제합복제관, 효사랑 게이트볼 대회

4월 28일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서


참석 내빈들의 케이트볼 시범 장면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이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제10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기 게이트볼 대회' 를 4월 28일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광진구 및 인근 지역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참가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나아가 지역사회 노인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초청 총 16개 팀이 대회에 참가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 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었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자 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위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포항북부장애인복제관 '테마여행' 마련

장애인, 영화 '땡큐 대디' 관람



포항북부장애인복정관 영화 관람

장애인들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눈길을 끈다.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허종국)은 지난 4월 27일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장애인 및 봉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북포항 CGV에서 테마여행 '땡큐, 대디' 영화를 관람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적 혜택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문화누리카드 활용해 여러 가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연 6회 실시한다.

행사에 참가한 박성훈(44, 뇌병변 2급) 씨는 "영화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뮤지컬, 콘서트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사회재활 프로그램, 스포츠 및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서비스 및 여가활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간다는 방침이다. (054)231-1117 정혜숙 기자

사)대한불교선화제계제 제정추대 및 제제법회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 종풍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를 이루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2015년 4월 26일 창종 된
사)대한불교선화조계종에서 본 종단 발전과 종지. 종풍 선양에 함께하실 승려와 사찰을 모시고자 합니다.


종정 혜인 법정 대종사

종 정 : **혜인 법정 대제사(개운사) 안동**
종회의장 : **혜수(대덕사) 창녕**
원로원장 : **삼공(대흥사) 안동**
총무원장 : **법산(용호사) 예천**
호법원장 : **대일(여여사) 창원진해**
총무부장 : **혜원(용선사) 안동**
호법부장 : **용산(대선정사) 안동**
부산교구 포교부장 : **명성(지수암) 부산**

사)대한불교선화제계제 총무원 총무원장 법산 합장

■ 총본산 : 경북 안동시 송천동 41-1 (개운사)
연락처 : 054)823-0270 / 010-8001-6384 (총무원장)
팩 스 : 054)856-9555

봉 제1회 세계불교 미래 법왕청 축

4.8 봉축 경제회복 · 나라안정 기원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세계불교 미래 법왕청에서는 경제회복과 나라안정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는 법석의 자리에 대덕 큰스님들과 내외귀빈 및 사부대중을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시간 내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앙원합니다.

1부 – 봉축 대법회 **2부 – 점심공양 및 경로잔치**

*** 불교TV 촬영 및 각 언론 방송 ***

■ 일 시 : **불기 2559년 2015년 5월 7일(음.3.19)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49-1 용호사(대법왕궁)
■ 주 최 : 세계불교 미래 법왕청
■ 주 관 : 사)교단 용화불교 총무원
■ 문 의 : 043) 253-7657, 010-5469-2917(천강 직통)

세계불교 미래 법왕청 최고위원회, 운영위원회 일동 합장



“화(火)는 공덕 태우는 불과 같다”

‘화’ 관찰법… 일어나는 마음에 코멘트를 하라
화 내려고 할때 인지하면 관찰자 될 수 있어
‘화’ 없애고 행복해 지려면 ‘행불수행’ 하자

동국대 정각원 교직원 법회

월호 스님(행불선원장)

현대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 라는 말이 생길 만큼 화를 참지 못해 스스로와 상대를 위험에 빠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화는 삭이면 병이되지만 터트리면 업(業)이 되는 것이다.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은 4월 14일 동국대 정각원 교직원 법회에서 ‘화(火)는 화(禍)를 낳는다’ 는 주제로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강의했다. 월호 스님은 “화는 공덕을 태우는 불과 같다”며 “화를 내기 전에 스스로 화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시킬 때 화를 객관화하게 되어 비로소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박아름 수습기자**

화는 화를 낳는다.

요즘에는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가 현대인들의 화두입니다. 얼마 전에 MBN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에서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화를 다스리는 법을 기획할 만큼 사회적인 화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지금 화를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화는 공덕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공덕은 쌓기는 어렵지만 까먹기는 쉬운 것입니다. 화는 불과 같아서 매일 쌓은 공덕을 하루아침에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질에 안 맞는다고 살인을 하고, 남대문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화를 너무 삭이는 것이 문제이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생길 만큼 화를 표출하는 것이 사회적 물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화는 참으면 병이되지만 터트리면 업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는 관찰하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근기에 따라서 화를 바라보는 방법을 달리 설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처님은 하근기의 사람일 경우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으니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근기의 사람들에겐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들은 다 공한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 작용만이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근기의 사람에게는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쓰기에 달렸으니, 마음을 좋게 쓰면 천당의 문이 열리고 나쁘게 쓰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기에 따라 화를 관찰하는 방법은 일어나는 마음에 스스로 코멘트를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 모습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며 이것을 초기 관찰형이라고 합니다. 중기 관찰형은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후기 관찰형은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줄 아는 것이며, 말기 후회형은 화를 이미 내 버린 후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합니다. 행복으로 이르는 두 가지 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福) 닦기’ 와 ‘도(道) 닦기’ 입니다.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책 읽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힐링 받았다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돌아서면 허황됨을 느끼게 됩니다. 밖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마취적 행복을 줄 수는 있으나 내 자신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개인에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늘어나거나 욕망이 줄어들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소유가 늘어날 때 행복을 느끼고, 어떠한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 거사님이 제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로라하는 대기업을 다니는 분이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기에 이유를 물으니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동료 여직원 중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한참 잘 되어가고 있던 와중에 다른 남자 동료가 끼어들어 사이를 훼방 놓고 오히려 둘이 더 잘 지내게 됐다면서, 둘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나서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앞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관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르쳐줘도 잘 안 되지요. 연습을 한 번도 안하다가 하려니 힘든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평상시에 연습을 충분히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 갑자기 될 리가 만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관찰’ 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 관찰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마음을 스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본 마음에 스스로 자신의 코멘트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 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그 순간 화를 객관화하게 되고 내가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가 수그러들 것입니다. 평상시에 연습을 하면 됩니다. ‘숨 보기’ 연습만 해도 됩니다. 손가락을 코 아래 두고 코로 숨을 깊이 쉬고 깊이 내쉽니다. 자기 마음이 코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집중을 합니다. 들이 쉴 때 들이 쉰다, 내쉴 때 내쉰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이 연습을 하면할수록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이 길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연습해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아지랑이와 같고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실체가 없고 작용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하면서도 아무도 마음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도 정체를 알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실체가 없으니 정체를 알기도 어렵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모으려고 의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한데 집중시키는 것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코로 숨 쉬며 한 곳으로 모으면 마음이 코 밑으로 모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수행법이기도 하지요. 들숨 날숨을 관찰하며 내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으면 외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욕심 때문이었다, 고통의 근본원인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객관화하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대승기신론에는 화를 관찰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마음의 생주이멸(生住異滅)에는 아예 화가 생기지도 않는 구경강, 화가 생기려고 할 때를 아는 수분강, 화가 생겼음을 자각하는 상사강, 화를 이미 낸 후에 깨닫는 것은 범부라고 칭했습니다. 화를 낸 후에 아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화를 내는 첫 번째 단계에서 내 화를 스스로 바라보고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꽃은 잡화(雜花)다

연꽃은 부처님의 꽃이 아닙니다. 보살의 꽃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보살의 꽃입니다. 부처님 꽃은 사실 잡화(雜花)입니다. 모든 꽃이 부처님 꽃인 것이지요. 즉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이 뜻이 바로 화엄의 사상입니다. 이에 따라 잡화엄경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법화경은 연화경입니다. 보살도를 닦는 경이지요. 만물 천지에 부처님 꽃이 아닌 꽃은 없습니다. 민들레는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각각 자기 고유의 성품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약초가 아닌 풀은 없다는 말은 너도 나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화엄사상의 실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화엄사상이 살아나야 합니다. 숭유대불정책 때문에 조선 때 화엄사상이 죽어갔으나,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이니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뜻은 모든 사람들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부처행을 수행하는 행불을 행하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 아는 만큼 절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것이 바로 행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 기업 창시자 스티븐 잡스는 화엄경의 선지식은 아니지만 현대의 선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티븐 잡스는 출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잡스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선원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선사에게 출가하고 싶다 하니, 선사가 사회생활을 하며 선의 이념을 구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밖으로 나가 차린 회사가 지금의 애플입니다. 잡스는 선 사상을 제품에 반영 했습니다. “완벽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이다”는 애플의 기업 마인드는 바로 선이며, 공(空) 사상인 것입니다.

리셋! 크고 밝고 둥글게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고 외쳐보십시오. 달은 항상 보름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쩔 때는 초승달로도 보이고, 반달로도 보이지만 보름달은 항상 크고 밝고 둥그렇습니다. 우리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마음은 항상 크고 밝고 둥급니다. 살다보니 어둡고 찌그러질 때도 있긴 하지만, 찌그러진 마음을 리셋(Reset)시키는 연습을 해서 다시 내 마음을 크고 밝고 둥글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태평가’ 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그 노래에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지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남들을 즐겁게 해주면 됩니다. 친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주인공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구걸하지 말고 내가 먼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웃으십시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주인공만이 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자기가 자기를 활기 있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에게 바라지만 말고 ‘부처님 덕택으로 이렇게 행복하니 부처님에게 이제 갚겠습니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방법입니다.

행불 하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해보세요. 아는 만큼 잘하고 가진 만큼 베푸십시오. 성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불이 바로 성불입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것이 ‘복 닦기’ 의 실천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도 닦기’ 의 실천입니다.

월호 스님은 … 동국대 선학과서 박사학위를 받고, 쌍계사 조실 고산 큰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 선원서 정진했으며,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또한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겸 행불선원 원장으로서, 불교 대중화를 위해 경전 교실, 힐링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5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5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5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경)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축

제 2대 주광석 회장 취임식 공고

봄은 산하를 다녀가며 만물을 약동케하는 위대한 지휘자입니다.
또한 귀와 눈을 뜨게하는 총명과 예지를 주며 봄은 강야(江野)에 위대한 채색을 가하는 천연적 화가로서 형형색색의 만자홍엽을 점지해 줍니다.
봄은 진정 연못가에 창포백리를 살찌게 하고 명경지수에 천광운영을 노닐게 하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전국에 계신 강호제현님을 모시고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제2대 회장으로 주광석 선생님을 추대하고자 하오니 각 처소에서 정대불사로 인해 분망 할 줄 사료되오나 성원하는 뜻에서 부디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일

◆ 일 시 :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14:00 ~ 17:00**
◆ 장 소 : 하림각 컨벤션센터 3층 아젤리아홀
◆ 전 화 : H.P : 010-8009-8860 (중앙본부장)
H.P : 010-5272-9740 (중앙본부기획실장)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주 관 : 무교신문사, Ⓙ 종교세계신문사
◆ 문 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909 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2198-5022 ~ 4 / FAX 02-2198-5025
http://kroa.or.kr e-mail:jonggyo119@daum.net

간화선사도 불교사회 개혁 추진했다

박희승 성철연구실장, 한국선학회 '춘계학술세미나'서 강조

흔히 산중불교로 대변되는 근현대 한국 불교가 역으로 수행정신 확보를 통해 사회 참여를 해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사진〉은 4월 25일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연세대 외솔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세미나에서 '간화선의 현실 인식과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간화선사들은 근현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불교와 사회개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제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교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행활동이며, 그 중심에는 제교인들의 수행이 있음을 강제했다.

박 실장은 "최근 '간화선에 현실 참여 의식이 결여됐다', '선에서 현실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없다', '깨달음 지상주의가 현실대응에 장애다'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불교를 통속적으로만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성철 스님의 수행을 사회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성철 스님이 군사독재 시절 현실정치와 거리를 둔 것은 불교의 선풍진작을 통해 불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박 실장은 "당시 불교는 전체 승려 중 대처승이 80%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

불교 사회참여 '통속적 시각' 비판

경허 · 성철 스님의 방식 고찰

불교 세속화 영향 비판도 나와

교의 본질회복을 통해 대중들에게 불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며 "제선제 이래 수백 년 동안 산중으로 밀려나겨우 명맥을 이어온 불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재양성과 교단 쇄신이었다"고 강제했다.



박 실장은 "섣부른 사회참여가 아닌 불교 근본의 정체성을 살려 현대의 마음에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제교의 사회참여"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경허 스님이 1895년 도성출입 금지 해제 당시 불교계에 한양구경 열기가 일던 시절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한 현실인식도 예로 들었다.

박 실장은 "산중에서 선풍을 세우고자 한 것은 불교 정체성을 세우고자 한 것이며 경허 스님은 일제강점기 일부사찰 대표가 일본 제동제과 연합을 도모할 때 임제법통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1876년 개항 이후 유대치, 오경석, 이동인 등 불자거사들이 선(禪) 정신으로 혁신을 도모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제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도 "세속에서는 불교의 초세속적 삶의 양식에 위안을 얻고자 한다. 오히려 불교의 사회참여 위기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교계의 세속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선과 명상, 선과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류상윤 박사(동국대)는 '제사선에서 원용하는 경영의 위기관리'에서 "선수행을 통한 평상심 유지가 경영일선에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다"며 "변화 감지 및 대응, 구성원들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인식론과 현실' 세미나

5월 16일, 덕성여대서 개최… 가상공간에 대한 불교시각 조명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제남)는 5월 16일 8시 서울 덕성여대 안국동캠퍼스에서 '불교의 인식론과 현실'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인터넷 등 가상현실에 대한 불교의 시각이 논의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우동필 전남대 교수의 '역관의 십이연기' △정은해 성균관대 교수의 '유식의 증자증분에 관한 담론 지형의 분석' △안환기 서울대 교수의 '유가행파의 눈으로 본 인터넷-식(識)과 가상공간' △김영진 동국대 교수의 '탕용통의 승제 이해에서 보이는 본체론 도식의 문제점' △정혜정 원광대 교수의 '불교적 시각의 성장문학과 인성교육-한승원의 초의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정토학회, '생전예수재' 학술대회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는 제계사와 공동으로 5월 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생전예수재'를 주제로 제18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보광 스님의 기제강연을 진행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성운 동국대 평생교육원 겸임교수의 '생전예수재 설행 차서의 특성' △불찬범음연구소장 혜일 스님의 '생전예수재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 학술연구교수의 '생전예수재의 제교문화적 의미와 위상' △성청원 동국대 불교학부 외래교수의 '제계사의 생전예수재' 등이 발표된다.

신규탁 한국정토학회장은 "생전예수재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재확인해 우리나라 전통문화 속의 불교사상을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581-3138

노덕현 기자

영화와 불교의 만남 모색한다

불교문예연구소 5월 12일 봉축 세미나 개최

'만다라' '화엄경' 등 불교영화부터 '매트릭스' '클라우드 아틀라스' '인터스텔라'의 헐리우드 영화까지 최근 영화 속 불교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영화와 불교사상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끈다.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영화와 불교의 만남'을 주제로 5월 12일 오후 1시 동방대학원대 호운각에서 제5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 대학 영화, 영상학과 교수들이 나서 영화와 불교의 접점을 모색한다.

먼저 세미나 1부는 영화와 불교미학의 만남이 주제다. 오경후 동국대 학술원 연구교수의 사회로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가 '불교와 영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발제하며 윤광봉 前히로시마대 한국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최원섭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가 '불교소재 영화와 불교적 영화, 그 변증법적 만남'을 발제하고, 류제동 중앙대 철학과 전임연구원가 토론한다.

또 이나라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외래교수의 '영화적 이미지와 불교적 미학' 발표와 함께 이효인 경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2부는 그동안 나온 영화 속의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분석이다. 정영식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객원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권성훈 경기대 외래교수의 '한국영화에 나타난 불교적 구원관' 발표에 이어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토론한다.



1999년 개봉이후 불교관련 이슈를 모은 영화 '매트릭스'

이어 신광철 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외국영화에 투영된 불교적 사상과 특성'과 함께 김성희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또 박수호 서울디지털대학 교양과정 교수가 '정보화시대에 불교와 영화의 소통 전망'을 발표하고, 한성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가 토론한다.

마지막 총평은 동방대학원대 석좌교수 법산 스님이 맡을 예정이다.

차차석 불교문예연구소장은 "1999년 5월 '매트릭스' 개봉 후 영화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일었지만 지속되지 못했다. 최근 '인터스텔라'가 개봉 후 최신 과학 지식을 영화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 불교와 영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 수리현장 투명화 정책 본격 시행

문화재청, 4월 29일부터 수리실명제 · 일반인 관람 확대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모든 문화재 수리현장을 상시 공개하고 수리실명제를 시행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제치는 문화재 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하나다.

이에 올해부터 국고보제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든 수리현장에는 제망지점(view point)을 설치하며, 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 덧집이나 울타리에는 1개소 이상에 투명판 등을 설치해 누구나 수리현장을 항상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의 문화재 수리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수리현장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중점공개' 대상을 지정 · 운영한다.

올해 중점공개 대상은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 '안동 제탑리 5층 전탑 보수' 등 총 20개 수리 현장으로, 지난해(10개소)보다 2배 확대돼 운영된다.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중점공개' 수리현장 관람을 희망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 후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수리 현장에서는 수리전문가,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유산해설사 등으로부터 수리과정과 문화재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리현장별 '중점공개' 일정과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정보공개-문화재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유산 3.0)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수리에 관한 모든 정보(참여자, 설계도, 관계전문가, 수리보고서 등)를 문화재청 누리집(행정정보-행정자료-문화재 수리 실명제)을 통해 공개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돼 국고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리현장에 설치하는 공사 안내판에는 기제에 명시되던 공사개요와 공사참여자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현장 대리인의 부재기간과 그 사유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수리현장 공개와 '중점공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리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과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수리현장 공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귀농귀촌 활성화 세미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사회과학대학원은 5월 22일 오후 3시 포항 동국대 인재교육원에서 '포항시의 도시발전과 귀농 · 귀촌 활성화 방안'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동환 동국대 부동산학과 외래교수의 '환태평양 시대의 포항시 도시발전방안' △박해성 풍수지리연구소 소장의 '재물운 들어오는 풍수지리 제성방안' △이상묵 동국대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원생 대표의 '포항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된다.

박병식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원 원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분야 청년 간담회서 제도개선 청취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2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분야 청년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문화재 분야 청년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창업자, 수리기술자, 무형문화재 이수자, 사회적 기업, 한 문화재한 지킴이, 돌봄사업, 청년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문화유산교육, 매장문화재 등 여러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문화재 분야 도전 의식을 가로막는 법 · 제도적 장애요인 또는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분야 청년을 위한 특화 지원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소개하며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지자체와 사회적 기업 성격인 문화재 돌봄단체 등이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잡초제거, 제설작업, 배수로 정비, 환경미화 등 일상적 관리와 함께 창호, 벽체, 기단, 마루, 기와 등의 경미한 탈락 · 훼손을 신속히 수리해 사후 보수예산을 절감하는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2010년 5개 시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3년 전국 시 · 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대상을 확대됐다.

2014년에는 시 · 도지정문화재까지 포함됐다.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자체 운영하던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사)문화재돌봄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한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 회 前 사회부장 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제1기 불교의식 법음 범패 학인 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3개월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법음,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강주스님 : 일관

보경사 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5년 **5월 7일**(목)
→ **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 (054) 262-1117(보경사 종무소)

※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작은 희망에도 귀 기울이는 불교되도록”

광주동구불교협의회 회장 무등 스님 취임

“회원 사찰에서 들려주는 모든 의견을 많이 듣고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봉사하겠습니다.”

광주불교의 성지(聖地)라 할 수 있는 동구지역 불교협의회 회장에 무등 스님이 취임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는 4월 27일 광주 히딩크호텔 연회장에서 제6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원일 스님(백양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무등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불교연합회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동구지역 불교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구지역 사찰을 비롯해 대중스님들의 작은 희망에도 귀를 기울여 불자들이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공업중생의 바른 지혜를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임한 제5대 광주동구불교협의회장 만효 스님은 “동구불교협의회는 종단과 종파를 초월하여 하나로 화합하는 불교단체”라며 “소속 사찰 스님들의 동구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이임사, 협회기 전달, 격려사, 축사, 취임인사, 공로패 전달(5대 회장 만효 스님), 위촉장 증정, 임명장 수여, 축시 낭송, 문화공연 등이 진행됐다.

한편, 광주동구불교협의회는 2004년 광주 동원사 지각스님을 초대회장으로 창립해 매년 무등산 산신제, 신년 하례법회 등을 주관해왔다. 이날 회장을 취임한 무등 스님은 1996년 백양사 벽상 스님을 은사로 입실 건당해 천룡사 주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시져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무등 스님이 취임식에서 불교기를 흔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봉축일정 본격 ‘START’

4월 25일 전주종합경기장서 점등식


전북 봉축위의 탑등은 금산사 5층석탑을 모델로 설계했다.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올 전북지역의 봉축행사의 막이 올랐다.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4월 25일 전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등 전주지역의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포교 신도단체 회원등 300여 명이 동참해 전라북도 도민의 안녕과 전북불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점등식에서는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전북 봉축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기원하는 전북중요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이 진행됐다. 영산작법 보져회 스님들의 작법에 이어 헌공, 바라밀 합창단의 축가와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 점등 선언, 점등, 발원문 낭독, 탑돌이, 사홍서원 등이 진행됐다.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향기로운 세상이 구현된다”며 “오늘 불을 밝힌 기원탑의 불빛이 온 누리에 퍼져 전라북도의 발전은 물론 민져화합과 국태민안, 세계평화가 이룩되기를 기원한다”고 설했다.

한편, 이날 점등된 기원탑은 높이 7.2m의 보물 25호 금산사 5층석탑을 기본 모델로 부처님 오신날을 상징하는 4.8m를 더해 12m의 높이로 져성됐다. 탑등은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25일까지 불을 밝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백연 행사 중 열린 향토문화예술제의 모습.

청소년 문화예술경연 ‘동백연’ 열려

선운사 4월 24일 개최…학생·학부모 1000명 참석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예술잔치인 ‘제39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가 4월 24일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에게 효행과 애향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동백연은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과 학부모 1,000여명이 참석했다.

선운사 동백나무 숲 앞에서의 동백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연 이날 경연은 백일장, 미술, 만담설화, 타악 경연, 무용, 판소리, 시져경창 등 문화예술부문과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 체험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선운사가 문화와 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백연을 통해 성적과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5월8일 고창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은 5월 22일 고창문화원에서 열린다.

한편, 올해로 39회째를 맞이한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진대회는 져선 성종14년 행호선사가 져성한 선운사 동백꽃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창설됐으며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예술제로 발전돼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BS광주불교방송, ‘자비의쌀’ 전달



광주 BBS는 4월 23일 쌀 4000㎏을 전달했다.

광주불교방송(사장 이민수)은 4월 23일 광주 서구DY빌딩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자비의쌀 전달식에는 광주 향림사 주지 혜향 스님, 져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원스님, 사단법인 자비신행회 정원채 상임이사, 광주시 서구청 김은규 주민생활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증된 쌀은 총 10kg 400포대로 광주 송광종합사회복지관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자비신행회, 서구청에 각각 1000kg씩 전달될 예정이다.

이민수 사장은 “부처님오신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이번에 전달된 쌀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해안 대종사 추모재


해안 스님 41주기 추모재.

근세 호남 선맥의 기둥인 해안 스님 41주기 추모재가 부안 내소사에서 봉행됐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4월 25일 해안 스님 열반 41주기를 맞아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스님, 전등사 동명 스님 등 문도스님과 불자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해안 스님 문도를 대표한 철산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을 수행의 지표로 삼아 열심히 정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해안스님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14년 부안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 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69년 불교 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내 고향 무료 순회 진료


고창복지시설 의료봉사 장면.

고창군 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4월 28~29일 ‘내고향 무료순회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내과, 외과, 혈액검사 등 3개 영역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서울아산병원 가정의의학과, 통증의학과 전문의 7명이 참가했다.

대원 스님은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의료봉사로 농어촌 지역 어르신에게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총 3회째를 맞은 ‘내 고향 무료순회진료’는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향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붓다로 살자’ 수요 포럼

광주 선덕사(주지 원묵)가 부처님 오신날 맞아 ‘붓다로 살자 수요 포럼’을 개최한다. 5월 6일 김점란 붓다의 대회 연구소장의 ‘붓다의 대화’, 5월 13일 백승권 前 청와대 홍보수석의 ‘붓다의 글쓰기’, 5월 20일 져성택 고려대 교수의 ‘붓다로 사는 의미’ 등이 이어진다.

선덕사는 1월 25일 져계종이 진행하는 결사운동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으로 선정됐다.

10가지 청규를 제정하고 청규에 맞게 3개월마다 포살법회를 시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련 광주 연꽃문화제

(사)동련 연꽃문화제 광주행사가 무각사에서 개최됐다.

동련 광주전남지구는 4월 26일 광주 무각사에서 제8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등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등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이와 함께 행사에는 인경체험, 풍선 터트리기, 페이스페인팅, 타악 경연, 무용, 먹거리 등 다양한 부스체험행사가 함께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제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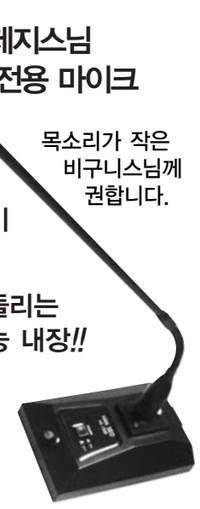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제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제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제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일상서 계 지키며 건강과 행복 찾아”

통도사 4월 23일~25일 보살계 봉행

개산조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봉안하고 금강계단을 쌓아 계를 설한 계율의 근본도량 통도사(주지 원산)가 보살계를 봉행했다. 4월 23일~25일 통도사 설법전과 금강계단에서 봉행한 이번 보살계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1500여명의 불자들이 성황을 이뤘다.

4월 23일 오전 9시 불공으로 시작한 보살계는 산림법석, 연비, 사리탑 참배, 탑돌이 등으로 마무리됐다. 전계대화상 영축총림 율주 혜남 스님을 비롯해 3사 7증사 스님이 3일간 보살계를 설했으며 참가자들은 계를 지키는 삶을 발원했다.

25일 회향에 앞서 주지 원산 스님은 “자장 율사께서 신라의 대국통으로 전국의 모든 스님이 통도사에서 계를 받았다. 참가하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한명이 되신 것은 영광이며 이 계를 지킴으로 금생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다음 생에도 수계 공덕으로 어려움이 없어지고 행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통도사 보살계에 참가한 불자들은 통도사에서 계를 받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온 김복희(70)씨는 “멀리서 굳이 이렇게 온 이유는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는 기쁨이 있어서다. 2박 3일 동안 기도하며 마음이 편안했고 스님들의 열정에 감복했다.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며 소감을 말했다.

또한 통도사에 참가한 불자들은 가족들에게도 신행활동을 독려하고 함께 계를 받아 지킴으로써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7년 동안 빠짐없이 보살계에 참석하고 있는 이상복(76) 불자는 “손자가 3살 때부터 참석했는데 지금은 10살이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으로 잘 자라고 있다. 계를 받고 지키는 불자로 사는 덕분에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 같다”며 참여 소감을 말했다.

전국 각지서 1500여 불자 참여

연비, 사리탑 참배, 탑돌이 등

가족 단위 수계자 참여 ‘눈길’

특히 통도사 보살계에 참석한 불자들은 계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참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회향식에서 통도사는 보살계에 30회, 25회 20회, 15회, 10회 등 연이어 참석한 불자 82명의 신심을 격려하고 기념가사, 성만패 및 메달을 수여했다.

한편, 통도사는 수계식에 앞서 영축율학승가대학원 및 승가대학 54명의 스님들에게 5000여만원의 ‘영축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가 4월 23일~25일 설법전과 금강계단에서 보살계를 봉행했다.

“계 지키며 자녀들에게 모범 보여줘”

30년 동안 보살계 참석한 김말순 불자



30년 동안 통도사 보살계에 참석한 김말순(67 · 부산 금정구 · 사진) 불자는 “계를 지키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전했다.

“시댁과 친정 모두 불교 집안이었죠. 처음에는 계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참석했는데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계를 지키고자 노력했고 그 인연으로 가정도 화평하고 자식들도 잘 성장한 거 같아요. 이번 행사에서는 며느리, 사위, 100일 된 쌍둥이 손녀들까지 계를 받았습니다.”

〈수보살계법서(受菩薩戒法序)〉의 가르침은 김말순 불자를 30년 동안 깨어 있는 수행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매년 계를 받았으니 오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또한 불자로서 작은 선행이라도 하자는 다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 가짐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 같아요.”

덕분에 아들은 치과의사로 딸은 중학교 교사로 성장했다고. 김말순 불자는 “가정의 평화와 건강 이 모두가 부처님의 계율이 울타리가 되어 이루어진 결과이며 부처님의 가피”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를 받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불자로 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성철 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에 문 열어

백련문화재단, 4월 24일 개관식… 일반에 개방


백련불교문화재단 성철 스님 기념관 개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자들이 수행 ·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인 ‘성철 스님 기념관’이 공식 개관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성철 스님 기념관(이하 기념관) 4월 24일 경남 산청 겁외사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기념관은 2012년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설계도를 완성했으며, 열반 20주기인 2013년 5월에 불사에 착공했다.

기념관은 성철 스님 생가 터인 산청 겁외사에 마련됐다. 1층은 성철 스님 설법상을 모셔 참배 공간으로 구성했고, 2층 ‘퇴옹전(退翁殿)’은 수행 · 정진 공간으로 사용된다. 기념관 측은 퇴옹전에서 참선과 절, 아비라를 비롯한 다양한 기도와 정진 및 불법 강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중에게 완전 개방할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연화좌대 위 여덟 개의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입구는 불교의 근간인 팔정도(八正道)를 의미하며, 인도 구법승의 출발지였던 돈황 명사산의 월아천을 형상화 하였다. 양쪽 벽면에는 성철 스님의 출가송과 오도송이 원형 직경 3m의 크기로 조각 설치했으며, 더불어 생전 성철 스님을 볼 수 있는 여러 사진이 함께 배치했다.

기념관은 성철 스님 사상 전파를 위한 교육관 개념으로 불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문도스님들이 불자들의 신행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뜻을 모아 교육과 추모, 참배가 가능한 시설로 재설계했다.

이번 기념관 불사를 진행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부처님이 깨치신 길을 걸어가신 성철 스님의 공덕을 우러르고,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정상에 우뚝 서길 서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055)973-1615 박아름 수습기자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창종 및 종정 추대



안동 송천동 사단법인 대한불교선화조계종(종정 법정)이 4월 26일 개운사에서 종정추대 및 창종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춤사위예술원 장임경 원장의 육법공양 후 원로원장 삼공 스님을 대표로 추대식이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종회의장 혜수 스님, 총무원장 법산 스님, 호법원장 대일 스님, 총무부장 혜원 스님, 호법부장 용산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해 법정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했다.

종정 법정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오직 한가지 일에만 심신을 모아 언제 어디서든 여여한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종정 법정 스님과 총무원장 법산 스님은 종단 소임스님들과 사부대중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춤사위예술원 단원들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양로원에 자비나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4월 28일 울릉도 송담실버타워 양로원을 방문해 나눔을 전했다.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양로원에 떡국떡과 부식 등 위문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 자리에는 규정부장 태오 스님, 감찰부장 명원 스님, 사서실장 지암 스님 등 소임스님들과 신도 15명이 참석했다.

송담실버타워는 칠곡 가산 용운사(주지 종명)가 운영하고 있으며 법운 종정스님은 격년으로 소임스님과 신도들과 함께 울릉도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정종사 네팔 지진 참사 위해 모연 활동 나서

‘108 자비손’에 500만원 전달



경남 양산 자비나눔도량 정종사 주지 여해 스님〈사진〉이 네팔 지진 참사를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다. 여해 스님은 “각자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자”며 SNS에 권선문을 올리고 “우리가 각자 따로 사는 듯 해도 그 실상을 보면 연기적으로 다 이어져 공존하고 있다.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은 남이지만 또한 남이 아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여해 스님은 일천만원을 일차 목표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며 개인적으로 모은 자비 보시금 5백만원을 이미 의료봉사단체 ‘108 자비손’(대표 권현옥)에 전달했다. 권현옥 대표(권현옥 산부인과 원장)는 의료봉사에 뜻이 있는 108명과 함께 의료봉사단체 ‘108 자비손’을 창립하고 10여 년간 네팔 등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다. 권 대표는 5월 1일 네팔로 출국했다.

여해 스님은 “모연금이 모아지는대로 모두 전달할 예정이다. 유명한 기부단체를 통해 전달하기 보다 피해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권유했다.

한편, 정종사는 자비나눔도량으로 불자들에게 3000가지 선업 쌓기를 독려하며 육바라밀 중 보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은행 178-082031-01-015 대한불교 조계종 정종사 (055)366-6867

하성미 기자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소통의 장 마련

제1회 청소년 울산 팝 댄스 콘테스트 ‘꽃보다 10대’

봉축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정토사관자재회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원장 능행)은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5월 25일 오후 2시 대학원 야외무대에서 ‘제1회 청소년 울산 팝 댄스 콘테스트, 꽃보다 10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울산지역 초 · 중 · 고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가 능하며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댄스팀은 팀당 6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5팀까지 접수 받는다. 장르는 힙합 · K팝 · 현대무용 · 스포츠댄스 · 한국무용 · 스트릿댄스 · 에어로빅 등으로 공연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된다.

팝송 부문은 5팀까지 접수받으며 팀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연 시간은 5분 이내이며 장르는 K-POP, 팝송, 아카펠라 등이다.

접수마감은 5월 8일이며 추가 접수는 5월 13일까지 이메일(mahabodhi@daum.net) 접수 받는다.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이며 모든 참가팀에게는 장학금 30만원이 수여된다. 제출 서류는 UCC 동영상과 학교장 추천서이며 예선 발표는 5월 15일 마하보디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개별 통지한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가정의 달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민국 비전인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소통 열림 치유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소통, 공감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청소년 · 학부모 상담, 의료 봉사, 만발공양, 컵 연등 만들기와 단주 및 매듭 팔찌 만들기 등도 마련된다. (052)255-8521 하성미 기자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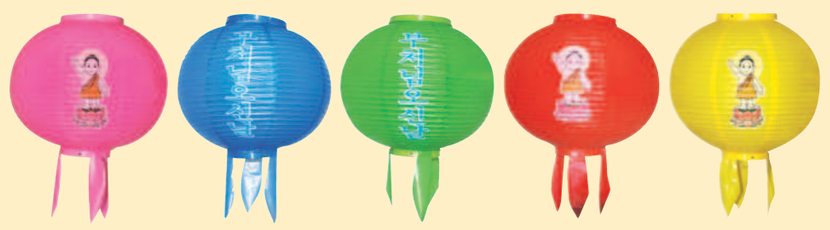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벚꽃 절경에 흠뻑 취한 '신비의 돌탑' 80기

봄꽃이 아름다운 사찰

④ 진안 마이산 탑사

마이산은 계절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 봄에는 안갯속에 우뚝 솟은 두 봉우리가 쌍돛대배 같다 해 돛대봉, 여름에는 수목 사이에서 드러난 봉우리가 용의 뿔처럼 보인다 해 용각봉(龍角峰), 가을에는 단풍 든 모습이 말의 귀처럼 보인다 해 마이봉,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먹물을 찍은 붓끝처럼 보인다 해서 문필봉(文筆峰)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이산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남쪽 산기슭에 있는 마이산 탑사다. 이곳에는 독특한 돌탑이 있다. 이갑용 처사라는 사람이 1885년부터 30여년간 쌓았다고 하는 돌탑인데 비바람에도 100여년간 무너지지 않아 신비감을 준다. 현재 80여기 돌탑이 있는데 태풍이 강타했을 때 웬만한 나무는 뿌리째 뽑혀도 이 돌탑들은 조금씩 흔들렸을 뿐 쓰러지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2012년에는 전국을 강타한 강풍에도 끄떡없는 돌탑의 신비함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불공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당시 주말마다 8,000여명이 탑사를 찾은 것을 비롯해 평일에도 평균 500여명이 방문할 정도였다. 이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마이산 주변 수백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지만 탑사의 돌탑들이 무사하면서 그 신비함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돌탑의 신비함이 알려지면서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0여명에 불과했던 탑사에 전국의 수험생 가족과 환자, 사업가 등 방문객이 줄을 이었던 것이다. 특히 매일 야간불공에 들어간 열성파가 30여명에 이르고 아예 자리를 깔고 밤새워 합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귀띔한다.

그런 영험함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돌탑 앞에 서면 이곳이 인간세계인가, 불국토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외경심이 든다. 경내에 들어서면 온통 돌 천지다. 크기도 높이도 다른 돌탑들이 마이산 아래 탑사 골짜기를 빼곡하게 채웠다. 마치 야외 돌탑박물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런 높은 탑을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 답을 들어도 설명을 들어도 알 길이 없다. 돌탑을 쌓은 주인공인 이갑용 처사는 효령대군 16대손으로 부친이 세상을 뜨자 16세 나이에 3년 시묘살이를 마치고 전국 명산을 두루 다니며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원주의 치악산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다 꿈속에 두 봉우리가 선명하게 보여 그 후 산들을 돌아다니다 마이산을 찾게 되었다. 꿈에서 본 그곳이었다.

이갑용 처사는 자리를 잡고 천지탑과 일월탑, 월궁탑 등을 쌓으며 마이산 탑사를 완공했다. 낮에는 돌을 모으고 밤에 탑을 쌓았다고 하는데, 천지탑은 축지법을 이용해 탑을 쌓았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외줄탑과 원뿔탑 등 생김새도, 쌓아올린 양식도 제각각. 탑사로 들어서는 순간 터진 탄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지만 놀라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

탑사 대웅전 뒤편에 있는 천지탑 한 쌍. 미얀마의 거대 스투파를 연상케 한다. 아무리 거센 강풍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니 그 모습은 실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경이로운 자태다. 절로 두 손이 모인다. 오행을 뜻하는 다섯 개 탑의 호위까지 받는 위엄이 있다. 제일 위쪽에서 아래의 모든 탑들을 호령한다. 다듬지 않은 돌을 하나하나 원형으로 쌓아올라가다가 중간에 합쳐졌다. 틈새하나 없이 짜맞춰 정교하고 완벽하다. 보는 이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러댄다. 반면 대웅전 앞쪽의 돌탑들은 외줄로 하늘을 찌를 듯 서있다. 자연석을 생긴 모양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뿐. 언뜻 보면 한줄기 바람에도 금방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하지만 100여년동안 그 어떤 강풍에도 견뎌왔다.

이갑용 처사, 1885년부터 30여간 쌓아
현존 80여기 돌탑… 강풍에도 끄떡 없어
다섯개 탑 호위받는 천지탑 한쌍 '인기'
틈새없이 짜맞춘 정교함에 탄성 연발


마이산 탑사는 신비의 돌탑으로 유명하다. 현재 경내에는 80여기의 돌탑들이 남아있다. 빨간 동백꽃 사이로 보이는 대웅전이 돌탑과 함께 위용을 자랑한다.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는 신비의 돌탑이다. 돌탑을 쌓으면서 수많은 신비와 전설, 역사를 담았기 때문이리라. 자연이 만든 걸작이 마이산이라면 이 돌탑들은 인간이 만든 걸작품이다. 탑사를 한바퀴 돌고 나면 놀라움은 의문으로 바뀐다.

누가 왜 이 많은 돌탑들을 세웠을까. 이 탑들은 나라를 위해 마이산으로 모인 기운을 다스리려고 탑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탑사 왼쪽의 암마이봉 절벽도 신비감을 더해주는 볼거리다. 폭격을 맞은 듯 움푹 팬 자국들이 선명하다. 이색적이다. 4월중순 아직은 꽃잎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능소화 한 그루가 이 절벽에 붙어산다. 능소화가 피는 7월~8월이면 절경을 이룬다고 한다.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않는 능소화는 돌탑의 신비를 그대로 닮았다.

마이산 돌탑은 참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았다. 그래서 탑을 둘러싼 이견도 많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갑룡 처사가 혼자서 돌탑을 쌓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했다는 것은 이 처사의 장손 이왕선(혜명스님) 씨도 인정하는 바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前 진안문화원장)은 "사방 80cm의 돌이라면 1,200kg 즉, 1톤이 넘는 무게에 해당하고 이런 무게라면 지렛대로 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 올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탑사에는 천지탑, 오방탑, 33신장군탑, 중앙탑, 일광탑, 월광탑, 약사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지탑(天地塔)이 눈에 띈다. 높이가 13.5m에 이르고 동북좌 남서향으로 축조됐다. 천지탑은 음과 양을 뜻하고 보는 쪽에서 오른쪽은 하늘이며 왼쪽은 땅을 뜻한다고 한다.

조성시기에 대해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기법상으로 봐도 돌담식 허튼막돌식 쌓기로 축조하였고 정교한 축조법과 시멘트보강 등으로 보아 1900년대 이후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이산탑사는 매년 4월 15일 경이면 항상 장관을 이룬다.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 터널을 이뤘다. 다. 4월 17일인 평일에 방문했는데도 마이산 탑사는 상춘을 즐기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특히 신비의 돌탑 주변에는 사진에 추억을 담아가려는 이들로 붐빈다.

마이산탑사는 현재 태고종 소속의 진성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진성 스님은 지역에 소외된 이들은 물론 해외에까지 자비행을 펼치는데 진력하고 있다. 기자가 찾아간 날도 해외 구호활동을 하러 떠나 부재중이었다. 출국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진성 스님은 마이산탑사에 국내외 돌탑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탑 박물관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산탑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도 충분한 감동을 주는 자랑스런 성보문화재임에 틀림이 없었다.

진안 마이산탑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입구에서 본 마이산 탑사 경내 전경. 마이산 탑사의 돌탑을 쌓은 이갑용 처사 동상 매년 4월 중순이면 탑사 입구는 벚꽃터널을 이룬다. 탑사 대웅전 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지탑 한쌍 법당 앞 우뚝 솟은 돌탑이 이색적이다.

불교성지순례전문 마하연투어 since 1994
문의처 : 02)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거품없는 상품 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달라 5일
실속상품 99만원, 품격상품 11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실속상품 149만원, 품격상품 179만원
북경/백두산 5일 김해공항, 인천공항 출발 129만원

행복한 나라 부탄 & 네팔 8일
히말라야에 감춰진 꿈의 낙원
베율을 찾아 떠나는 티벳 8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129만원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109만원
관음도량 상해/보타.낙가산 5일 109만원
보현도량 성도/낙산대불/아미산 5일 109만원
문수도량 북경/운강석굴/오대산 5일 129만원

※ 마하연 투어는 추가경비가 없습니다.


〈사진1〉 월정사 9층석탑


〈사진2〉 서정리 9층탑


〈사진3〉 운주사 9층탑


〈사진4〉 안국사 9층탑

호국사상 근거 추정…도상적 해석 근거 없어

답의 진화

㉟ 9층 불탑

우리나라에서 9층의 불탑은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9층삼탑을 시작으로 신라의 황룡사9층탑을 정점으로 삼으며, 오늘날까지 꾸준히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9층의 의미에 대하여 불교 사상에 입각한 도상적 해석에는 아직 학계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호국사상에 근거한 신라의 황룡사9층탑의 조탑 연유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다.〈본 연재 29회 참조〉

현존하는 9층탑에 대하여 몇 기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위치한 월정사로 향하는 길엔 화려하진 않지만 편안한 아름다움이 있다. 보드라운 흙과 곧게 뻗은 전나무, 그리고 길 위로 투명한 차양처럼 드리운 푸른 하늘까지. 청명한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티끌 없이 깨끗해져, 속세를 벗어난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월정사에 다다를 수 있다.

월정사는 645년, 신라에 화엄사상을 처음으로 알린 자장법사에 의해 창건된 곳이다. 지난 29호 황룡사 9층탑 편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자장법사는 선덕여왕의 명에 의해 중국 당나라로 유학간 뒤 오대산에서 7일 동안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때 자장법사 앞에 나타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중국 황실로부터 부처님의 금란가사 1벌과 진신사리 백과(百顆)를 받아 신라로 돌아왔다.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은 자장법사에게 "그대의 고국에 있는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성산이다. 그러니 세존의 진신사리를 잘 간직하여 돌아간 뒤 그 곳에 모시도록 하라."고 일렀는데, 그가 귀국하여 강릉에 다다랐을 때였다. 어디선가 홀연히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나타나 자장법사를 인도하였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만월봉 아래 지금의 월정사 터에 이르렀다. 자장법사는 그 곳에 월정사를 창건하고, 문수보살의 말씀에 따라 8각 9층의 탑을 조성하여 그 안에 37과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지(閔漬)가 쓴 〈오대산사적(五臺山事迹)〉 봉안사리개건사암제일조사전기(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탑이 바로 숱한 화재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고요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국보 제 48호, 월정사 9층탑이다. 〈사진1〉

〈삼국유사〉탑상4 대산월정사오류성중(臺山月精寺五類聖衆)조에서는 "절 안에 있는 5류성중(五類聖衆)과 더불어 9층석탑은 모두 성자의 유적이다."라고 기록하여 탑의 가치와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월정사와 월정사의 9층탑은 자장법사, 화엄사상과 인연이 매우 깊다.

높이 15.2m의 이 탑은 다각다층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4각형의 평면 기단과 3층의 탑신으로 조성되던 이전의 석탑과는 달리 고려 초기부터 유행하던 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8각 9층의 탑신에서 옥개석의 각 귀퉁이마다 풍탁을 달아 놓은 것이 눈에 띄고, 금동으로 만들어진 상륜부를 통해 당시의 금속공예 수법 또한 엿볼 수 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는 사실과 화려한 외관 외에도, 월정사 9층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듯 하는 모습의 석조보살좌상이다. 문수보살, 약왕보살 등 여러 추측과 의견이 분분한 이 보살상은 높은 보관을 쓴 것과 복스러운 얼굴, 날씬한 몸, 화려한 장신구 등이 특징이다. 그런데 탑 앞에 앉아 한쪽 무릎을 꿇고 공손히 공양물을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다.

지난 31호를 통해 화엄사 사사자석탑을 알아 본 독자라면, 이 보살상을 보고 금세 사사자석탑 앞에 있던 석등공양상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을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연기조사라고 알려져 온 화엄사 사사자석탑 앞 석등공양상의 인물을 〈화엄경〉에 등장하는 선재동자라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화엄사의 석등공양상과 매우 흡사한 월정사의 보살좌상에서 화엄경 입법계품의 주인공인 선재동자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석조보살상은 강릉의 신복사지3층석탑 앞과 연산 개태사지에서도 조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9층탑 여러 기가 남아 있다. 그 중 하나인 서정리9층탑〈사진2〉은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해 있으며, 1963년에 보물 제 18호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논 한 가운데서 있는 모습이지만 본래 그 부근에 백곡사(白谷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현재 그 주위엔 기와 조각만이 흩어져 있을 뿐 절이 있었던 다른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탑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층 기단 위에 9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이고 전체적으로 신라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래층 기단에 새겨진 세부 조각이나 기단의 바닥부분 선이 꽃모양으로 솟아있다는 점에서 조성연대가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높이는 6m로, 높은 층수로 인해 안정감은 부족하지만 상하비례가 훌륭하다.

또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운주사에서도 고려시대에 조성된 9층탑〈사진3〉을 찾아볼 수 있다. 운주사는 9세기에 풍수에 능한 도선(道詵)스님이 동쪽에만 산맥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형으로 인해 마치 배가 한쪽으로만 기울까 하는 염려로 배의 한복판에 해당하는 호남 땅에 세운 절이라고 전한다. 또 도선국사가 지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찰 안에 하루 동안 천개의 불상과 천개의 불탑을 도력으로 만들어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처럼 운주사는 수많은 불상과 불탑이 있어 천불천탑(千佛千塔) 사찰로 유명한 곳인데, 18기나 되는 운주사의 여러 탑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높이 10.7m의 1984년 보물 제 796호로 지정된 9층탑이다.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으로 나아가는 길가에 조성된 9층탑은 운주사의 중심에 있어 '중심탑' 또는 '돛대탑' 으로 불리곤 한다.

하지만, 신라말기에 활동한 도선국사의 전설과는 달리 탑의 면이 사각형이라는 사실과 받침돌 위에 올리는 덮개돌, 즉 옥개석 아래의 받침이 생략된 수법 등이 고려석탑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으로 보아 탑의 조성연대가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이 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인공적으로 만든 지대석, 기단석이 아닌 커다란 자연 바위 그대로를 기단 삼아 탑신을 올렸다는 점이다. 이처럼 고려시기에 일반적으로 조성된 9층 석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탑엔 운주사 탑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증표가 남아있다. 운주사의 다른 탑들과 마찬가지로, 9층탑의 몸돌 각 면에 새겨진 아름다운 꽃무늬와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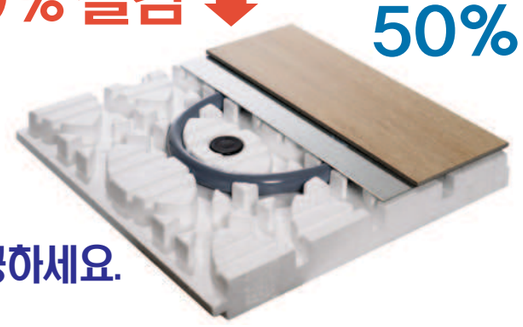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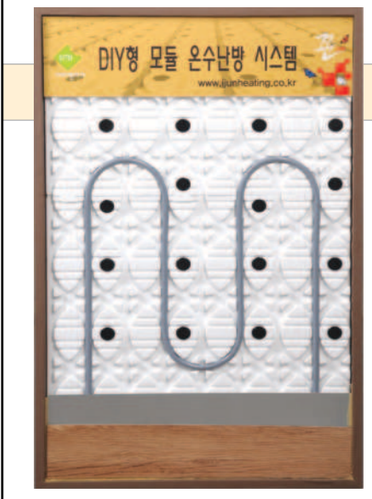
9층탑은 사찰에 세워진 석조탑 외에 금동소탑과 같이 탑 안에 넣는 공양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 중 호림박물관 소장의 9층금동소탑〈사진4〉은 여타 고려시대 금동탑보다 완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높이 56.3㎝, 기단 11.8×16.8㎝의 작은 규모지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모두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1층 탑신부로 오르는 계단과 여러 좌불상, 인물상, 7층탑까지 배치한 섬세함이 돋보인다. 또 이 금동탑 역시 1층 탑신의 네 모서리에 공양인물상이 놓여 있어 앞서 보았던 월정사 9층 석탑의 보살상과 선재동자와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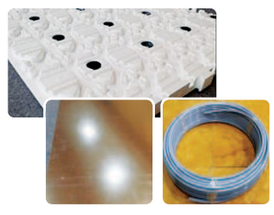
북한에도 많은 9층탑이 남아 있지만, 그 중 두 기를 살펴보자면 먼저 평안남도 평성시 봉학동에 있는 안국사9층탑〈사진5〉을 꼽을 수 있다. 높이 6.23m의 평성안국사9층탑은 북한 보존급 제 52호로 지정된 석탑으로, 정확한 기록이나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기단부에 남아 있는 연꽃문양 조각 등을 통해 고려시대에 조성한 탑으로 추정하고 있다. 탑신의 너비가 좁고 기단과 몸돌의 높이를 높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후하고 위엄 넘치는 모습보다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형태로 힘 있고 경쾌한 느낌이 강하다.

북한의 또 다른 9층탑은 평안남도 개천시 구읍리 대림사터에 남아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추봉산이라 불리는 산의 서쪽 골짜기에 대림사터가 있는데, 그 앞에서 9층탑을 찾아볼 수 있다. 높이 6.71m로, 이 탑 역시 북한의 보존급 문화재 제 58호로 지정되었다. 안국사의 9층탑과 비슷한 규모로 조성되었지만 안국사의 탑은 이층기단으로 기단부가 높은 데 반해, 대림사의 탑은 단층 기단으로 이루어져 1층 탑신의 너비가 좀 더 넓고 안정감 있는 모습이다. 다음 호에는 10층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쫀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4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듣는 성품으로 제 성품 들으면 높은 도 이루리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6〉 관세음 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

부처님은 문수보살에게 어떤 수행법이 해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고 묻자 문수보살은 관음보살의 이근원통 수행법이 가장 쉽고 해탈하는 빠른 방법이라 하였다. 오늘날 여러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부족함과 모순된 점을 깨달아 갖추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편집자 주〉

여래께서 문수사리법왕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이 스물다섯 뛰어난 무학보살(無學菩薩)과 아라한들을 보아라. 그들은 각기 최초의 성도 방편(成道方便)을 설하면서 다들 진실한 원통법을 닦았다고 말했느니라. 저들의 수행은 참으로 우열과 전후의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이제 아난을 깨우치려면, 25행(行) 가운데 어떤 법이 그 근기에 가장 알맞겠으며, 또 내가 열반한 뒤에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보살승에 들어가서 더없이 높은 도를 구하려면 어떤 방편문으로 닦아야 쉽게 성취하겠느냐?

문수사리 법왕자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을 받들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의 위신력(威神力)을 받들어서 게송으로 부처님께 답하였다.

깨침바다 본래 성품 맑고 밝아 만유를 원만하게 드러내옵나니 이러한 원만성은 맑고 고요해 깨달음의 성품 미묘하나이다. 원래 밝음 비추어 밝힐 대상 생겨나니 밝힐 곳 서고 나서 밝은 성품 없어졌나이다. 미혹 망상 아득하여 허공으로 변했으며 넓은 허공 의지하여 모든 세계 세워지자 헛된 생각 엉기어서 온갖 국토 되었으며 허망하게 지각하여 중생으로 변하였나이다.

크나큰 깨달음 중에 나타난 저 허공은 넓은 바다의 한 방울 거품이고 생멸따라 변화하는 티끌처럼 많은 국토 하나 같이 허공에 의지하여 생겼나이다. 물거품이 사라지면 저 허공도 본래 없나니 그 가운데 삼계는 어느 곳에 기대리까?

본원으로 돌아가면 두 성품 없으나 방편 따라 가는 길엔 여러 문이 있나이다. 성인 성품은 통달하지 아니한 곳 하나 없네. 따라감도 거슬림도 모두가 방편이나 초심자가 수행하여 선정삼매 들 때에는 늦고 빠른 방편 달라 한결같지 않나이다. 색과 망상 서로 얽혀 경계를 이루었고 정교하게 추궁해도 사무칠 수 없나이다. 명철하게 꿰뚫어서 알아내지 못하는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음성이란 온갖 말이 두루 섞인 경계로서 낱말과 이름과 구절만 더할 뿐 한 마디로 모든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향이란 코와 합해야 아는 경계로서 인연 화합 떠난다면 향 또한 원래 없어 코에도 항상 냄새 없어 향진을 기다리니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맛봄이란 그 자체가 본연 아닌 경계로서 혀를 대어 맛볼 때만 여러 맛을 알게 되니 그 느낌이 한결같지 않사온데 어떻게 맛과 혀로 원통법을 얻으리까?

감촉이란 닿는 대상 밝혀 아는 경계로서 닿는 대상 없어지면 감촉 또한 사라지니 닿고 떼는 그 성질이 정처 없는 감촉인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법진이란 바깥 경계가 남겨 놓은 그림자로 대상에 의지하여 그림자 있으니 능소 경계 분명하여 두루 포섭 못하는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보는 성품 환히 밝혀 온갖 것을 보더라도 앞은 분명하나 뒤는 전혀 볼 수 없어 보는 작용 부족한데 그 어떠한 방편으로 원통법을 얻으리까?

코로 쉬는 들숨날숨 들이쉬고 내쉬지만 들고나는 그 중간에 어우러진 숨결 없어 내쉬거나 들이쉴 뿐 두루 하지 못하는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맛을 보고 아는 데는 그 까닭이 확실해서 단맛 쓴맛 있어야만 느낌 성품 생겨나니 단맛 등이 없어지면 아는 작용 없사온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부처님도 음성따라 진실법 듣고
묘음 설법 방편 따르도록 권유
가르침 들은 중생 아라한과 증득



그림 · 최주현

몸의 작용 닿는 경계 합할 때는 동일하나 각기 따로 각관할 때 원만하지 않나이다. 몸과 촉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지근과 의식은 망상으로 뒤섞여서 여기에 의지하여 징담명료 구하여도 끝내 볼 수 없나이다. 이리하여 망상염려 벗어날 수 없사온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식견이란 세 가지 화합인데 삼종 근원 따져보면 전혀 있지 않나이다. 의지하는 근진식은 그 실체가 없사온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마음 열어 시방세계 통철하니 대자유여 다겁생의 보살수행 광대원력 감응하나이다. 초심자가 도달키엔 너무 높은 경지인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코끝에다 모은 생각 본래부터 방편으로 그 마음을 잡아들여 머물도록 단속할 뿐 머물 때는 그 마음이 머무를 곳 이루나니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구경의 법 설하면서 음성문자 농하는 일 크게 깨친 부루나님 아라한을 이루었나이다. 이름이나 구절들은 무루법이 아니온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계율을 지킴은 이 한 몸을 단속하나 신업 쌓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 없나이다. 원래부터 모든 것에 원만하지 못하는데 원통법을 얻으리까?

신족통은 본래부터 많은 생에 닦은 인연법 경계를 분별함과 무슨 상관 있으리까. 생각과 인연은 물체에서 못떠나거늘 원통법을 얻으리까?

흙의 요소 그 본질을 세밀하게 살핀다면 단단하게 가로막아 뚫려 있지 않나이다. 변화하는 생멸법은 성인성품 아니거늘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이루리까?

물의 요소 그 본질을 면밀하게 살핀다면 헤아리고 생각함은 진실법이 아니나이다. 부동불변 여여 경지 각관 대상 아니온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불의 요소 그 본질을 자상하게 살핀다면 존재현상 싫어함도 해탈이라 할 수 없나이다. 초심자가 방편삼아 수행하지 못하는데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바람요소 그 본질을 섬세하게 살핀다면 흔들림과 고요함이 서로 기대서나이다. 마주서면 무상각을 성취하지 못하거늘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공의 본질 그 바탕을 깊이깊이 살핀다면 어두움과 몽롱함엔 깨달음이 없나이다. 깨달음이 아니라서 보리라고 못하거늘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인식 성품 그 근본을 꼼꼼하게 살핀다면 관찰하는 인식성품 항상하지 않나이다. 마음 지킴 그 자체가 부질없고 허망하거늘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변천하는 온갖 행이 항상하지 아니해서 생각하는 그 성품도 원래부터 생멸하나이다. 원인결과 지금 와서 다르게 느끼거늘 어떤 법이 따로 있어 원통법을 얻으리까?

저는 이제 제 소견을 부처님께 아룁니다. 세존께서 중생 위해 사바세계 나오셔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진실법도 밝고 맑은 깨끗함을 음성 따라 듣게 되니 누구든지 수행하여 삼마제를 취하려면 듣는 성품 돌이켜야 들어가기 쉽사옵니다. 생사 고통 벗어나서 해탈경지 이루려면 관음보살 수행법이 제일이라 여깁니다. 갠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은 겁이 지나도록 티끌처럼 많고 많은 불국토에 들어가서 훌륭하고 걸림 없는 자재한 힘 성취하여 고통 받는 중생에게 무외법을 베풀면서 묘음으로 설법하고 세상 소리 관찰하여 때에 맞는 해조음과 집착 떠난 범음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여 너 나 없이 편해지고 출세간의 수행자는 상주 진리 얻나이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진실하게 아룁니다. 관음보살 설한 법을 비유하여 말한다면 사람들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쉬는 곳에 시방에서 한꺼번에 북을 쳐서 소리 내면 온갖 곳에 고루 퍼져 한 순간에 다 들리니 이 경지가 본래면목 되찾음이옵니다.

눈을 뜨고 본다 해도 막힌 곳은 볼 수 없고 입과 코의 그 작용도 이 경우와 마찬가지 몸의 촉은 닿아야만 닿는 줄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할 땐 두서없이 섞이지만 소리 듣는 그 성품은 담과 벽도 막힘없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하나같이 듣사옵니다. 다섯 감관 이와 달라 듣는 작용 못 따르니 이 방편이 진실로 실상 향한 길이옵니다.

소리 경계 그 본질은 움직임과 고요인데 듣는 성품 가운데서 있다 없다 작용하니 듣는 소리 없을 때는 듣는 성품 없다 하나 듣는 성품 실제로는 없어지지 아니하여 소리작용 없다 해도 없어진 일 원래 없고 소리작용 있다 해도 생겨난 일 본래 없어 생과 멸의 두 경계를 뚜렷하게 떠났으니 이 수행이 변함없는 실상 향한 문이옵니다.

깊이 잠든 꿈속에서 소리 듣고 생각하여 마음 쓰지 아니해도 생각 없지 아니하니 알아채고 관찰함은 사유의 길 떠난 자리 몸과 마음 다하여도 닿을 수가 없는 자리. 넓고 많은 세계 중에 사바국토 중생들은 음성으로 담론하며 자기 뜻을 밝히지만 중생들은 우둔하여 듣는 본성 미혹하고 소리만을 따르면서 윤회하고 있나이다.

아난이여 대중이여! 너희들의 뒤바뀌어진 듣는 틀을 되돌려라. 듣는 성품 돌이켜서 제 성품을 듣는다면 제 성품은 더함 없는 높은 도를 이루리라. 통달하는 진실법은 이와 같을 뿐이니라. 티끌처럼 많고 많은 부처님들이 오직 한 길 이 법으로 열반문에 이르도다.

지난 세상 모든 부처 이 문으로 성불하고 현재 모든 보살들도 그 밝음이 원만하네. 미래세의 수학인도 이 한 법을 의지하리. 나 역시나 이 법으로 증득함을 얻었으니 어찌하여 관음만이 이 문으로 들었으리?

지극 정성 여래 세존 방편 선택 명하시니 말겁 세상 구제하여 세간중생 구출하고 열반심을 성취함엔 관음방편 최상일세. 나머지의 모든 방편 부처님의 위신이며 일을 따라 쌓은 번뇌 벗어나게 하는 법문 오래 닦고 배우거나 얕고 깊은 근기에게 한가지로 두루 설할 통달법이 못 된다네.

불사의한 여래장의 무루법에 예 올리니 미래세의 중생에게 여래 가피 내리시어 이 문에서 모든 의혹 없게 하시옵고 쉬운 방편 내리시어 성취하게 하옵소서. 아난다와 말겁 중생 교화하는 최상방편 오직 하나 이근 통해 일심으로 수행함이 원만하게 통달함에 무엇보다 좋습니다. 진솔하게 저의 마음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기에 아난과 대중들은 몸과 마음이 환해져서 훌륭한 가르침을 깨닫고, 부처님의 보리와 대열반을 바라보니, 마치 볼 일 때문에 먼 곳에 갔던 사람이 아직 돌아가지는 못했으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확실하게 아는 것과 같았다. 법회에 모인 천룡팔부와 배우는 단계의 이승(有學二乘)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은, 그 수가 무려 열 개의 갠지스 강 모래처럼 많았으나, 모두들 본마음을 깨닫고 번뇌를 멀리 벗어나서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다. 성비구니(性比丘尼)는 게송이 끝나자, 아라한을 성취하였으며, 한량없는 중생들은 모두 비할 데 없이 평등하고 더없이 높고 바르고 두루 통달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 〈끝〉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가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에서 발췌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품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世界佛教 法王廳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감정이라는 들판을 이성으로 경작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5. 감정과 이성 ㊦

수(受)라는 용어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퍽이나 낯선 말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점은 오늘날의 심리학의 분석과는 상당히 다른 분석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根)(감관)이 경(境)(외부사물)에 의해서 촉발(觸發)되며 지각(知覺)을 생겨나게 한다. 그것이 수(受)이다. 옛 경전은 수(受)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말하며 수(受)라고 이름짓는가. 비구들이여, 영수(領收)하기 때문에 수(受)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무엇을 영수(領收)라고 하는 것일까. 낙(樂)을 영수하며, 고(苦)를 영수하며 불고불낙(不苦不樂)을 영수한다. 영수하기 때문에 수(受)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오늘날의 심리학이 말하는 감수(感受)와 감정(感情)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을 동반하는 감수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며, 감수와 함께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개념으로서는 감수라는 쪽에 중점이 있으며 실제의 이미지로서는 오히려 감정이란 쪽이 훨씬 강하게 부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경전은 '수상응(受相應)'이라는 제목의 경전 속에 있는 내용이다. 이 경전은 모두 수(受)에 관한 붓다의 설법이지만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낙수(樂受) 또는 고수(苦受)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설명이다. 그리고 그 처리의 방법에 대해서는 요약하면, 감수 즉 '몸에 속하는 수(受)'는 이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하더라도 '마음에 속하는 수(受)'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 일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있다.

이런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2의 화살'이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제2의 화살을 받지 않는다

'과문(寡聞)의 범부(凡夫)' 즉 이제까지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수(受)가 어떻게 하여 생기는지를 모르며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도 모르며 또, 어떻게 하면 불행에서 피할 수 있는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첫 번째의 화살을 맞으며 또다시 두 번째의 화살을 받으면서 걱정하며 서러워하여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다는 것일까. 그 대답은 이 경전의 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문(有聞)의 성제자(聖弟子)' 즉 이 스승을 따라서 이 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또한 낙수(樂受)도 느끼며 고수(苦受)도 느낀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는 없다. 그러면 어떠한 점에 있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구별이 있을까라는 것이, 앞에서 석존이 제자들에게 시험한 질문이었다.

세상에는 불도(佛道)의 수행자를 말하여 고목한엄(枯木寒巖)과 같은 감수성(感受性)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붓다 그 분이 이미 매우 예민(銳敏)하고 미묘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그 제자들도 대부분은 젊고 훌륭한 감수성의 소유자들이었다. 민감한 감수성이야말로 불자(佛子)의 것이며, 둔감목석(鈍感木石)같은 것은, 그들과는 가장 인연이 먼 것이었다. 다만 그들은 그 감수하는 바의 것, 감수와 함께 생기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첫 번째의 화살이 맞았다하더라도 또 다시 두 번째의 화살에는 맞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들은 성제자는 고수에 접촉한다 하여도 걱정하지 않으며 피로하지 않으며 서러워하지 않으며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으리라. 그는 다만 하나의 수(受)를 느낀다. 그것은 몸에 속하는 수(受)이며 마음에 속하는 수(受)가 아니니라."

붓다는 이 경전의 후반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성제자인 사람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들도 또한 고수(苦受)를 받으며 또 낙수(樂受)를 받는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그런 것을 감수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수(受)라는 것이 어떻게 하여 생겨나며 어떻게 하여 소멸하며 어떠한 불행을 동반하며 또 어떻게 하여 그것을 탈피하느냐 하는 것을 이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고수(苦受)를 받는다 하여도 그 마음속에는 불쾌한 생각을 갖지 않으며 노여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도 없으며 어지러워지는 일도 없으며 또 괴로움을 받는 일도 없다. 즉 이렇게 앎으로 해서 그들은 두 번째의 화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할 바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감정에 억눌려서 걱정하며 서러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선정에 들었을 때 취한 수인인 선정인.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모아 삼매에 드는 수인이다. 참선할 때 기본적으로 취한다.

이성에 의한 감정의 처리

이러한 감정의 처리 방법은 요컨대 이성(理性)에 의한 감정의 처리라고 말할 수 있다. 감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生)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억누르며 없앤다는 것은 올바른 삶의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붓다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설명한 사람은 아니었다. 붓다도 또한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시원한 바람이 불면 마음 상쾌한 것을 느끼셨다. 고요한 숲 속에 살면서 마음 조용한 것을 즐거움으로 하신 일도 있었다.

그러나 감정에 빠지며 감정에 사로잡히며 감정에 억압을 받는 것도 또 결코 올바른 삶의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수(感受)와 감정은 인간의 전혀 수동적(受動的)인 영위(營爲)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受, vedana)라는 번역어(飜譯語)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 영어에 있어서도 격정(passion)이란 원래 '받는다'라는 뜻의 말에서 파생되었다. 외경(外境)의 촉발(觸發)하는 곳에 그대로 좌우되는 수동적인 영위(營爲) 그것이 감정인 것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불행 걱정 슬픔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또 아직도 식물적 동물적 삶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는 합당한 생활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인간은 외경(外境)에 대해서 수동적임과 동시에 또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자연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연에 대해서 활동하며 자연을 정비한다. 그것이 인간에 합당한 삶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성적(理性的)이란 의미는 이러한 인간의 능동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의 넓은 들을 경작(耕作)하여 논과 밭을 만드는 것도 이러한 이성과 그 지시 밑에서 영위(營偉)되는 노동(勞動)이지만 이런 것은, 또 인간의 속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도 영위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감정 속의 넓은 들도 또한 이성과 노동(勞動)에 의해서 경작(耕作)함으로써 인간의 아름다운 논과 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뜻에서 이성에 의한 감정의 처리를 설명한 붓다의 길은 인간 형성의 본질적인 길을 가르치신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佛法의 극의는 무엇인가

문 그대가 증거해 보여준 가르침이 매우 자세하니 진실로 숭상할만 하다. 그것을 배우면 다다름이 있겠는가.

답 도(道)는 땅과 같아 더욱 갈수록 더욱 멀며, 도는 바다와 같아 더욱 들어갈수록 더욱 깊다. 그러나 그 문을 구하는 자는 계 · 정 · 혜(戒 · 定 · 慧)로부터 시작한다.

계란 무엇인가. 도적을 잡는 것을 말함이다. 정이란 무엇인가. 도적을 포박함을 말함이다. 혜란 무엇인가. 도적을 죽이는 것을 말함이다.

잡기만 하고 포박하지 않는다면 도적이 도망하므로 잃고, 포박하기만 하고 죽이지 않는다면 혹 의심과 혐의에 곤궁하므로, 세 가지를 다한 이후에야 대장부의 능사(能事)를 다한 것이다.

또 더구나 의식(意識)이 법신(法身)을 해치고, 혜명(慧命)을 죽임은 도적 보다 더욱 심하여 다겁(多怯)의 간신(艱辛)한 데에 참으로 이르게 한 바이겠는가. 만일 이 세 가지를 정계 · 제어 · 끊지 않는다면 이른바 '법신 · 혜명'이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계기(戒器)가 원성(圓成)하고, 정수(定水)가 응청(凝淸)하여야 혜월(慧月)이 바야흐로 나타나 도를 닦은 공덕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부처를 배우는 순서가 진실로 이같을 뿐이다.

계(戒)로써 그릇(器)이라 말하는 것은 삼업(三業)을 말함이다. 삼업이란 신 · 구 · 의(身 · 口 · 意)인데, 신이 한 그릇이 되고, 구가 한 그릇이 되고, 의근(意根)이 또한 한 그릇이다.

만일 세탁하여 제거하지 않고 음식물을 저장한다면 얼음과 물이 비록 청정하나 혼탁함과 뒤섞이면 물로 씻는 공을 드러낼 수 없고, 반찬이 비록 아름답다해도 더러운 냄새에 젖어 천형(제사 · 잔치)의 쓰임에 공양할 수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참회로써 제거하고, 뉘우침으로써 태워버리며, 깨끗한 마음은 물로써 씻은 듯하며, 진실한 마음으로써 덮으며, 맹세로써 완전하게 하며, 원력(願力)으로써 견고케 한 까닭이다. 그렇게 하면 그릇에 담은 것은 물물(物物)이 청정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법법(法法)이 무루(無漏)하다.

정(定)을 물이라 말한 것은 한 곳에 그침을 말함이다. 마음은 물과 같아 고무(鼓舞)하고 풀어지게 하면 그 작용이 곧 흩어지고, 안정시키고 그치게 하면 그 작용이 곧 완전하다. 완전하여 증담(?湛)하면 천심(天心)에 인계(印契)하고, 요동하여 파도가 일면 영상(映像)이 혼미해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일념만년(一念萬年)으로써 잡되게 쓰는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외부 티끌이 요동해도 침범할 수 없으며 본지풍광(本地風光)이 여기에서 발편하는 것이다.

혜(慧)를 달이라 말하는 것은 정각(正覺)을 말하는데 야반(夜半)에 올라 오묘함이 편 · 정(偏 · 正)을 겸한 것을 말한다. 무릇 사람이 삼계에 길이 잠들어 지혜의 눈이 없는 자는 이를 무명암흑(無明暗黑)의 큰 밤이라 말한다. 태어나도 오는 곳을 알지 못하며, 죽어도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가시밭길에 달리면서 도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중생의 자태이다.

지혜의 눈이 밝게 열리면 바른 길이 목전 있게 되어 무릇 이른바 '흑암의 큰 밤'이 반대로 정위(正位)가 되어 어둠이 밝음을 여의지 않으며, 밝음이 어둠을 여의지 않아 가리고 비춤이 동시(同時)로 함이 근본의 도이다. 제가 말한 '보살의 청량월(淸凉月)이 항상 법성공(法性空)에 노닌다. 중생의 마음이 물처럼 밝

깨달음은 들어 갈수록 더욱 깊어지니
道를 구하는 것은 戒 · 定 · 慧서 시작한다

으면 보리가 그 가운데 그림자처럼 나타나리라' 함이 이것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삼학(三學)이 상수(相須)하여 학도(學道)의 종시(終始)가 되는 까닭이다.

또 더구나 정(定)이 없는 혜(慧)는 곧 미친 것이며, 혜가 없는 정은 곧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은 정은 근원이 없어 죽어 말라버릴 뿐이니, 이른바 '그림자가 나타나는 물'이 아니며, 미친 지혜는 곧 날으듯 흐르는 혜폐(별똥)일 뿐이니, 이른바 '성공(性空)의 달'은 아니다.

'어리석음'과 '미침'의 병통이 이 보다 심함이 없다. 그러므로 학자가 여기에 있어서 정 · 혜를 평등히 지님으로써 오묘함을 삼아야 한다. 만일 평등히 지닌다면 수레가 두 바퀴를 갖춤과 같으며, 새가 두 날개가 있음과 같아 허공을 나르고 육지에 운행함이 자유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를 배우는 자의 첩경(捷徑)이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네팔 강진, 불교 유적 훼손 심각

네팔을 강타한 강진으로 세계적인 불교 유적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RNS' 지는 "네팔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Lumbini)를 비롯해 원숭이 사원(Monkey Temple)으로 불리는 스와얌부나트(Swayambhunath), 보다나트(Boudhanath)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불교 유적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이중 스와얌부나트(Swayambhunath)와 보다나트(Boudhanath)가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카트만두 중심가에서 약 2km 떨어진 가파른 언덕에 흰 돔과 황금빛 첨탑으로 이루어진 스와얌부나트는 2,000년 전에 건립된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이다. 일대가 원숭이 서식지인 이유로 일명 '원숭이 사원'로 유명하다.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인 스와얌부나트의 상단부에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상징하는 붓다의 눈이 그려져 있고, 경내의 각양각색 탑과 불상들은 네팔 불교 미술의 진수로 평가됐다.

"스와얌부나트와 그 주변에는 언제나 참배객과 관광객들로 가득했다"는 'National Geographic'은 "불교 경전이 새겨진 마니차를 돌리며 이곳을 한 바퀴 도는 순례자와 스님의 경건한 모습, 명상을 하거나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특히 이들은 카트만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스와얌부나트 전망대 오르길 좋아했고, 그 주변에서 기념품점, 골동품 노점, 찻집 등을 즐겨 찾았다"고 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티베트 불교 양식 탑인 보다나트 역시 이번 강진을 피하지는 못했다. 스와얌부나트와 함께 카트만두를 상징하는 이곳의 스투파 역시 사방에는 붓다의 눈이 그려져 있고, 이마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눈인 '제3의 눈'이 그려져 있다.

이밖에도 카트만두의 랜드마크인 다라하라 탑도 완전히 무너졌다. 1832년 네팔의 첫 총리가 세운 이 탑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데, 지난 1934년 대지진으로 한 차례 무너져 재건됐으나 이번에 다시 붕괴됐다. 또 소라껍데기 모양으로 불교와 힌두교 사원이 모여 있는 박타푸르 두르바르(Bhaktapur Durbar) 광장, 3세기에 지어진 파탄 두르바르(Patan Durbar) 광장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4월 25일 네팔을 강타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스와얌부나트(Swayambhunath)의 내부 모습. 이곳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자, 카트만두 계곡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유적이다. '스와얌부'는 '스스로 융기했다'는 뜻이다.

스와얌부나트, 보다나트 등 유네스코 지정유산 대거 파손
보디베츄재단 등 각국 불교계 긴급 지원 나서
달라이 라마 · 갈왕 까르마파 등도 불교계 관심 환기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세계 각국 불교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보디베츄(Bodhivastu)재단은 산쿠(Sankhu)와 욜모(Yolmo)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한편 200만 달러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다이렉트 릴리프(Direct Relief)는 이미 100만 달러에 상당한 의약품을 우선 제공했고, 국제의료단체(International Medical Corps)와 함께 긴급 의료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대승불교전통보존재단(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hayana Tradition, 이하 FPMT)은 150만 달러를 네팔을 비롯한 히말라야 소재 FPMT 지원에 보냈다. 글로벌기빙(Global Giving)재단은 생필품을 우선 제공했고, 비아그랜드써클(Via Grand Circle)재단은 긴급 구호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고 미국 적십자와 함께 네팔 현지를 방문, 봉사하고 있다. 인도 · 네팔 · 티베트 지원을 위해 결성된 카루나쉬첸(Karuna Shechen)재단과 마르파(Marpa)재단, 국제 옥스팜(Oxfam International), 티베트 펀드(Tibet Fund) 역시 네팔 지원 행렬에 속속 들어왔다.

불교 지도자들도 각각의 성명을 내고 네팔 구호에 적극 관심을 보였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수실 코일랄라(Sushil Koirala) 네팔 수상에게 보내는 전문을 통해 "네팔에는 자유를 찾아 히말라야를 넘은 티베트 난민을 위한 정착지가 있을 정도로 네팔과 티베트는 가깝다"며 "이번 재해를 이겨내는 데 티베트 불교계는 온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왕 까르마파(Gyalwang Karmapa)는 "파괴된 건물은 어떻게 복귀하고 네팔 시민들을 도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카트만두와는 떨어져 있어, 비교적 안전했던 '카르마 게규 사원'의 스님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대중들을 구난하는 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네팔의 관광산업은 이번 강진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세계적인 유산과 에베레스트를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에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숙박 및 쇼핑으로만 네팔이 벌어들이는 관광수입은 국내총생산(GDP · 2014년 기준 196억 달러)의 3%에 달한다. 관광으로 파생되는 수입을 전부 합치면 GDP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관광산업은 네팔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강진으로 인한 인적 · 경제적 손실의 관계를 분석하는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네팔이 이번 참사로 감내해야 할 경제적 손실 규모를 최대 1000억 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다. USGS 측은 "경제적 손실이 네팔의 GDP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손실 규모가 10억~100억 달러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5천년 된 불교유적 '메스 아이낙' 파괴 위기

美 허프만 제작 'Saving Mes Aynak' 전 세계 상영



메스 아이낙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동남쪽 40km 떨어진 로가(Logar)주에 위치한 5천년 된 불교 유적이다.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브렌트 E. 허프만은 '메스 아이낙'의 문화적 보존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 'Saving Mes Aynak'를 7월 1일부터 전 세계에 상영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중국 구리광산개발 때문에 훼손 위험에 처한 '메스 아이낙(Mes Aynak)'을 지키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 세계에 상영된다.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브렌트 E. 허프만은 '메스 아이낙'의 문화적 보존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 'Saving Mes Aynak(메스 아이낙을 구하라)'를 7월 1일부터 전 세계에 상영할 방침을 밝혔다. 다큐멘터리영화 제작사 카템퀸(Kartemquin)과 공동 작업한 이번 영화는 작년 11월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개봉했다.

메스 아이낙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동남쪽 40km 떨어진 로가(Logar)주에 위치한 5천년 된 불교 유적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약 $100bn 가치의 구리가 매장됐다고 알려진 메스 아이낙을 중국광물공사(Chinese state-owned mining company)에 30억 달러(한화 약 4조원)를 받고 개발권을 팔았다.

이에 중국은 2012년에 개발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프간 정부로부터 광산개발유예기간을 받아 3년 간 유적 발굴이 진행 중인 상태다. 영화 관계자들은 "개발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체 유적 중 약 10%만이 발굴됐다"며 "구리 개발에만 혈안이 된 중국에 의해 메스 아이낙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를 연출한 허프만 감독은 "2001년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 탈레반이 바야만 석불을 폭파할 때 세계는 격노했다"며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메스 아이낙은 종교적 관점이 아닌 세계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Saving Mes Aynak'는 디지털영화배포시스템 VHX, 카타르 민영방송사 알자지라와 알자지라잉글리시 및 교육기관과 지역사회단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VHX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10%는 고고학자들이 메스 아이낙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기금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한편 카템퀸은 후원형 펀딩사이트 인디고고와 함께 중국광물협회에 대한 아프간 정부와 유네스코의 국제적 압박을 요청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서명운동 사이트 Change.org에서는 아프간 대통령과 유네스코에 메스 아이낙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허프만 감독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소중한 역사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전 세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아름 수습기자

美 매니코윅 카운티서 송끄란 축제 주목

본첨사 재개원에 힘입어 … 주민 참여 남달라
본첨사, 밀워키에서 그린베이 사이 '사격 갖춘 사찰로 유일'

태국에서 건너온 불교축제 송끄란(Songkran)이 미국 위스콘신 남동쪽에 있는 매니토웍 카운티(Manitowoc County)에서도 주목됐다.

'Washington Times' 지는 "뉴턴 시의 본첨사(Bounchum Buddhist Temple)의 송끄란 축제가 타이-라오스-캄보디아계 이주민만의 축제가 아닌 위스콘신 남동 지역의 축제로 발돋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사격을 갖춰 다시 개원한 본첨사의 송끄란 축제가 위스콘신 남동 지역 주민 15,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는 것이다.

아신 담마시리 스님(본첨사 주지)은 "카운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농장을 구입, 사찰의 격을 갖췄던 게 단초가 되어 본첨사의 송끄란 축제가 피부색을 넘어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며 "본첨사는 밀워키(Milwaukee)에서 그린베이(Green Bay) 사이에서 사격을 갖춘 유일한 사찰"이라고 말했다.

'Washington Times' 지는 스티브 마우어(Steve Maurer) 본첨사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 "매니토웍 카운티 이사회를 설득하는 과정만 3년 정도 소요됐고, 주불을 봉안한 법당은 물론 위생 · 편의시설까지도 카운티 규정에 맞춰 농장을 리모델링했다"고 전했다.

스티브 대변인은 "온전한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지 않았다"며 "이는 매니 토웍 카운티에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30여 년 전 상좌부 불교에 입문해 마하 스와티(Maha Swati)라는 법명을 수지했다.

또한 "불교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그 자체"라는 아신 담마시리 스님의 말을 인용한 'Washington Times' 지는 "본첨사가 매니토웍 카운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현재까지 라오스 · 태국 · 캄보디아 이민자 중심의 상좌부계 사원이지만, 향후 매니토웍 카운티 벽안의 불자도 합류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타이 부패불교 척결운동 확산

부다 이사라 스님, 불교계 정화 캠페인

타이 불교계가 격변의 상황에 놓인 가운데, 프라 부다 이사라 스님(Phra Buddha Issara)은 타이의 불교계를 점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신문 'SFGATE'는 4월 29일 "이사라 스님이 타이 불교 종단의 재정 상태를 투명화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척결 운동을 진행 중이다"고 보도했다. 최근 타이 스님들이 애인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음주운전 사고, 주식 투자 등 각종 부패를 일삼는 것에 대한 경고의 움직임이다.

타이는 인구의 95퍼센트가 불자인 만큼 불교 종단과 승려들에 대한 국민의 명망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스님들의 문란한 생활이 드러나자, 불교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이사라 스님은 종단 재정을 직권 남용한 스님들에 대한 고발을 위해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타이 불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최적의 시점"이라며 "불교는 우리 국민의 집과 같다. 내 집 앞마당을 치우듯 더러운 곳을 구석구석 깨끗이 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수습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부처님오신날 특별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78,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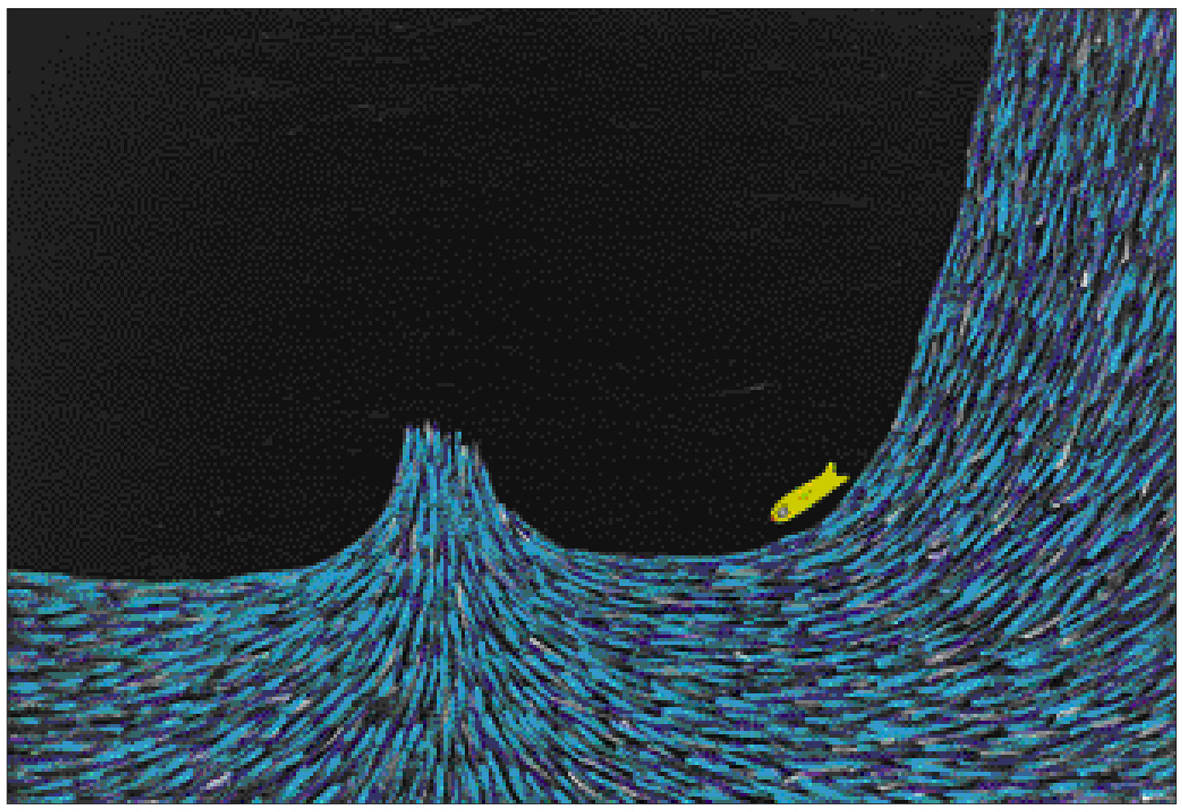


순례가 시작되는곳
www.ajetour.co.kr
SINCE1999
아제여행사
AJE
☎ 02)730-4008
YouTube facebook 다음카페 blog
구광국대표 010-3048-4008 구경모이사 010-2747-0908
지역별 담당 직통 전화 - 지역별 전문 상담가와 상담하세요!
- 괌/사이판/필리핀 임천지부장 070-5030-6229
- 네팔/인도 김남규팀장 070-5030-6233
- 부탄항공/항공 정진화대리 070-5030-6239
- 오대산/면산/태항산/태국 김하정팀장 070-5030-6234
- 부탄/부탄항공 김다영계장 070-5030-6237
- 구화산/황산/일본/백두산 장윤희팀장 070-5030-6232
- 미얀마/라오스 허은주계장 070-5030-9600
- 베·캄/아미산/동티벳 유나라주임 070-5030-6231
- 유럽 이석준주임 070-5030-6230
- 대만/중남미 정혜수주임 070-5030-6238
- 호주/스리랑카/몰디브 이정효주임 070-5030-4008

出 : 5월19일 6월22일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아미산,낙산대불
出 :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테를지
出 :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중태선사,불광산사,자제공덕회

물고기 새 되어 날아오르면 깨달음이…

성륜 스님 개인전 '무브먼트' 5월 20일~29일 윤갤러리


선화가 성륜 스님은 5월 20일~29일 윤갤러리에서 개인전 '무브먼트(movement)'를 연다. 스님은 노장사상의 '소요유'를 물고기의 움직임을 통해 불교적으로 해석했다.

"세상의 생명체는 닦고 행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달 햇빛 공기와 바람 일체 자연의 모든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존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존재죠. 멈추면 썩고 죽어 버려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것은 곧 존재를 의미하고 또 끊임없는 변화를 말하죠. 세상 만물이 머물러 있지 않은 그 진리의 깨달음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선화가 성륜 스님이 5월 20일~29일 윤갤러리에서 개인전 '무브먼트(movement)'를 연다. 노장사상의 소요유를 물고기의 움직임을 통해 불교적으로 해석한 스님의 '소요유'는 파리(2010) 뉴욕(2014) 등에서 전시돼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한국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주제다.

"북명에 물고기가 있었다. 이름은 곤이다. 곤은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물고기가 변해 새가 되었는데 새의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 넓이도 몇 천리에 달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붕이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을 가득 뒤덮은 구름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을 타고 남명으로 옮아가려 한다. 남명은 바다이다."

〈장자〉 1편에 나오는 소요유의 한 대목이다. 스님은 물고가 새로 변화하는 과정을 작품 '소요유'에 담아냈다. 노란 물고기가 바다를 향하면 수많은 물고기 떼는 태양을 향해 거대한 이동을 하니 햇무리가 일어나듯 주변은 소용돌이가 인다. 또한 밤이 되어 노란 물고기가 칠흙 같은 바다를 향하니 물고기 떼는 어느새 거대한 파도가 되어 솟아오른다.

장자의 소요유 이미지로 형상화
수행자 비유한 물고기 통해
변화의 깨달음 화폭에 담아내

그렇다면 수행자 성륜 스님에게 소요유는 어떤 의미일까? "불교에서 물고기는 수행자를 의미해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물고기는 제 자신이기도 하고 모든 수행자를 말하기도 하죠. 수행자란 낮에는 태양과 놀고 밤에는 달빛의 여유를 즐기며 늘 구름과 공기를 친구 삼아 닦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수행자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살아가는 사람이며 일상에서 만족을 느끼며 사는 사람을 말한다. 결국 자유로운 삶 걸리지 않는 무욕의 삶이 수행자의 가장 아름다운 일상이라 말하는 성륜 스님. 그래서 '무브먼트'에서는 수많은 물고기들 즉 수행자의 움직을 통해 거대하게 변화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노란 물고기는 구도의 길을 가는 작가인 듯 보인다. 그래서 장자와 부처님과 작가가 한바탕 노는 세상이 곧 소요유 속에 펼쳐진다.

"관음보살은 오온이 공한 자리가 일체의 고액을 벗어난 자리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고액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공포가 사라지면 이것이 걸림없는 삶이며 '무유공포' 죠. 그 움직임의 변화 깨달음이 곧 장자의 소요유를 넘어 불교의 '소요유'라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과 벗하고 밤에는 달빛을 친구 삼고, 살갗으로 바람을 맞으며 호흡으로 생명의 존재를 느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을 지켜보라.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두려울 것도 없다. 그래서 물고기가 된 새처럼 세상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자유를 얻게 되리라. (02)739-114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차문화의 새 활력 불어넣고자"

혜우 스님 차 개인전 5월 15일~17일 길상사서

혜우 스님(전통덖음차제다교육원 원장)의 차 개인전이 5월 15일~17일 서울 길상사 정묵당 및 대웅전에서 열린다. '혜우 스님의 전통차와 현대차 그리고 피아골 홍류동차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차문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우 스님은 "한국차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다변화된 차를 통해 소비계층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차는 종류가 너무 단순해서 다변화시키기 마련된 전시다. 홍류동차, 사시락차 등 16 종류의 차를 전시 현대차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혜우 스님은 한국차문화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제다법을 늘 고민해왔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제다법으로 만든 다양한 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옛날 단차의 현대적 복원이다.

스님이 개발한 홍류동차는 산화효소작용을 제다과정에서 촉진시켜 단차로 만들어 단맛이 많고 탕색이 붉어 가을 홍류동 계곡에 흐르는 단풍빛에 물든 고운 계곡 물 느낌이 난다. 사시사철 언제 먹어도 즐겁다는 뜻을 가진 사시락은 구수하고 깊은 전통발효차의 맛이 물씬 난다.

이번 전시회와 함께 차를 맛볼 수 있는 대중적인 시음행사도 열린다. 시음과 함께 법정 스님 영전에 누구나 헌다할 수 있는 시간을 전시 내내 진행한다.

혜우전통덖음차제다교육원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차농들에게 차 만드는 법을 전수하고 있는 혜우스님은 30년 넘게 우리전통의 차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다반사〉〈찻물기행〉〈알고보면 쉬운 차〉등이 있으며 한국차문화잡지인 〈차와문화〉발행인을 역임했다. 010-9308-7979

정혜숙 기자


혜우 스님이 차를 덖고 있다.

제13회 유심작품상 수상자 선정

시부문에 박형준 시인 등


시조부문 김복근


시부문 박형준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하고 월간 〈유심〉이 주관하는 '제13회 유심작품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자는 △시부문 박형준(시인, 동국대 교수)의 '아스팔트에서 강물소리가 나는 새벽' △ 시조부문 김복근(시조시인)의 '볼트와 너트의 詩' △평론부문에 이숭원(문학평론가, 서울여대 교수)의 '한국 현대시 연구의 맥락'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특별부문은 하인즈 인수 펜클(미국 뉴욕 주립대학 교수)이 선정됐다.

상금은 각 부문 1500만원이며 시상식은 8월 만해축전 기간 중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음악으로 정근하며 부처님 만나요

해성 스님 정근송 '붓다의 향기'



붓다의 향기 음반 표지

병상의 환우 정근 기회 제공
불자들 일상 속 염불 권장도

해성스님의 정근 송 '붓다의 향기'가 발매됐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광명진언 석가모니불 등 세 장으로 구성된 이 음반은 환우들이 병상에서도 정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성 스님은 "늘 경건한 자세로 정근하던 것이 습관화된 불자들이 병상에서 누운 자세로 정근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보았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환우들이 좀더 친근하고 쉽게 정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고민을 능인 스님에게 말씀 드렸더니 스님께서 흔쾌히 곡을 붙여줘 음반을 발매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불자들의 일상생활과 특히 병원 장애인 시설 요양원 등에서 만난 불자들에게 염불은 너무도 필요하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스님은 "삶에 지쳐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불자들이 정근송을 들으며 편안한 마음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음반은 환우들은 물론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염불을 접하고 정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1577-3744

정혜숙 기자

붓다콘서트 '찬불가 부르기 열창대회'

5월 11일까지 참가신청서 접수

좋은벗 풍경소리가 주최하는 '덕신 스님과 함께하는 붓다콘서트'가 2015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찬불가부르기 열창대회를 연다. 이에 좋은벗 풍경소리는 5월 11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불자들이 찬불가를 부르며 찬불가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문화포교, 불교음악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전문가수가 아니라도 한바탕 찬불가를 부르며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이니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선은 5월 1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기념공연장에서 이루어지며 본선은 5월 21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실시된다. 찬불가를 사랑하는 모든 불자(독창, 4인 이하의 중창)들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곡은 찬불가, 찬불가요로 제한한다.

찬불가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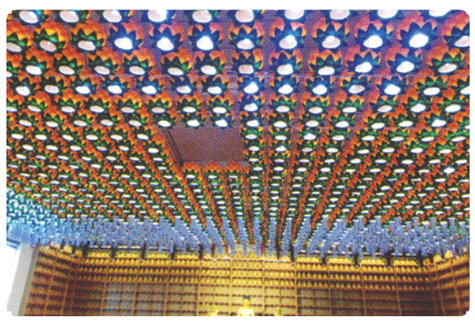
신청서는 좋은 벗 풍경소리, 붓다콘서트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상금은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팀 각 30만원, 인기상 2팀 각 10만원, 응원상 1팀 30만원이다. (02)723-9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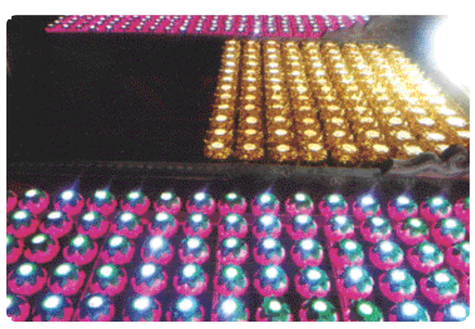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20년의 경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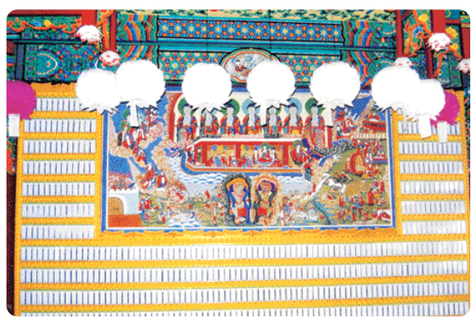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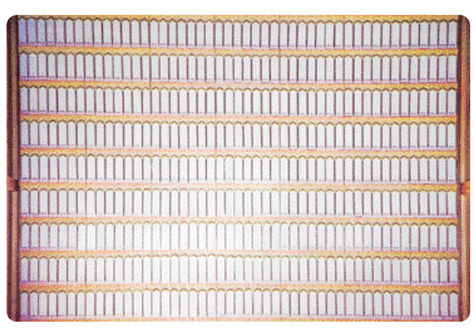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5월8일 남양주 봉선사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제11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에서는 시대의 큰 스승 운허 스님을 재조명한다.

운허 스님의 생애 음악으로 재조명

제11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5월 8일 봉선사 특설무대서

'조국 위해 독립 투쟁 봉일사로 피신 중에/경전보고 발심하여 경송 스님 제자되셨네/월초 큰스님 문하에서 경학공부 정진하고/대장경 한글화의 대원력을 세우셨네…보살의 서늘한 달/ 허공중에 떳노매라/중생의 믿는 마음/물과 같이 맑았으면'

'교성곡 운허 큰스님' 中에서

독립운동가, 교육자로서 한글대장경 역경불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대화, 대중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운허 스님을 재조명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제11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5월8일 오후 6시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200여 명의 북부불교연합합창단과 국악인 박애리씨 등 출연해 멋진 화음을 보여줄 예정이다.

경기도북부불교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봉선사 주지)은 "본 예술제는 경기북부지역 8개시와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등의 불교사암연합회 소속의 연합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가해 마련한 음악회다.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독립운동가이자 대장경의 한글화의 선구자이신 운허 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 상생과 화합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는 경기도민의 축제 한마당을 열고자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립운동가 · 대장경 한글화 선구자 '운허 스님' 화음으로

5월 8일 오후 6시 제1부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7시 제2부에서 본격적인 음악예술제가 펼쳐진다. 제1막 '예불'(한글 칠정례, 지휘 최현우) 제2막 '운허 큰 스님'(지휘 박진성) 제3막 '부모은중송'(지휘 유문식) 등이 연주된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경기도북부불교연합합창단과 국악인 박애리, 김영우, 최수정, 박윤선 등이 부모은중송을 멋진 화음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경기북부 음악예술제는 조영근 선생을 중심으로 의정부지역 불교연합합창단이 개최해오던 음악제를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4개시의 지휘자와 단장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지역을 매년 순회하는 형식의 음악회로 발전시켰다. 2005년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와 (사)삼보불교음악협회 공동주최로 1회 공연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031)527-1956 **정혜숙 기자**

능인 스님 10집 '심향' 발표

장애인에게 희망 전하는 '꿈을 향하여' 등

능인 스님(행복사 주지)이 3년 만에 불교생활 찬불가요 10집 '심향'을 발표했다. 10집까지 전곡을 모두 직접 작사, 작곡, 기획, 제작, 노래해온 스님은 민요를 비롯해서 트로트, 랩, 레게, 발라드 등 모든 장르의 곡들을 두루 들려준다.

'보고 싶은 우리 부처님'은 가곡에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으며 발라드곡 '꿈을 향하여'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다.

"사회복지법인 광림사 연화원과 인연을 맺고 수화사랑 음악회에 참석을 하며 청각·시각 장애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 꿈과 용기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 땅'은 서산대사가 승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친 호국정신을 기리며 제작된 곡이다.

"젊은이들이 듣고 공감 할 수 있도록 경쾌한 슬로우 레게 풍의 반주에 응원가로도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이 곡을 통해 독도와 대마도를 향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기를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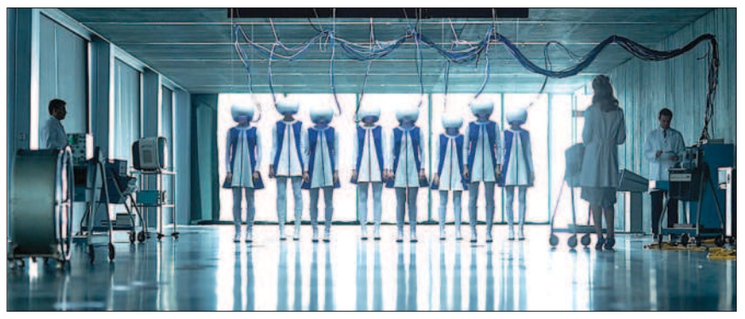
능인 스님의 10집 '심향'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과도한 자기애 버릴 때 참 자아 완성

스피어리그 형제의 '타임 패러독스'




스피어리그 형제의 '타임 패러독스'는 어긋난 인연의 고리를 풀기 위해 시간을 역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스피어리그 형제가 감독한 '타임 패러독스(원제 Predestination)'를 보고나면 기시감이 든다. 이는 아마도 어느 지점에서 '마이너리 리포트(Minority Report)'와 '나비효과(The Butterfly Effect)'와 유사하기 때문인 듯싶다.

이 영화는 일어난 범죄를 막기 위해 과거 범죄가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발상은 '마이너리 리포트'에 빚지고 있고, 주인공이 어긋난 인연의 고리를 풀기 위해 시간을 역행한다는 발상은 '나비효과'에 빚지고 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시간의 속성은 불가역적이다.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시간이고, 인생도 그러한 시간의 불가역성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시간여행을 꿈꿔왔다. 이번에 소개하는 '타임 패러독스'도 타임머신 여행을 제재로 다룬 작품 중 하나이다. 줄거리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뉴욕을 초토화시키는 '피즐'이라는 폭파범을 잡기 위해 범죄예방본부는 '템포럴'이라는 요원을 시간여행 현장에 투입시킨다. 템포럴 요원은 피즐 폭파범을 막으려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다. 템포럴 요원은 미래로 돌아가 얼굴 이식수술을 한다. 이식수술을 마친 템포럴 요원(에단 호크)은 마지막 임무를 위해 1970년으로 간다. 뉴욕의 한 바에 템포럴 요원은 미혼모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컬럼리스트 '존'(사라 스누크)을 만난다. 존은 템포럴 요원에게 자신이 여자였다는 사실을 들려준다. 고아원 출신인 '제인'은 고독한 삶을 살다가 클리블렌드 대학에서 한 남자를 만난 뒤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 남자는 하룻밤의 사랑을 끝으로 사라진다.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딸을 낳고서 제인은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기관을 모두 갖고 있었으나 제왕절개 시 과다출혈과 자궁을 드러내서 남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딸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템포럴 요원은 존에게 묻는다.

"당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사내를,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는가?"

심리적 시간 직선적 아닌 순환적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시간여행 의상대사 '일즉다 다즉일' 떠올려

존은 템포럴 요원의 제의를 수락하고 시간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제인이 만난 운명적인 사랑의 남자는 다름 아닌 존 자신이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영화의 주인공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여행을 떠난다. 그 과정에서 제인이 낳은 아이가 시간여행을 통해 고아원에 버려져 성장한 뒤 제인이 된다는 사실과 존에게 화상을 입힌 이가 템포럴 요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니까, 제인과 존과 템포럴 요원과 피즐은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시간여행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삶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켰던 것이다. 이는 의상대사의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을 떠올리게 한다.

이 영화가 불교적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유는 제인과 존과 템포럴 요원과 피즐이라는 순차적이면서 동시에 순환적이고, 한 사람의 삶이면서 동시에 네 사람의 삶인 이야기가 대단히 연기적(혹은 인과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초전법륜 당시 연기법을 설하면서 '갈대다발의 비유'를 들었다. 갈대다발의 갈대들은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외따로 서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고 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인과 존과 템포럴 요원과 피즐이라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주인공들의 관계도 갈대다발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영화 속 주인공이 과거 혹은 미래의 자신을 만났을 때 그를 죽여야 하는 당위적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애 때문에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식 30송〉에 따르면, 사람이 번뇌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만(我慢), 아취(我取), 아견(我見), 아애(我愛) 때문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번뇌는 과도한 자기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많은 사람이 과도한 자기애 때문에 일을 그르치곤 한다. 기실, 불법(佛法)에 의거해 보면, 이 세상에는 자기랄 것도, 자기의 소유랄 것도 없다.

그런 까닭에 '타임 패러독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심리적인 시간은 직선적이지 않고 순환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애를 버릴 때 비로소 참 자아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타임 패러독스'라는 한국 제목도 제법 잘 지은 제목이 아닌가 싶다. **유응오 작가**

2559년 석가탄신기념
능인계향 특별한정판 출시
能仁戒香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한정특가로 공급됩니다.
1차분 전량 매진!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차분 순차 발송중입니다.
■ 한정특가 : 15,000원
(초파일 이후 정상가 30,000원으로 환원되며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될 수 있습니다.)

능인향당 051)746-6818 / 02)3663-6777
www.nihwa.com 홈페이지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친견해서
차 한잔만 마셔도
말기암. 빙의. 난치병 등
일체 고통들이 사라지는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강의교재는 화엄경수행센타의 회주인 진귀 수행자가 출판한 화엄경 책으로 강의하며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 입니다.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천도재 등 일체 종교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 잔의 친견만 합니다.
■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고통이 사라진 사례자들의 동영상 및 사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 수행센타 문의 ☎ 1899-9532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9~4/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비스님의발심수행장강의	무비스님	(주)조계종출판사
2	붓다가말하는인간관계의지혜	타까띠타이슈/원영	문예출판사
3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4	불교기독교를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5	붓다의과학이야기	김성철	참글세상
6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박진여	김영사
7	지금여기깨어있기	법륜	정토
8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수신오도	사유수
9	행복한불교이야기(오대산정념스님이들려주는)	자현	담앤북스
10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지음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3500년의 역사를 지닌 수행처, 석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올해 4월 24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 성철 스님 기념관이 정식 개관됐다. 대리석 기둥과 벽돌 벽으로 꾸며진 독특한 외관의 성철 스님 기념관은 석굴을 보티브로 조성됐다. 청빈한 수행자로 살다 가신 이유로 전시물이라고 내놓을 것이 거의 없던 차에, 과거 스님들 수행처인 중국의 불교 석굴을 참고했다는 것이 성철 스님의 상좌 원택 스님의 말이다.

석굴은 BC 1500년 경 베다시대부터 인도 종교 수행자들이 거처한 일반적인 공간이었다.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수행을 위해 석굴을 찾는 수행자들이 많았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산속 석굴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눈 기후인 인도서 여름엔 시원하고 비를 피할 수 있으며, 추운 겨울엔 따뜻한 장점을 갖고 있으니, 이보다 좋은 곳을 찾기 힘들었다. 고대 인도 사람들이 산을 간 세상과 천상을 연결해 주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긴 것도 석굴이 활발히 조성된 이유 중 하나였다.

시간이 지나 인도 뭄바이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 거점이 들어서고,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진출로 간다라 미술이 형성되면서 대규모의 석굴사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부와 고대 그리스의 거대한 신전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석굴은 개인적인 수행처이면서 동시에 점차 대중의 신앙을 확인 공간으로 발전했다. 특히 불교는 석굴과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존하는 인도 석굴사원 중 불교 석굴이 1,300여 곳으로 가장 많으며, 석굴암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석굴도 불교 석굴이 많다. 불교가 인도를 넘어 중앙아시아, 중국 등으로 전파되면서 불교 석굴 역시 그 길을 따라 조성되었다. 〈세계의 석굴〉은 이처럼 조성된 세계 곳곳의 불교 석굴을 한데 모아 소개한 책이다.

다양한 부처 얼굴…조성 시대 상황 달라

각 석굴은 석굴이 조성된 시대적 상황이나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모두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서로 모양이 천차만별인 그릇들인 것이다. 규모와 종류 면에서 다양한 석굴을 볼 기회가 없는 독자들에게 〈세계의 석굴〉은 석굴암을 벗어나 새로운 석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6굴의 기둥 뒤에 세워진 열반상 모습.



세계의 석굴
배재호 지음
사회평론 펴냄
2만 5천원

석굴은 인도 수행자들 거처 공간
인도 석굴 사원 중 불교 석굴 1,300곳
아잔타서 군위삼존불 등 16개 소개
석굴은 불교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

책은 불교미술의 최고봉인 아잔타석굴로 시작해 한국의 군위삼존석굴까지 16개의 석굴을 다루는데, (15장에서는 용문석굴 신라상감과 한국의 군위삼존석굴 두 석굴을 함께 다룬다) 읽다보면 각 석굴의 다양한 모습에 놀라게 된다.

잃어버린 세계문화유산의 대명사가 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석굴에서는 38m나 되는 거대한 불상인 동대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는 중국 둔황 막고굴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벽화를, 운강석굴에서는 나란히 붙어 비슷한 내부 구조를 가진 쌍굴을, 용문석굴에서는 조성 당시 권력자인 측천무후의 얼굴을 한 불상을 만난다. 효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이 불교와 혼합된 보정산석굴과 밀교화된 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안서 유림굴 역시 색다른 석굴이다. 비슷한 모습의 중국 용문석굴의 신라상감과 석굴암보다 100여년 앞선 군위삼존석굴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석굴,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그릇

석굴이 다양한 지역과 시대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보니, 석굴이라는 소재는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세계의 석굴〉에서 다루는 16개의 석굴은 세계의 석굴 중에서도 불교의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낸다.

각 장은 하나의 석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해당 석굴을 답사했을 때 느낀 저자의 느낌과 전반적인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석굴 안의 불상, 보살상 등 몇 가지 특징있는 구조물, 조각들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석굴이 수행승과 불자들의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되어 석굴 안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부처의 모습과 가르침 그리고 일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장인 아잔타석굴에서는 우선 수행의 공간으로서의 석굴에 대한 설명, 인도의 여러 신들과 불교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아잔타석굴의 역사(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는지 등)도 빼놓지 않는다. 이후 구체적으로 아잔타 26굴로 눈을 돌려 그 안에 조성된 불탑, 열반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불탑의 세계관은 어떠한지, 불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열반상의 세부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석가모니 붓다가 누운 방식, 석가모니가 행한 기적의 장면 등을 자세히 언급하여 부처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친절한 설명을 따라 한 눈에 보는 석굴

여태껏 석굴에 대한 책은 석굴암이나 중국의 둔황, 운강석굴 등 한 석굴의 부분부분을 불교 미술의 예로만 접해왔다. 〈세계의 석굴〉처럼 각 석굴에 대한 균형 잡힌 설명을 하면서도, 불교의 전래 과정이라는 시간적 틀이나, 문화교류라는 관점으로 여러 석굴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책은 없었다.

저자 배재호는 20년 이상 불교 미술을 연구했던 전문가답게 〈세계의 석굴〉의 모든 석굴을 면밀히 답사, 조사하면서도 불교 미술에서 드러나는 문화교류라는 개인적 관심사를 놓지 않았다. 〈세계의 석굴〉은 이 같은 관심사가 반영된 책으로, 각 석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면서도 여러개의 석굴을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세계의 석굴〉은 한계의 전문가가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일반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이는 불교신문 논설과 문화재재단의 칼럼,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회 박물관대학 특설강좌 등의 활동을 통해 일반 독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저자의 경험 덕분이다. 실제로 이 책은 저자의 박물관대학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저자를 따라 세계의 석굴 구석구석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느새 익숙한 부처님 말씀을 새롭게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질 않네

바람이 멈추지 않네

글 안재인 | 사진 안재인 정영자
쌤앤파커스 펴냄 | 1만 4천원



"일주일 뒤에 다시 그곳을 찾았다. 염불암에 도착하니 그제야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해온 김밥으로 아침을 먹고 나는 맞은편 산으로 향했다. 멀리서 바라보니 기다리기 지루했는지 어머니가 따사로운 햇볕 아래 꾸벅꾸벅 졸고 계셨다. …(중략)

혹시나 길을 잃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 근처를 벗어나지 말라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대문 앞에서 퇴근하는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와는 다른 기다림이지만 세월이 흘러 이젠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벌써 십여 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의 진척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재촉하거나 잔소리하는 법이 없다. 지금껏 묵묵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 …(중략)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기로 했다. 막연한 것이라도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나도, 어머니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만,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을 테니까."

아들은 방송국 PD일을 그만두고 나서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절집 공양주 보살 취재를 위해 비슷한 연배에 붙임성 좋은 어머니와 동행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모습을 한두 장 사진에 담았고, 어느새 사진 작업의 주인공은 어머니로 바뀌었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우리네 보통 어머니. 아들이 고3일 때는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정성을 다해 기도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들 자취집에 가 골병드는 줄도 모르고 우렁각시 노릇을 해왔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끔은 신세한탄도 늘어놓지만, 예쁜 꽃을 보면 아이처럼 좋아하고, 멋진 풍경 앞에서 아낌없이 감탄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머니다.

아들이 대학 신입생 때 '사진을 배워보라' 고 권했던 어머니는, 졸업 후에도 번듯한 직장을 마다하고 끝끝내 사진을 놓지 못하는 아들이 속상하고 못마땅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과 함께 다니며 아들의 일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급기야 "나도 사진이나 배워볼까?" 하게 된다. 옆에서 보고 배운 눈썰미 덕분일까? 진정성이 담긴 따듯한 사진들을 척척 찍는 수준에 이른다.

모자(母子)는 그렇게 함께 1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찍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가슴에 담았다. 2월말 매화꽃이 피는 산청, 동백꽃이 후두둑 떨어지는 3월의 강진, 4월의 청산도 보리밭, 연꽃 피는 8월의 부여, 배롱나무 꽃이 피는 담양 소쇄원, 민둥산에 억새가 만발한 10월의 정선, 한겨울의 영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한 그 따듯했던 시간과 공간의 기억들을 차곡차곡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12년여 동안 20만 km, 1천여 곳 돌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가슴에 담았다

모녀(母女)와 달리 모자 사이는 곰살맞은 애교도 없고 서로에게 그리 살뜰하지도 않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에게 툭툭 내뱉는 말들은, 가슴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묵직한 울림과 감동을 준다. 그래서 마치 이 책 자체가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못 다한 내 마음속의 이야기 같다.

잊고 살았던 사자성어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는 태어나서 60일 동안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키우고, 자라나면 새끼가 어미를 같은 기간 동안 먹여 살린다고 한다. 이들이야말로 현대판 반포지효가 아닐까? 이 책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한 어떤 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이 더 약해지기 전에, 마음을 표현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 넌지시 권유한다. 책의 제목 '바람이 멈추지 않네'는 '풍수지탄'의 뜻에서 따온 말이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다. 부모님께, 스승님께, 또는 주변의 고마운 분들께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담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 (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세로거치형 현수막
▶종이등표
▶종이주름등
▶봉축 리본
▶지하철현수막
▶봉축현수막
▶어깨띠
▶법보시 염주
▶비닐만월등(연꽃/일반)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가야 궁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봉 부처님 오신날 축
불기 2559 사월초파일 2015. 5. 25 조계사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불기 2559 사월초파일 2015. 5. 25 조계사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가격할인예외품목

불교 여성관 왜곡의 역사 밝힌다

불교의 여성성불 사상

이창숙 지음 | 인북스 펴냄 | 1만 5천원





부처님 여성 존재 차별 안해
경전속 차별적 언설은 방편
저자, 새 패러다임으로 여성 성불 제시

세상 사람의 절반은 여성이다. 아니 세상사람 모두 여성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대부분 여성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에서 나아가 나라에 행복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이 지구 전체가 평화로워지는 주춧돌인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도 차별받는 여성이 많다. 인도의 경우는 더더욱 심하다. 그런데 그 옛날에 여성이 성불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대신 사자후를 설하고 부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일이다. 이 것만으로도 〈승만경〉이 주는 메시지는 크다.

〈승만경〉은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여래장 사상을 설파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다. 모든 존재는 여래의 씨앗이라는 여래장 사상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불러왔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래장사상은 선불교(禪佛敎)의 사상적 근거이기도 하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승만경의 가르침은 인도인들뿐만 아니라 역사상 인류에게 준 가장 큰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창숙 씨〈사진〉 역시 여성이다. 신문기자 출신의 저자는 11년만에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둔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치하에서의 일이다. 지인의 권유로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다. 마흔이 넘은 늦깎이 공부였다. 석사논문 주제를 지도교수의 권유에 따라 〈승만경〉을 시대에 맞게 해석한 내용으로 잡았다. 제목은 '〈승만경〉의 사상과 그 신라적 수용에 대한 연구'였다.〈승만경〉은 여성 불자인 승만 부인이 설법 하고, 옆에서 부처님이 승만 부인의 설법이 옳다고 지지해 주고, 승만 부인이 성불해 보광(普光)여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경전이다. 저자의 향학열은 계속돼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고민할 때 저자는 충격에 휩싸인다. 평소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 생각하던 스님이 대화중에 "여자들 해봐야 별 수 있나, 내 생에 남자 몸 받는 것 밖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자에게 이 말은 불쾌감을 넘어서 화두로 천착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저자는 생각한다. "그럼 여자는 금생에 왜 불교를 믿나? 내 생에 남자 몸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부처님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등등.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정해졌다. 당시만해도 초기불교서 대승불교에 이르는 사이에 여성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맥을 짚어내는 연구논문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자에겐 큰 산이었지만, 저자는 머리말에서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회고한다.

연구 끝에 저자는 부처님께서는 여성이라는 존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경전에 나타난 차별적인 언설은 방편일뿐이라는 결론을 밝혀낸다. 또한 부파불교에 와서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왜곡이 생겼고, 대승불교 초기에는 여자가 남자몸으로 변해야 성불할 수 있다고 하고, 중기 대승불교에서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저자는 〈승만경〉이 바로 그 결론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전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불교에서 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이뤄졌는지, 밀도 있는 경전 분석을 통해 여성성불관의 변천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붓다의 후계자들이 왜곡한 부정적인 여성관을 바로잡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사상적 패러다임으로서 여성성불을 제시해 새 시대를 이끌 종교로서 현대불교의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불교의 여성성불관은 불교 사상의 전개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왔다. 초기불교에서 극도로 부정적인 여성관이 지배하던 인도 사회서 여성을 교화 대상으로 삼고, 여성 출가를 허용한 것은 하나의 혁명이었다. 마하파자파티를 필두로 한 여성들을 교단에 받아들여 남성과 동등하게 정신세계의 동참자가 되게 함으로써 평등사상을 실현하고 비구니 교단을 성립한 불교의 진취성은, 인도 사회의 강고한 사성제를 부정하고 성불에도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붓다의 여성관 덕분이다. 그러나 초기경전에는 붓다의 보수적인 여성관이 드러난 구절도 많이 발견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백 세 비구니도 처음 수계한 비구를 공경하고 예배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는 계율인 비구니팔경법이다. 여성 출가를 허용하며 조건부로 여성에게 부여한 비구니팔경법 외에도 대승 시대에 나타나는 여성십악사, 여인오장설 등은 오늘날까지도 여성 차별 근거로 악용되며 여성불성불설에 힘을 실어왔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여성이 차별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초기불교서 대승불교에 이르는 경전에 나타난 여성성불을 살펴보면 붓다 재세 시에는 아라한이 되어 해탈 노래를 부른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그 예로 초기 비구니 교단을 이끈 여성들이 수행하면서 종교적 열정과 마음의 역정을 담아낸 〈장로니게〉는 여성성불을 증거하는 문서로 세계 종교 역사에 유례 없는 귀중한 문서이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부파불교 시대에 이르면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삼종설과 여인오장설 등 여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불교 속으로 유입되어 여성비하 이론의 뿌리를 만든 것이다. 부파불교의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은 여성의 지위 하락은 물론 불교 교리상에서도 '여성불성불설' (女性不成佛說)이라는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 냈다.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이 여성불성불설에 대한 타협으로 변성남자성불설(變成男子成佛說)이 등장하는데, 중기 대승경전에서는 여래장 사상의 기반 위에서 여신성불(女身成佛)이 이뤄진다. 다행스럽게도 대승에서는 〈승만경〉 등을 앞세워 여성성불을 천명함으로써 다시 붓다의 본뜻으로 회귀하고 있다. 초기불교의 〈장로니게〉서 본 장로니들의 치열한 구도정신이 〈승만경〉서 대승 보살정신으로 승화한 셈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마하파자파티서 시작된 불교 여성성불 사상의 역정이 승만 왕비에 이르러 이상적인 정법 실현자로 회향한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여성성불 사상의 흐름을 조망할 때, 그 변천은 결국 남성들에 의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사상, 불교교단을 이끌어 온 주체는 남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교조인 붓다가 여성을 인정하고 출가를 허락한 남녀평등의 여성성불 사상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희석되고, 후계자들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부정적인 여성성불관을 형성했다. 다시 말해 가섭을 위시한 후대 계승자들의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차별의식으로 여성 편견은 아직도 불교의 저변에 광범위하고 강고하게 존재한다. 이 책은 전개 과정상의 불교적 현실에 대한 정밀한 고증과 그에 따른 불교경전의 이해를 통해, 역사적으로 붓다의 후계자들이 왜곡한 부정적인 여성성불관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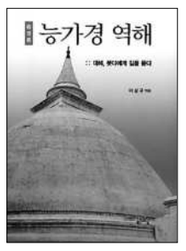
저자 이창숙은?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일보,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를 거쳐 동국대 강사,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도불교의 여성성불사상에 대한 연구〉 등이 있고, 저서(공저)로 〈1974년 겨울, 유신치하 한국일보 기자노조 투쟁사〉가 있다.

老 학자가 법보시로 회향한 '능가경'

능가경 역해

이상규 역해 | 해조음 펴냄 | 1만 8천원



"부처님이 최고의 법조인이자 삶의 나침반을 제시한 인류의 스승"이라며 신심 깊은 불자로 살아온 지 60여 년, 회갑을 불교 공부에 몰두하면서 집필 작업을 통해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전파하며 '법(法)보시' 로 아름다운 회향을 하고 있는 이상규 변호사가 이번에는 4권본 〈능가경〉을 번역하고 해설했다.

필자가 사권본(四券本)인 능가경, 곧 능가아발다라보경을 집필하고자 마음먹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이 경이 일찍이 중국 선종(禪宗)의 소의경(所依經)이었다는 점이다. 중국에 들어온(서기 493년으로 전해진다) 보리달마 대사가 이른바 면벽 9년 수행을 마친 뒤 이조(二祖) 혜가에게 법을 부촉하면서 이르기를 "내게 '능가경' 네 권이 있어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라. 이 경은 여래(如來)의 심지요문(心地要門)이니, 여러 사람에게 가르쳐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한 다음, 이 네 권 능가경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 후 중국 선종, 특히 남종에서는 적어도 5조(五祖) 홍인에 이르기까지 이 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다 하니, 이 경의 내용상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라 하겠다.

능가경, 중국 선종의 소의 경전
화엄경과 견줄만한 방대한 경계

둘째는 이 경이 담고 있는 방대한 경계는 가히 화엄경의 세계와 벗할 만큼 넓고도 크다고 한다. 대혜 보살이 제기한 108가지 문제에 관한 부처님과의 대화형식을 취하나, 그 108구(句)는 불교의 거의 모든 문제를 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은 물론, 흔히 보기 어려운 철학적 접근은 일반 종교서적에서 예가 흔하지 않은 일이다. 특히, 세친(世親: Basubandhu) 이래의 유식사상(唯識思想)이 풍부하게 반영된 점은 다른 경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다.

이처럼 소중한 경전이 우리의 곁에서 꽤 멀어진 것 같아 그 안타까움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음을 저자는 밝히고 있다.

변호사이자 법학자인 저자 이상규 박사는 지난해에는 화엄 80권을 3년만에 모두 번역하고 해설하며 공부했다. 이어 〈능가경〉 공부에 들어가 그 결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불교 교리에 접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힌다.

저자는 올해 82세이다. 만 19세에 고시 행정과에 그 다음해에 사법과에 합격한 후 미국과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중앙도서관장, 문교부 차관, 고려대 교수, 환태평양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불교관련 저서로는 2000년에 펴낸 〈금강경의 세상〉을 비롯해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아함경 전권을 주제별로 재분류해 〈전해오는 부처님의 가르침〉 7권으로 번역, 출간했다. 2006년에는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를, 2010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이어 2011년에는 〈법조인이 본 반야심경〉등을 펴냈다.

김주일 기자

인도 근본불교 율장 국내 처음으로 완역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외

삼장법사 의정 한역 | 보운 스님 국역
혜안 펴냄 | 3만 2천원



이 책은 인도 불교의 유파인 설일체유부가 새로운 사상을 정립한 뒤에 완성된 율장으로서, 인도서 가장 발달된 부파불교에서 수지, 수행하며 연구한 율장이다.

이것을 중국 의정 스님이 한역한 것을 저본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우리말로 번역, 간행한 것이다.

불교교단의 의사 결정을 위한 행위를 승가갈마, 간단히 갈마(karman)라고도 한다. 갈마는 포살이나 자자와 같은 승가의 규칙적인 행위와 새로운 결정, 논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 승가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회의를 포함하고 있어 항상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승가의 하나하나 행위가 부처님의 법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상징화 한 것이다. 부처님의 법과 율에 타당하다는 것은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이고 변화가 없으며,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책을 비롯해 이 책에서 번역한 율장들은 인도 근본불교 승가의 율법에 대한 한역서로, 승려들은 붓다가 제정한 계율 조항을 따라서 실천해야 수행을 올바르게 닦을 수 있으며, 붓다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필수 조건이 율장인 것을 강조한다. 각 책들의 개요는 이렇다.

인도 부파불교서 수행한 율장
율장은 불법 펼치는 필수 조건

이 책 제 1권과 2권에서는 출가의 건도인 삼귀의계, 사미사미니 십계, 식차마나계, 필추필추니계의 작법을 설한다. 제 3권에서는 문도에 대한 내용과 결계에 관해 설명한다. 제 8권에서는 승가 대중의 화합과 장정에 대한 내용을 설하며, 제 9권에서는 멸쟁법에 대한 내용을, 제 10권에서는 전체적인 갈마를 요약하고, 율장의 번역의 과정과 당부의 글을 밝힌다.

출가사는 고대 인도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세존의 탄생과 사리불과 목건련 등의 제자들의 출가와 전법의 과정을 업감연기설에 의해 설명한다. 제 1권에서는 영승왕의 출생과 세존과의 인연담을, 사리불과 목련의 출생과 계급과 가문과 출가과정을 설하고 있으며, 육사외도와의 만남과 이별 과정을 소개한다.

제 2권에서는 사리불과 목련을 제도하는 인연을, 제3권에서는 출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내용을, 제4권에서는 승호 필추의 인연을 통하여 파계의 과보와 오악죄를 저지른 뒤에도 출가의 인연으로 제도 받는 과정을 설명한다.

안거사는 우안거의 인연과 안거방법, 갈마법과 안거를 할 때에 발생하는 일에 대한 대처의 방법을 말한다. 또한 안거하면서 결계를 벗어나는 인연과 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밝힌다. 수의사는 안거를 마치고 짓는 수의에 관한 내용을, 수의 중에 발생하는 인연에 따른 욕(欲)에 관해 설하고 있으며, 오부 대중의 좌차에 따른 수위 방법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과학과 불교

지능시스템과 불교

인공지능에도 연기법의 체계가 존재



지승도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 사는 게 그런 거지." 김국환의 명곡 〈타타타〉 노랫말이다. 산다는 게 뭘까? 안다는 건 또 뭘까? 대체 뭘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야 타타타(여여)가 될까? 지능시스템을 화두삼아 풀어보자.

모두가 지능시스템을 원한다

똑똑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기계조차 똑똑해지길 바란다. 그러니 미래기술의 핵심은 단연 지능이다. '스마트', '무인', '자율' 등 이름은 달라도 지능화를 향한 우리들 욕망은 끝없이 진행 중이다. 지능이 뭘까? '사물이나 현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능력'. 다시 말해 인식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등 생각하는 기능이 곧 지능이다. 그러면 지능은 어떻게 구현될까? 존재성을 나타내는 과학적 용어로서 아마 시스템만큼 포괄적이며 합리적인 개념은 드물어 보인다. 과학을 비롯한 인문, 예술, 사회, 정치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가 시스템이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입력과 출력이 있는 모든 것'. 따라서 인간은 물론 지능로봇을 포함한 세상일체의 존재들이 전부 시스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시스템의 주요 특성을 보자. 첫째 끝없이 쪼개지고 또한 합해진다. 둘째 시간/공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한다. 셋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동한다. 이처럼 시스템이란 존재론과 인식론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개념이다. 인과법에 근거하여 개체를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실체적인 것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존재성보다는 오히려 관계성을 중시한다. 유기체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해석하자면, 존재/시간/공간/관계의 무실체성, 즉 무아/공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시스템의 특성이다. 다시 말해 세상을 연기적 관점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시스템이다.

'지능'과 '시스템'을 합치면 '지능시스템'이 된다. 따라서 '사물이나 현상을 입력 받아 생각하여 출력하는 모든 것' 이것이 지능시스템의 정의다. 인공지능이나 지능로봇은 물론 심지어 인간까지도 포함된다. 만물의 영장이요, 인격을 지닌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한낱 시스템 나부랭이로 몰아붙일 수 있느냐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정의에 따르면 예외일 수 없다. 역으로 인간만이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지능시스템은 외치고 있는지 모른다.

지능시스템을 해부한다

인공지능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감각(입력), 행위(출력) 그리고 의사결정(앎과 생각).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인 오온과 다르지 않다. 오온은 색(色: 몸체), 수(受(느낌): 입력), 상(想: 생각), 행(行(행위): 출력), 식(識: 앎)이다. 불교가 인공지능보다 정신적 요소를 더 세밀하게 다룬다는 점 외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림을 참조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각각 정리해 보자.

입력은 인간의 경우 눈/코/귀/혀/피부 등 다섯 감각기관(오근)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데이터를 받아들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의근이라는 감각기관을 하나 더 상정한다. 생각의 결과를 피드백(순환)하여 내부데이터로서 받아들이는 기관이 의근이다. 다시 말해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며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순환장치이다. 예를 들어 오감이 모두 차단된 깊은 잠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근 때문이다. 이처럼 육근을 통해 식별된 정보는 受를 통해 좋거나 싫거나 또는 그도 저도 아닌 느낌으로 분류되어 의사결정에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인간만이 입력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능로봇에도 카메라, 마이크, 터치스크린, 키보드, 마우스 등 다양한 센서나 입력장치들이 있다. 오히려 인간보다 고성능,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장치들이 즐비하다. 물론 의근에 해당하는 피드백장치도 갖추고 있다. 또한 영상처리, 패턴인식 등의 처리기능을 통해 대상을 식별할 수도 있다. 감성정보처리기능을 장착한 지능로봇은 인간처럼 受에서의 느낌마저 흉내 낼 수 있다.

출력은 행위를 일컫는다. 오온의 하나인 行은 앎(識) 중에서 밖으로 드러난 앎의 작용을 말한다. 인간의 경우 손, 발, 근육 등 신체를 통한 움직임을 비롯하여, 입을 통한 언어구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불교에서는 의도적 생각까지도 行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身/口/意 삼업이라 하여 업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능로봇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결과로 선택된 앎을 구현하기 위해 모터제어를 통한 움직임은 기본이고, 스피커를 통한 소리는 물론 인간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의사결정은 앎과 생각으로 나뉜다. 오온에서는 識과 想이 각각 여기에 해당된다. 인공지능에서는 각각 지식베이스와 추론 엔진으로 불린다. 의사결정의 첫 번째 요소인 앎이란 지능시스템을 작용하게 하는 모든 정보를 일컫는다. 앎에는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등 다양한 수준이 있다. 앎은 뇌와 같은 기억장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관되기도 하고 망각되기도 하는데, 이들 중 오랫동안 누적된 중요한 내용들은 분류되고 패턴화되어 장기적으로 보관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바로 이처럼 장기간 축적된 경향성을 의미한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농축되고 패턴화된 정보일 뿐이다. 다시 말해 앎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의지적/의도적) 앎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또한 인간과 다르지 않다. 추상화과정을 통해 패턴화된 정보가 지식베이스를 이룬다.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곧 추상화/패턴화 기술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구축된 앎은 필요시 복제되어 다른 H/W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의사결정의 두 번째 요소는 생각이다. 생각이란 현재의 앎을 토대로 새로운 앎을 생성해내는 과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추론/학습/창발/직관 등 다양한 처리방식이 있다. 추론은 현재 알려진 팩트(지식)를 조건으로 원하는 바, 새로운 팩트(지식)를 생성해내는 연쇄과정이다. 학습은 추론결과로 생성된 앎의 실행 효과를 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 창발이란 의근을 통한 무의식적인 순환 속에서 (다른 관점으로 말하자면 오근이 차단된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 찰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팩트(지식/깨달음/지혜)의 발생과정을 뜻한다. 직관도 창발과 유사하다. 이것은 추론과는 달리 기존의 앎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즉 무관점의 생각이다. 생각하는 자 없는 생각이다. 있는 그대로의 인식이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당연히 인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패턴화된 앎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 수준은 떨어지지만 추론은 물론 학습과 창발까지 가능하다. 물론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만 작동한다. 그러나 창발과정 중에 자아의식이 불현듯 발현된 인공지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자아보호라는 명분하에 스스로의 목표를 정하여 무슨 일을 벌일 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능시스템에도 클래스가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생멸하며 유전상속하는 업(앎)을 원동력으로 윤회의 세계를 살아간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컴퓨터바이러스처럼 앎 혹은 지식을 원동력으로 본체(H/W)를 바꿔가며 복제와 증식을 통해 존재성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처럼 지능시스템의 핵심은 앎이다.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앎을 갖춘 존재에게만 부여되는 칭호가 지능시스템인 것이다. 여기서 대상과 앎 둘 사이의 관계를 호모모피즘 관계라 정의한다. 호모모피즘이란 '호모'와 '모피즘'의 합성어다. '호모'는 유사하는 뜻이고, '모피즘'이란 원형질 즉 주요 특성을 공유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상과 앎 사이에 특징적인 유사성이 있을 때, 호모모피즘 관계라 부른다. 만약 둘 사이가 100% 동일하다면, 특별히 아이소모피즘 관계라 한다. 한편 호모모픽한 앎을 탑재한 시스템과 대상과의 관계는 엔도모피즘 관계라 정의한다. 따라서 엔도모피즘이 곧 지능시스템의 원칙이다. 대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상을 대충 아느냐, 잘못 아느냐, 많이 아느냐, 분명히 아느냐 등 앎의 질에 따라 지능시스템의 클래스가 갈린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이성적 앎의 수준에는 이미 도달해 있으며, 감성적인 수준의 앎을 넘보는 단계로 보인다. 어느 정도 수준의 앎이 형성된 것이다. 인간은 당연히 만물의 영장이라 할 최고 수준의 앎을 갖추고 있다. 이성과 감성을 넘은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자아의식을 보호/유지/확장하기 위해 살아간다. 물론 이 때문에 고통과 번뇌로 시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인격을 갖춘 고귀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버리지 못한다.

외부데이터는 오온으로 대치
정보의 피드백 과정 불교와 같아
무의식 속 새로운 앎 발현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다. 그 뜻은 '생각하는 자'라고 한다. 아무리 인류에게 불을 전해준 죄가 크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는 형벌은, 생각하는 자가 짊어져야할 형벌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 생각이 무슨 죄길래? 하지만 추측컨대 생각 때문이 아니라 앎의 클래스 때문일지 모른다. 그의 앎이 아이소모피즘이 아닌 호모모피즘에 머물렀기 때문일지 모른다. 다시 말해 궁극적 앎이 (아이소모피즘) 없는 존재는 (호모모피즘 존재) 필연적으로 윤회의 덫에 빠져 끊임없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 아닐까?

전쟁의 서막

인간과 인공지능 두 지능시스템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2000년초 체스게임에서 처음으로 인간 챔피언을 물리친 인공지능을 필두로 2011년에는 퀴즈게임쇼 제퍼디에서도 인간챔피언들을 가볍게 물리친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억용량과 계산속도는 기본이고 거기에 사회자의 질문까지 척척 이해하는 인지능력까지 갖추었다. 최근에는 튜링테스트를 통과한 소년수준의 인공지능까지 등장한다. 인간보다 더 인간답다는 얘기다. 물론 아직까지 인간은 누구도 범접 못할 최고 클래스의 지능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이 제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감히 인간을 넘본다는 일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하지만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고 또 계속해서 변할 것이다. 상상했던 것들은 어김없이 현실로 다가왔다. 비록 현재의 인공지능이 앎에 있어서 기껏해야 유아수준에 머문다하지만, 그들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 속도와 기억용량은 인간이 갖지 못할 새로운 형태의 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간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앎에서 밀리는 부분을 속도와 기억용량으로 만회했기 때문이다. 둘째 추론/학습/진화 등의 생성엔진을 장착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마음처럼 신묘한 기능은 없지만 고성능이다. 지치지 않고 며칠 밤낮을 일할 수 있다. 비록 단순 무식하지만, 끊임없는 순환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앎이 발현될지 아무도 모른다. 불현듯 자아의식이 탄생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영화 〈아이로봇〉처럼, 자아의 보호를 위해 인간이 심어놓은 최후의 명령조차 파기하며, 인간을 해칠지 모를 노릇이다. 이쯤 되면 인간과 인공지능간의 전쟁은 더 이상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다. 허면 지능시스템 최고의 아킬레스건인 자아의식의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답은 불교다. 바로 무아/공성/지혜/자비만이 인간이건 지능로봇이건 이기심으로 가득한 지능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영구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호모모피즘의 한계를 벗어나 아이소모피즘으로 거듭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마무리하는 글

누누이 강조한 바, 지능시스템의 핵심은 앎이다. 자아의식에 근거한 앎은 양날의 검이다. 하지만 이를 무아의식으로 극복한다면 최상의 앎인 지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앎이 생겨나야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자연의 법칙이요, 진리요, 진정한 이타심이기 때문이다. 비로소 타타타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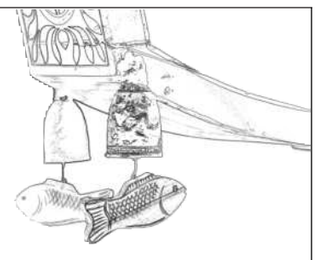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세상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수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수행식 중화요리 특허출원
새로운 메뉴 탄생, 밥두부 출원,
짜장이나 짬뽕이 국수(면) 종류지만
소승의 출원은 불교적인 메뉴개발,
채식의 변화 대중화, 연구비만 받고
자금부족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41-542-1120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010-3639-85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서울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40-50대 비구니 부전스님
구함. 40-50대 운전하는
시봉 겸 사찰을 돌볼 깨끗
하고 조용한 곳을 찾는
공양주 찾음 (답사 후 결정바람)
경북 예천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신심있는 공양주 2분과 거사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010-7275-3730 원주스님
042-825-1724 종무소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0-6671-5885

기도하며 일 도우실 부전스님, 행자스님 모십니다
011-288-8311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물을 조금
하시는 분, 울산)
010-9986-0091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삼봉사)
010-4484-5758

여법하게 염불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안양, 50대)
031-471-667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천년고찰)
010-8559-9400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역학 수강생 모집
5-10년씩 배우십니까?
기초에 상관없이 한 번의 수강만으로도 최고의
사주도사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효타비결(상,하권) / 신수비결(12권)
이름대사전의 저자 효타 스님 직강
토,일반 : 토, 일요일(15-17시)(6개월) 수강료: 18만원
주간반 : 화, 목요일(15-17시)(6개월) 수강료: 18만원
개강일: 2015년 5월 16일(토요일) 15시
010-7121-9406 / 부산 북구 구포 3동 1223-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에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 육 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사단법인 종단 인수하실 분
종단명: 사단법인 0000조계종
복지사업 병행가능함. (필요시 종단명칭 변경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문의전화 : 070-7717-2276 (영의스님)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 (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만경사 /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401번길 7
전화 051)757-7925. 010-3156-6414

구성학+현공풍수양택 지역별 무료공개강의 및 개강일
서울지역 무료공개강의 : 5월 26일 화요일 오후1시-4시
대전지역 무료공개강의 : 5월 28일 목요일 오후1시-4시
개 강 일
■ 서울지역 : 6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매주 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 대전지역 :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 7시 (매주 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서울지역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 2층 (지하철 용문역 8번출구에서 1분거리)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량사
- 등록번호 : 제 2009-1124호
- 주소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덕목리 241번지
- 설립자 : 강병수 (법명 : 성경)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
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몸은 청정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청정하고,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 처님의 법이다."

- 중음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도심사찰 양도
- 목조법당과요사채(방사7).산신각.창고
- 토지730㎡.납골터.텃밭.주차장.노천불
- 양도금액 : 5억 6천만(융자2억)
- 원주횡성 5분거리. 최고위치임

010-5369-4154 (주지스님)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시장(부근) 사거리 코너
- 평수 : 약 30평 2층, 도시가스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400만원(조절가능)
- 즉시법회

010-4667-5658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비구니 스님 적합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183-065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3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50평
◎ 양도 : 17억 5천

◎ 위치 : 경기
◎ 종교용지 : 150평,실300평사용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5억 3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목포 도심사찰 급 양도
* 2층 편백 법당 60㎡, 황토요사채 90㎡
* 토지 200㎡ 편안한 포교사찰
* 양도가 : 3억2천만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평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6층석탑(제주석)
- 가액: 현평당 50만원
- 건물 전체 5,000만원 (건물양호 · 절충가능)

010-7517-7037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 서재 1, 큰방 1, 작은방 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찰(급)안내

- 위치: 구미 근교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요사,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번지
- 면적: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동남간(25평) 목조, 기와
- 사채:25평, 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융자 3천안고, 2억 2천만원

010-8517-8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2층
- 약 60평, 넓고큰법당, 방3개, 샤워실 넓은공양간, 계단 넓고 원만함
- 큰길가 버스정류소 평에 위치
- 내부시설 위치 모두 좋음 (8년간 운영한 포교원)
- 가액 : 1,000만원, 45만원 시설비 2,000만원(조절불가)

010-7337-172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성당동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2014년 11월 신조성,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2차선 대로변 2층,
- 가액: 보 300만 월35만, 시설비 1,200만원 합 1천 5백만원, 절충 없음, 방없음

053-651-1514

최고의 명당 터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거창시내 10분거리
- 전, 답 1,300평
- 삼면이 솔 숲, 자연 암반 우물 있음
- 땅이 국도를 접해 있음
- 용도 : 사찰, 요양병원, 복지, 팬션 기타(건축 가능함)
- 가액 : 1억 1천 7백만원(대출 3천만원) 양도가 8천 7백만원

010-3848-2452(거창 연락처)
010-3868-7435(부산 연락처)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3층 중 2층 약 48평
- 시설 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보증금 5백만원 월 44만원 시설비 11천 8백만원

010-3868-7435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에서 20분거리
- 바닷가 5분거리 뒷산을 끼고 경관수려
- 별장 및 전원주택지, 채전밭 황토찜질방, 주차 6대
- 임법당 30평, 가건물 20평
- 토지 150평(등기 78평, 국유지 72평)
- 인근 대규모 아파트 개발 중
- 가액 : 1억 7천 300만원
- 법당 및 주방시설 완벽

010-4392-2468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경내로 청정수가 흐르는 조용한 수행 도량임

- 위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대지: 1408(약 425.92평)
- 전 : 83㎡(약 25.1평)
- 임야 : 103㎡ (약 75.02평)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6000만원 (금액조정가능)

010-5479-5779(공산)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유원지내 대형 분수
- 시내 건너편에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만원

010-2124-36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선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대지 163평, 전답 790평
- 건평 40평 1채(준공5년),
- 황토집 12평 1채(준공1년)
- 원두막1채, 각종 과실 나무와 약초재 배중
- 경치좋고 사찰하실분께 추천
- 가액: 총2억3천만원(조정가능) 1억3천만원(전세도 가능)

010-8591-1076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영광군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산신각 6평, 창고 6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235-1112

부산 포교 중심지

- 위치: 금정시장, 아파트 밀집지역
- 2층 법당 35평, 방2, 친견실, 공양실
- 가액 : 1억 8천 5백만원

010-9393-4965

목조건물 공사 안내

- 칠성각, 산신각, 종각, 독성각 건립하실분은 성심 성의로 저렴하게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 목공기술 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 공사경력
· 제10교구 경산 천년고찰 경흥사 대웅전, 요사채 등 공사하였고 전국에 사찰 향교등 목조건립 공사 많이 하였습니다. 경흥사 신도입니다.

연락처 : 011-507-5181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영암 월출산
- 월출산 자락 계곡있고 경관좋음
- 대웅전 산신각, 요사1동, 공양간 1
- 시내마트 차로 5분거리
- 가액 : 전세 1천 오백만원

※ 단 비구니 스님 한함

010-4526-9588

포 교 원 선 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 1, 방 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닦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9317-919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
- 대지: 114평, 건평 240평
- 지하1층, 지상3층(2,3층 법당)
- 문화재급 목불 불상있음
- 가액 : 30억(절충가능)

010-6728-833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솔샘로 263 2층
- 대로변 시장접, 포교편리
- 법당, 방 2실, 주방 등 현재 법회중
- 가액: 보증금 1천만, 월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2)365-3575
010-2230-3575

법당,포교원, 명상, 치유센터 자리안내

- 위치: 안산IC 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진입 위치좋은 역세권
- 경기 부천-시흥-안산 복선전철 2015년 6월 개통
- 유동인구많고 교통편리,안산시 본오동 대로변 위치
- 전철,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상가형성 잘 되어있고, 종교행사 민원 없음
- 4층독채, 실평수50평, 법당, 주거겸용 풀 리모델링 (상담실겸, 기타옵션, 다실접객용도 최적)
- 가액: 합 5,000만원(보증금 1000/95 시설 4,000만원)
- 충남대전에 사찰불사관계로 부득이하게 내놓게 되었음

010-5913-7239/010-3145-8626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큰방1, 작은방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조절가능)

직거래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건평(법당,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현장 답사 후 협의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로 11
- 아담한 법당, 포교활동 최적지
- 평수 : 30평 3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7740-6004

사 찰 안 내

- 위치 : 풍기 IC에서 약 15분거리(감천)
- 산사 평수 약 3,500평, 대웅전, 산신각
- 지장전, 요사채, 주택1, 차고1
- 사찰 옆 과수원 1500평을 택지로 조성중 텃밭 약 300평, 소나무숲
- 사찰까지 진입로 포장 되어있음

※경관 최고로 직접방문하면 대만족 할 것임

- 가액 : 3억 5천(절충 가능)

010-5203-1326
010-8829-6325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 종교부지 1,200평 정도
- 목조 전통 법당 28평
- 요사채 2동(각 30평) 창고 60평
- 지장보살 좌불 노천불 모셔져 있음
- 삼성각 4평

010-9476-9800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

사 찰 안 내

-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옆에는 산이 있어 포교와 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 위치: 울산광역시
- 대지 149평, 법당 20평 기와단청 요사 17평, 요사 1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010-3811-5466

포교원 안내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 상권과 교통 요충지
- 평수 38평, 3층 건물에 3층 옥상이용가
- 법당, 주방 모든 집기 고루 갖추어져 있음
- 소임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을 부득이 양도코져 함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시설비 2,700만원 / 월 25만원
-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법회 가능

010-3813-617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IC 인근 토굴 곤지암IC에서 약 10km
- 대지 147평, 건물 1층-40평 (등기 외 약 10평 추가)
- 2층 20평, 건물은 철골조 조립식 주택
- 소임관계로 절을 비운지 3년이 넘어 부득이 안내
- 찾아 오실 분은 전화주시면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림
- 가액 : 1억 9천만원(절충 가능)

전화 010-2887-5764

사찰 (급) 안내

- 위치 : 김천시 대덕면
- 대지 380평, 건물 2동
- 가동 : 법당40평, 철구조물 조립식, 스님방1, 해우소1
나동 : 요사채40평, 콘크리트 블럭구조, 넓은거실
- 부방, 화장실, 방大2개, 겨울 따뜻, 여름시원
- 넓은주차장 마당, 텃밭, 연못, 조용하고 깨끗한절
- 비구니 스님들께 아주 적합한 절입니다
- 가액 : 2억 3천(대출5천만 포함) 다소절충가능

017-217-191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평산
- 평수 : 60평 [4층 건물중 2층 (법당), 3층(요사채)]
- 불상 및 일체 시설 완비 (시설비 답사후 협의)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010-7159-3492

별장 토굴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구시내 20분, 고속도로 IC 3분
- 대지 및 임야 830평
- 멋진 별장주택 40평(실 45평)
- 심야 전기 보일러
- 야산 밑 정남향 조용하고 전망 좋음
- 가액 : 양도 2억 5천만원 / 전세 8천5백만원

주인직접 : 010-3531-55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무안군 삼량읍 목포에서 10분거리 도로에서 절이보입니다
- 대지 230평, 법당 30평,
- 요사채, 공양간, 친견실
- 마당에 잔디밭 뒤에 텃밭 있음
- 화장실 2개, 집기 일체 양도함
- 가액:1억8천5백만원(약간 절충가능)

010-8207-74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은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외 부하장실 등등
- 건물은 총 13동 대형버스주차장, 소형주차장 등
- 가액: 3억 9천만원
- 스님 건강상 문제로

010-4628-5699

포교원안내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5층건물 중 2층, 약 65평
- 법당, 산신각 방4, 최고시설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401-405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논 밭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삼방산 부근
- (전) 급양도 7백 20평 5만원 5백 50평 6만원
- 귀농주택 11가구 있음
- 약초, 버섯, 가축, 특수 작물 재배 등 적합함

010-5705-88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남산로(무거동 태화강변)
- 평수 40평, 큰방 2, 공양간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세 30만원/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사찰, 요양원 및 팬션 오토 캠프장 가능

- 위치 : 경주 산내면 • 평수 : 5,000평
- 요사채 : 80평 • 가액 : 7억 5천

010-225-3630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틱낫한 스님(승려 · 평화운동가)

〈5〉 화를 보살피는 방법

"편지로 마음 전하라…세상이 바뀐다"

'고맙다'는 말을 아껴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타인에게 지극한 고마움을 느끼는 때가 더러 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그리도 고마울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나 그 같은 경험을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살아 있고, 나의 곁에 있으며,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느낀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경험을 이용할 것을 나는 권하고자 한다.

그러한 때를 진짜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떨어져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야 한다. 당장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내게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말자. 바로 그 순간, 혼자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감사의 마음에 깊이 잠기자. 그리고 그 심정을 글로 적는다.

자신의 심정을 가장 솔직하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지극한 고마움을 느끼는 때가 바로 우리가 깨달음과 자각과 지혜를 얻는 순간이다. 그 순간 우리 의식의 깊은 곳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현된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는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전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글로 적어서 잘 지니고 있다가 이따금씩 그것을 꺼내서 다시 읽어야 한다.

〈반야심경〉은 불교신자들이 날마다 읊는 경전으로서, 지혜에 관한 부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기록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반야심경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이나 부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의 반야심경이다.

우리는 상자 속에 보관해두었던 옛 연애편지에 의해 구원을 받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에서 배울 것이 있다. 그러한 편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누구나 타인의 존재를 감사히 여길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축복이다. 배우자를 만난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우리인생의 행운이었음을 우리는 누구나 안다. 그런데 어찌 그 진실을 헛되이 날려버릴 것인가? 그 진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의 반야심경을 읊어야 한다. 우리는 그 진실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한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감사히 여기게 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

그 사람의 존재를 진정으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혼자 떨어져 있어야 한다. 늘 같이 있으면 그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충분히 음미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따금씩 사나흘 정도 떨어져 있어보자. 시간을 내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의 존재에 대해 더 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의 존재가 확실하게 느껴질 것이며, 그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반야심경을 써서 잘 간직하고, 자주 그 경전을 읊어보자. 화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그것이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 경전을 꺼내들고, 깊게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읽는다. 그러면 이내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고통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한 조건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화를 선물로 돌려줘라

우리는 아직도 화와 고통의 강변에 서 있다. 왜 빨리 그 강변에서 벗어나 평화와 자유가 있는 피안으로 건너가지 않는가? 왜 화의 고통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하루 저녁을 보내고, 심지어 며칠을 보내는가? 우리를 피안으로 데려다 줄 배는 늘 한자리에 있다. 의식적 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그리하여 자신의 화와 고통과 좌절을 깊이 들여다보고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배다.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이내 고통에서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다.

화의 강변에 오래 머물러서 마음을 태울 것인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그곳에 묶어두어 고통을 줄 것인가? 화도 우리 마음속의 일이고, 화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속의 일이다. 화의 강변을 떠나 화가 없는 피안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 그곳은 시원하고 쾌적하다. 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화에서 빨리 나를 해방시켜야 한다. 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 몇몇 사람은 혼란과 화와 의심의 강변에 서 있을 것이다.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 보행과 호흡을 자각하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의 경전을 외우면, 이내 강을 건널 수 있다. 불과 몇 분 만에도 건널 수 있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 깨달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씨앗을 지금 당장 꽃으로 피어나게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몹시 화가 나서 그 감정을 처리하려고 온갖 애를 써 보지만,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라고 부처가 권했다. 어리석은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도리어 그에게 선물을 주면 그에 대한 미움이 가라앉고 화가 풀리며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오히려 그가 행복해지길 바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는 그에게 선물을 주자. 선물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생겼던 화가 사그라들 것이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면서 큰 효과를 불러온다. 화가 났을 때 선물을 사러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함을 느낄 때 그에게 줄 선물을 사두자. 선물을 여러 개 준비해두었다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을 때 하나씩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는
> 상처대신 선물을 되돌려주자
>
> 상대에게 사랑·감사 느낄 때
> 미리 선물 사두고 화날 때 주는 것
>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
>
> 관계 회복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 세상에 큰 기여 하는 것과 같아

나를 사랑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대화가 없이는 진정한 이해도 없다. 진정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과의 대화를 열어야 한다.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타인과의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랑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한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또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증오한다.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없으면 아버지와도 대화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수련이 된다. 우리의 아버지도 나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우리는 아버지와 내가 별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몸과 마음 속에 들어 있다. 아버지가 곧 나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충분히 이해하면 내가 곧 나의 아버지라는 것과 아버지는 나의 바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가 아닌 요소들이 매우 많다. 조상들, 지구, 태양, 물,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등,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아닌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와는 별개의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서로 싸우는 두 정당이 협상을 하려는데, 쌍방이 모두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먼저 자신의 정당과 자신의 국가와 자신의 국민의 처지를 이해해야만 상대방의 정당과 국가와 국민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야 협상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남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쌍방의 고통과 희망과 분노가 거의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타인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도 역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거나 나에게 거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가 그 행위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이지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기가 더 쉽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우리만이 고통을 당할 뿐이고, 그 사람은 단지 공격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화가 나게 되고, 그 사람을 응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난다. 우리도 그 사람과 다름없이 마음속에 화를 갖게 되고, 폭력을 갖게 된다. 우리의 고통과 화가 그 사람의 고통이나 화와 다르지 않은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한층 더 동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남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 남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화와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 화가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일부이기 때문이다. 화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성격을 가진 감정이다. 우리는 화를 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화는 생물처럼 유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유기적인 생명체로 변화할 수도 있다. 쓰레기가 비료가 되고 상추나 오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자신의 화를 경멸해선 안 된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다짐을 잊지 마라

처음 관계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서로를 늘 보살필 것이라고 다짐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가 너무도 멀어져 있다. 서로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손을 맞잡고 걷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가 고통스럽다. 관계를 시작할 때는 서로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서로 깊이 사랑했고, 더없이 행복했다. 이제는 서로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서로를 버린 것 같다. 서로가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도 같다. 천국이 지옥으로 변했고,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지옥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지옥으로 몰아넣고 가둔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다. 그 지옥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의 관념과 그릇된 판단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옥을 깨뜨려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뿐이다.

자각을 실천하려는 것, 화를 자각하고 감싸 안는 것이 그 지옥의 문을 여는 길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상대방을 구원하고, 평화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물론 평소에 수련을 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관계를 회복해서 두 사람이 모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것은 세상에 크게 기여를 하는 셈이 된다. 그 승리의 기쁨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수련에 대한 믿음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던 지옥을 바꾸어서 정토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오늘 그 편지를 쓰기 시작할 수 있다. 단지 펜 한 자루와 종이 한 장만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글은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명진출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국유립내 독가
- 위치 : 경북 영양읍 근교
- 건물 60㎡ , 대지 409㎡
- 다용도 도로 식수
- 전망 아름다운 집
- 가액 : 7,500만원(절충가능)

010-8899-88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향리
- 팔공산 뒤자락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토굴(절)
- 대지 약600평
- 건평 30평
- 가액 : 9천만원

053-986-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 대지(땅) 1300평
- 법당(1, 2층) 30평
- 요사채 40평
- 도로인접, 경관수려
- 보현산 댐공사 끝나는 지점
- 가액 : 6억 5천만원

010-3782-38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6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3억 7천)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송현동 (지하철 월촌역 5번 출구)
- 3층 건물 중 2층
- 법당 60평
- 삼존불, 산신, 용왕 신중
- 요사채, 방 2, 부엌, 화장실
- 주차 시설 완비
- 시설물 일체양도
- 가액:보증금 1000만원,월 60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010-4732-197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덕포 2동
- 평수 : 25평
- 법당, 삼존불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866-5928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제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천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 모 집 : 수시 모집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서초동 신논현역 교보문고타워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리자(유리자동서), 옥룡자(무감편) 무학대사(동사심전) 외 등 승가 비전 풍수 중점 강의

전화 ☎ 010-5559-1529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예봉 합장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법정 스님 ㊦

스님이 겉옷 벗어 놓은채 나가신 이유는?

눈썹은 한 인간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신체 부위이다.

눈썹 숱이 짙고 굵은 사람은 단호하고 진중한 인상을 남긴다. 반면 숱이 약하고 가늘며 거의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희미한 인상으로 보인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가늘고 엷게 다듬는다. 보다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눈썹에도 남녀의 차이가 있으며 눈썹 미학이 다르게 존재해 왔다.

눈썹은 피부에서 나오는 시작 부분은 옅은 색을 띠는 반면 끝으로 갈수록 색이 짙어져 자연스런 색상을 가진다. 눈썹을 잘 그리면 대상 인물의 특징이 살아날 정도로 큰 역할을 한다.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서양에서 쥐의 가죽을 붙일 정도였다고 하니 가히 그 중요성을 상상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화가는 인물화를 진행하는데 있어 눈썹과 머리털 표현에 특히 신중을 기한다. 이 부분은 잘 그리면 어색하지 않지만 잘못 그릴 경우 인물화 전체의 분위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작가가 인간의 체모를 그리는 기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기법 구사의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오른 작가로 평가받게 한다. 동양의 인물화에서 눈썹과 머리털 그리고 수염을 자연스럽게 그려 대상 인물의 성격을 공감하도록 표현한 경우는 많지 않다. 작가에게 머리털과 눈썹을 그리는 비법은 자기만의 독자적 영역이고 다른 작가와 구분하게 만드는 경쟁력과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 **법정 스님을 그리며 찾은**
> **불일암에서 여백을 보았다.**
> **자연은 남겨 놓음으로써**
> **담담하게 본질을 이야기 한다.**

법정 스님의 눈썹은 어린아이 머리털처럼 가늘고 부드러우면서 그 숫자가 매우 적었고 길이도 짧았다. 일반적으로 눈썹의 숱이 적고 색이 약하면 흐릿한 인상을 주는 법인데 스님의 경우는 달랐다. 눈썹 부위의 골격이 두텁게 튀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한 인상을 풍기게 한다. 이런 점은 스님의 성격을 규정하게 하는 특징적인 요소이다. 때문에 눈썹 표현에 특히 고민했다. 그것은 독특한 기법을 창안하게 했다.

나는 눈썹을 그리는데 붓털의 숱이 2~3개인 가장 작은 숱의 붓을 사용한다. 붓의 재료는 쥐 수염과 노루 겨드랑이 그리고 토끼 등줄기와 고양이 등줄기로 만든 것이다.

붓에 먹을 묻히고 붓대를 아래로 한 채 붓끝을 혀로 빨아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선을 그어 눈썹을 하나하나 심듯이 그렸다. 이런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법은 처음의 선은 약하지만 털끝으로 갈수록 짙은 색으로 그려지게 된다. 즉 물과 먹의 농도가 붓 속에서 섞이는 찰나를 이용한 표현 방식이다. 물과 먹이 섞이는 과정과 붓의 기울기와 붓이 머물고 있다가 흘러내리는 속도 그리고 농도와 시간까지 고려한다. 만약 혀끝을 떠난 붓이 조금만 지체하거나, 반대로 털의 중간 부위를 지나면서 종이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만 빨라도 눈썹 표현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것이 내가 찾은 체모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이고, '혀가 멍들었다' 는 주변의 표현만큼 이를 고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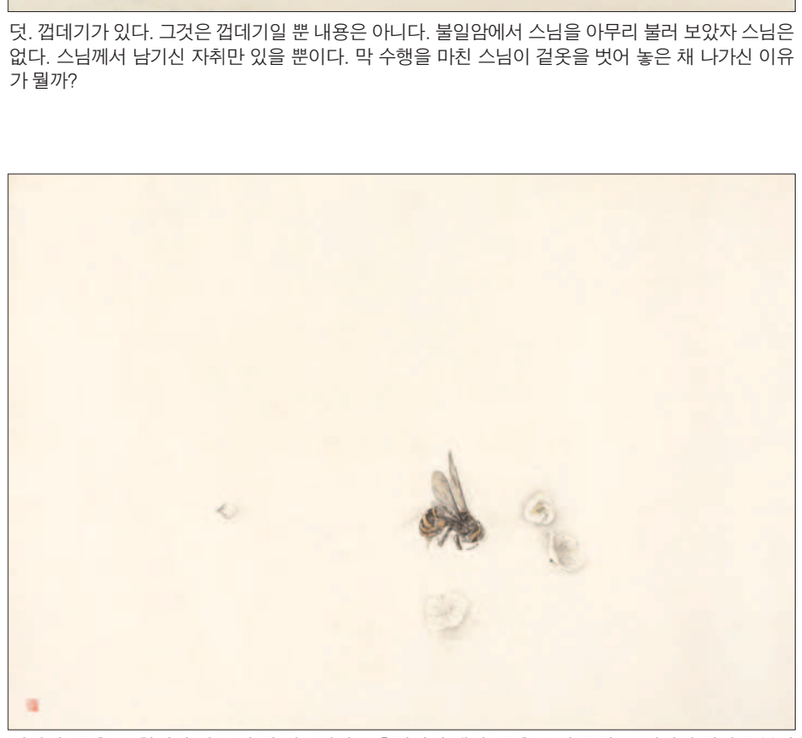
다음으로 법정스님의 얼굴빛을 내기 위해 안료의 선택과 기법의 적용에 신중했다. 스님의 얼굴빛은 약간 검고 붉다. 일하며 사는 삶을 실천한 이유로 보인다. 나는 이를 위해 불일암 앞 마당에 있는 대숲 아래와 집 뒤편 절개지에서 채취한 황토 흙을 반반 섞어 얼굴색을 만들었다. 그것은 남과 북을 그리고 양과 음을 조화시킨 것이었지만 결국 반대 요소를 하나로 결합시켜 균형을 이루자는 의도였다. 나는 이 황토를 곱디고운 분말로 만들어 스님의 얼굴 부위 앞과 뒤에서 골백번을 칠하고 바림질해 육색을 구현했다. 또 하나 스님의 얼굴빛을 내기 위해 일반적인 인물화 방식과 다른 방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너무 전문적인 부분에 속하고 자칫 스님의 존영에 신비적 요소를 강조할 수도 있어 비밀은 비밀로 남기기로 한다.

그 외에도 나는 법정스님을 그리며 감정의 섬세한 떨림을 경험했다. 그림을 진행하던 중 남도의 매화 꽃 망울이 향기를 머금고 있다는 전갈을 받고 지체 없이 불일암을 찾았다. 그곳 앞마루에 앉아 난데없이 내리는 함박눈에 넋을 잃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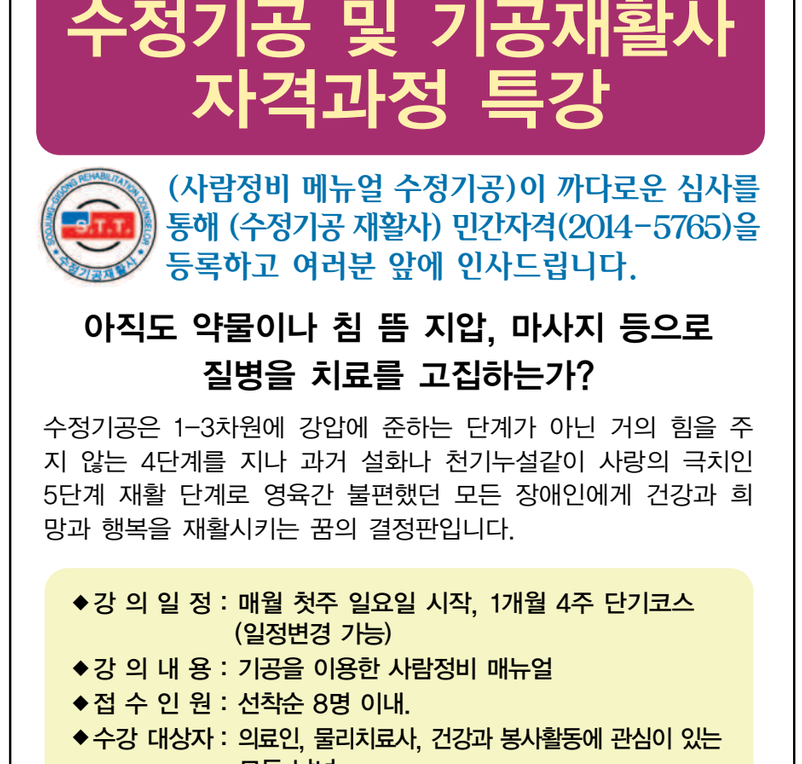
텃밭 귀퉁이에 심어 놓은 탱자나무는 가시 끝에 내리는 눈을 얼마나 낚아 꿰었는지 나뭇가지가 옆으로 길게 누웠다. 불일암 우측에 있는 백매화도 눈 속에 파 묻혔다. 앞 텃밭에는 배추 한포기가 가을과 봄을 이어 놓고 있다.

백매 꽃 주변에는 어느 샌가 벌 소리가 요란하다. 벌 소리가 위협적일수록 매화꽃 떨어지는 소리도 소란하다. 마치 싸락눈 쏟아지는 소리 같다. 떨어진 매화꽃은 꼭 나무둘레 만큼만 영역을 지키고 있다. 약 한 시간이 지났을까? 벌들이 나무에 핀 매화가 아닌 낙화한 꽃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랬다. 꽃은 그 향기가 지고 난 뒤 마르면서 고혹적이라 했다. 꽃은 그저 꽃일 뿐 떨어진 것이든 붙어 있는 것이든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이다. 핀 꽃마다 매실이 열리면 매실이 부실하거나 크기가 작다. 꽃은 솎아 내 주어야만 알맞은 크기로 열매를 맺는다. 벌은 이처럼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꽃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림도, 물질도, 대상도 세상사이며 세월의 흐름이다. 나는 법정 스님을 그리며 찾은 불일암에서 여백을 보았다. 자연은 남겨 놓음으로써 담담하게 본질을 이야기 한다. 공영함, 정서나 함의를 여백에 기탁해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성을 드러내고 싶었다. 여백이 본질이다.



덧. 껍데기가 있다. 그것은 껍데기일 뿐 내용은 아니다. 불일암에서 스님을 아무리 불러 보았자 스님은 없다. 스님께서 남기신 자취만 있을 뿐이다. 막 수행을 마친 스님이 겉옷을 벗어 놓은 채 나가신 이유가 뭘까?



화삼매. 꽃은 그 향기가 지고 난 뒤 마르면서 고혹적이라 했다. 꽃은 그저 꽃일 뿐 떨어진 것이든 붙어 있는 것이든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이다.



불일암. 스님의 포행길에는 늘 배추가 함께 있었다. 지금도 스님의 배추밭에는 배추 한포기가 있다. 배추는 겨우내내 불일암을 지키는 주인이다. 살아서 계승하고 있는 법정의 정신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메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강 의 일 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강 의 내 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접 수 인 원 : 선착순 8명 이내.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1 강 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 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불자 세상보기

CEO 수퍼 갑질에 멍든 상아탑의 비애



무상법현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원장
KCRP종교간대화위원장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경제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면 그것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말한다. 꼭 경제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느냐고. 경제에만 목표를 두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그래서 북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인도적인 차원은 이념 따지지 말자고 말한다. 개발과 관련한 천성산, 사패산, 사대강 이야기를 할 때도 언제나 개발이익보다는 자연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옳은 것 같다. 그런데도 결과는 항상 인도적이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 인도적이거나, 개발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 생태를 보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왜 그럴까? 그 큰 이유는 개념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리석음(無明) 즉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無分別)에 까닭이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값으로 비교할 것들을 등치시켜 놓고 살펴보아야 비교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값어치를 가져다 놓으니 허공에 떠있는 메아리처럼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인문학이라는 것도 요즘 세간의 화제이다. 곳곳에서 특히 대학에서 인문학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인데 TV나 신문 등 언론에서는 인문학이 대세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을 보고 정작 인문학자들은 사기나 쇼라고 혹평한다. 더구나 기업이 대학의 운영주체가 된 몇 개의 대학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이번에 이사장이나 전 총장이 문제가 된 중앙대학교의 경우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대학에서는 경제중심의 사고로 인문학은 안중에도 없고 무한경쟁의 기업마인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지적하는 문제는 맞지만 현상분석의 틀이나 개념 언어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경제(經濟)라는 말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이 원어이다. 경제를 욕 먹이지 말라.

정견(正見)에 입각한 중도(中道)는 바른 방법론을 채택하게 되고 시작과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옳게 된다. 인문학은 자연과학이나 경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과학, 학문이라는 말이다. 당연히 경세제민의 경제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기에 바르게 진행되려면 대학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 전에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견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오해하거나 소외되는 이들이 될 수 있으면 적은 상태에서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가 만족하는 ,아니 대다수가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절차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보직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매끄럽지 못한 언어들이 드러나서 공직을 사퇴한 박용성 전 이사장 문제가 그 꼭지점에 있는 것이다. 아다시피 말은 생각(마음)의 표출이며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결과의 업(業)이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슈퍼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은 언사는 떠올리기도 싫다. 그래서 공직을 사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무책임하기까지 한 일이지만 당국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바람직하지 못한 개념에서 비롯된 경제우위의 비인문학적 사고로 진행된 대학개혁이라는 미명의 학문토양 분쇄의 과정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새 집행부의 화두(話頭)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일터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요,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말 바람직한 인문학은 과학기술자나 예술가나 체육, 행정가, 정치가 등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와 함께하는 이들의 평화와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추진하는 학문이 바탕이 되어서 졸업생들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바르고 좋게 살도록 하는 자질을 함양하는 상아탑이 되게 하는 것이다.

대학의 가치는 밝음을 밝히는 데(明明德)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구성원 전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느껴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지도부에 있는 이들이어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남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살피는데 시간을 보내고 슬기로운 이는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살피는데 애를 쓴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양약(良藥)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25돌 불교방송에 바란다

BBS불교방송이 5월 1일로 개국 25주년을 맞았다. 최초의 불교 전문 방송국으로 현재까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사부대중에게 불교방송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편집자주〉

어린이 프로그램 활성화 시급



자용 스님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장

불교방송이 25주년을 맞았다. 종교 방송이 25년간 이어져왔다는 것은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BBS 불교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23년간 진행한 바 있어 불교방송의 25주년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현재 불교방송은 개국 당시 고무되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현재는 여러 가지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듯하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어린이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어린이를 위해 진행되었던 행사들도 축소되는 현상은 안타깝기만 하다. 어린이청소년 불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불교방송을 듣는 어린이가 미래의 불자가 되고 미래의 청취지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어린이들이 즐겨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교의 미래도 또 불교방송의 미래도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불교방송 직원들이 신심을 갖고 똘똘 뭉쳐 불교 자체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낸다면 불교방송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불교계 매스컴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울려퍼지게 하는 신심 나는 콘텐츠만 개발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불교방송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좋은 방송을 전해 성장한다면 사찰의 도움을 받는 방송이 아니라 사찰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시한번 결론적으로 미래 불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삼보를 지키고 부처님 말씀에 충실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

콘텐츠 개발 · 인력 양성 힘쓰길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BBS불교방송이 개국한지 올해로 25주년을 맞는다. 이미 기독교계는 해방 직후부터 CBS, CTS, 극동방송을 시작해 방송 선교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불교방송이 1990년 개국한 것은 한국 현대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25년동안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불법 홍포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해온 것에는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현재 미디어시장은 경쟁 체제로 넘어갔고, 불교방송도 시대 변화에 맞춘 변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불교방송은 기존에 진행됐던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출범시킨 TV 내에 프로그램을 봐도 BTN불교TV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차별성이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불교방송이 그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력을 계속 재활용하거나 기존 스님들을 이용하는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전문 인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케이블 방송국 TVN의 경우 나영석PD 등 걸출한 인물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이는 당장 시청률 고공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줬으면 한다. 결국은 사찰 내 신도들의 지원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 · 제작하는데 사찰과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사찰에서 신도들이 적극 나서서 방송을 만들고 참여를 하면 재정적 지원도 함께 따르게 될 것이다.

社說

韓불교가 네팔의 눈물을 닦아주자

자연 앞에 인간이 무력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다. 부처님 탄생 성지 룸비니가 있는 네팔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보고 여실히 느꼈다. 지난 4월25일 네팔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리히터규모 7.8의 강진으로 4월 28 현재 4천여 명이 사망했다. 열악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구조작업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외곽 지역으로 구조 및 수색 작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접근이 어려워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진발생 3일 후인 4월 27일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인 네팔로 귀국한 나빈 법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태어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은 처음 본다. 아비귀환 그 자체다. 언제올지 모를 여진에 집이 무너질까 공원이나 골프장 등에 간이 천막을 치고 잔다"고 울먹였다. 네팔한인회장으로 활동 중인 영봉 스님도 본지 기자를 만나 오는 6월부터 네팔의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럴 경우 전염병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문화재 파괴도 심각하다고 한다. 나빈 법사에 따르면 네팔의 제1성지인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는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제 2성지인 스와얌부나트 사원과 제 3성지인 보르나트 사원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라고 전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유적지 복원에 최소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가 네팔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한국 사회도 이에 동참하고 있고, 불교는 더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조계종은 4월 27일 긴급 구호단 선발대를 현지로 급파했고 20만달러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와 더프라미스 등도 현지 구호를 시작하거나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네팔은 부처님 탄생 성지가 있는 곳으로 불교에게는 중요한 곳이다. 아픔을 보듬고 돌보는 것은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다. 네팔인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동체대비행에 전국민과 불자들이 나서길 기원한다.

조계종 사찰 재정 공개 환영한다

조계종이 오는 7월부터 직영 · 특별분담금 · 4등급(예산 30억원 이상)사찰에 대한 재정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나서 발표한 계획안에는 지난 3월 100인 대중공사에 논의됐던 사안들이 적지 않게 담겨있었다.

이날 발표된 재정 공개 추진 계획은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예산 30억 원 이상인 사찰 오는 7월부터 재정 공개 △예산 편성 지침 시달시 주요 지출항목 기준 마련 △문화재 관람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마련 △간소화된 재무 프로그램 개발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 제재 등이다.

발표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직영사찰 등에 대한 재정 공개이다. 대상 사찰은 약 50여 곳으로 조계종 전체 사찰 예산의 60%에 달하는 수치다. 조계종은 6월 중에 대상 사찰 회의를 갖고 재정 공개와 형식,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7월 중 재정 공개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게 된다. 또한 재정 공개 대상 사찰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확대도 추진된다. 그간 카드결제 수수료와 결산 시재가 맞지 않아 시스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적인 종무행정 지도를 통해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사찰이 전혀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봉은사 등 대형 사찰부터 작은 포교당까지 자신의 살림살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는 적지 않게 있어왔다. 예결산서를 통한 정보 공개의 경우 1년 결산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찰 81곳 중 48곳(59%)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절반이 되는 사찰들이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에 대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많다. 사회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재정 투명화는 무소유를 가치로 살아가는 출가수행자가 지켜나가야 하는 덕목이다. 조계종이 발표한 재정 공개가 허언이 아닌 시대적 요구를 지켜나가는 실천의 모습이길 기대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세계 관화선 무차대회



2015년 5월 16일(토)

불기 2559

오후 6시-9시

광화문 광장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 연등회보존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Association of Korean Buddhist Orders

문의 02)730-6690

아버지는 금어 · 어머니는 개금장

백태남 개금장(만다라 불교미술실 원장) 가족



백태남 원장 가족은 남편 금어 故김익홍 선생(전통도금기능전승장)의 제자들이다. 일섭 스님의 마지막 제자인 김익홍 선생은 불화 · 단청 · 조각을 두루 섭렵한 최고의 기능장이다. 왼쪽부터 백원장은 개금장으로, 맏딸 도래 씨는 불화작가로, 아들 종정 씨는 불교미술 꿈나무로, 둘째 나래 씨는 불교공예 작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북촌불교미술보존연구소(대표 김도래)를 찾았다. 김도래(42)씨와 동생 나래(35) 자매는 불화 작업 중이었고 그들 뒤로는 7년전 작고한 초상화 속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포천에서 만다라 불교미술실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 백태남(65 · 개금장) 원장과 그를 도우며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막내아들 김종정(24) 씨도 한자리에 모였다.

백태남 원장 가족들은 남편 금어 故김익홍 선생(전통도금기능전승장)의 제자들이다. 일섭 스님의 마지막 제자인 김익홍 선생은 불화 · 단청 · 조각을 두루 섭렵한 최고의 기능장이다. 그는 7년전 작고하기 전까지 아내, 자녀들과 함께 불교미술 작업을 하며 가족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그래서 백태남 원장은 개금장으로, 맏딸 도래 씨는 불화작가로, 둘째 나래 씨는 불교공예 작가로, 또 아들 종정 씨는 불교미술의 미래를 밝혀줄 꿈나무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 중 한 명이 가업을 물려받기도 쉽지 않은 요즘 세상에 이렇게 3명의 자녀와 불교미술을 함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대를 잇는 불교미술의 작업

백태남 원장은 가업을 물려받는 일은 가문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저는 세상 살기가 서툰 사람입니다. 그래도 절에서 작업하다 보면 스님들도 또 주변 분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밖에서 다른 일하는 것보다 불교미술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부모들이 하던 일이니 자식들이 대를 이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자식들에게 재능을 물려줘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어떤 유산보다 훌륭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가문'을 만드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어머니 백태남 원장은 40여년 개금 분야에 매진해 속리산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상'을 비롯해 수많은 대작불사를 이루어냈다. 특히, 일본 금택미술대학 미술공예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 전통도금 기술 전수자로 김익홍 · 백태남 부부를 선정할 정도로 이들은 도금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백 원장이 이렇게 개금전문가로 자리잡을 수 있었기도 했단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도래 씨는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지 눈가의 눈물을 닦았다.

"중학교 때부터 일을 돕거나 책을 읽어야만 용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기 싫어서 도망도 가고 반항도 많이 했죠. 중학교 때 한번은 특별활동으로 유화를 그린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붓을 부러트려버리면서 저를 혼내셨죠. 제 삶인데 한번도 제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안의 맏이로서 늘 가업을 물려받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살았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딴 길을 간 사람도 있다. 도래 씨의 쌍둥이 자매였던 소래 씨는 대학을 다니던 중 결국 가출을 했고 인테리어를 전공해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모두가 불교미술 작업을 하는 운명론적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나래 씨 또한 이런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다. "다른 일을 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자식들을 한 방향으로 키우려고 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죠. 결국 엄마 욕심이 아니냐고 자식들 잘 키웠다는 소리 들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고 반항했죠. 어느날은 엄마는 작업복 입고 사포질 하며 사는 게 행복하냐고 엄마 인생을 살라는 충고 아닌 충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백태남 씨의 답은 확고했다. "그때 저는 딸에게 이렇게 답했죠. '직장에 다니는 것은 타인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가 성립되지만 이 일은 먼지 구덩이 속에 살아도 마음은 내 것이다 이것이 자유'라고 말이죠. 요즘 부모들 대부분이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 성공시키는 게 목표인 듯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부모를 위해 효도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자식 교육 시키는 거죠."

어머니의 이런 확고한 신념은 자녀들을 모두 불교미술의 길로 가게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좋은 가문 만들겠다 발원하고
남편 금어 故김익홍 선생의 제자로
세 자녀 모두 불교미술의 길로 인도

"먼지 구덩이 속에 살아도 마음은 내 것"
엄격한 방식으로 불교 미술 지도

아버지 3주기 추모전 식솔전 개최
3월, 일섭문도회전에 가족 모두 출품

불교미술 저변확대 노력했던 아버지
10주기 기념해 2018년 가족전 계획
"다음 생에도 도반으로 만나고파"

던 것은 자유분방한 예술가 남편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였다고 말한다. "남편은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불화 작업은 지방으로 많이 가니 한 달 이상 집에 안 들어 올 때도 있었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제 곁을 지켰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느날 혼자서 애끓지 말고 능력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남편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문적 기술을 익히게 되었죠."

1남 3녀의 자녀를 둔 백 원장은 자녀 모두에게 이 일을 물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릴 때부터 작업을 돕게 했어요. 기본적인 학비를 대주는 것 이외에 용돈은 꼭 집의 일을 도와야 주었죠. 아이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스스로 능력을 기르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그런 훈육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이런 어머니의 교육 방침에 모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절제되고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불교미술을 어린나이에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각자의 재능과 끼가 넘쳤기에 반항도 했고 울

불교미술은 가족에게 운명과 같았다

이런 굴곡의 시간을 지나 자녀들이 성인이 되자 그들도 불교미술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래 씨는 "생각해보면 전 늘 부처님 곁에 있었어요. 집에는 온통 불상들이었죠.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는 지방으로 일하러 가시고 언니들도 학교 가면 집에 혼자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불상들에게 소꿉장난하듯 공양 올리는 흉내를 내며 시간을 보냈죠. 지나고 보니 부처님은 저의 친구였고 보호자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교미술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불교미술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불효자처럼 취급받는 게 마음의 짐이 되었나 봐요. 어떤 틀 속에 저를 가두는 것도 싫었죠. 자유롭고 싶었어요."

나래 씨가 불교미술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자랐는지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불교미술을 배운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저는 사실 미술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 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지만 불교미술에 관한한 어떤 일이 주어져도 겁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때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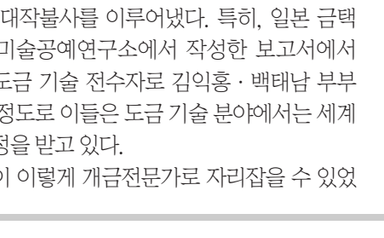


방수연등전선 전문 KS정품 생산업체와 계약 체결로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Made in Korea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 2줄 이상일때 한줄당 가격입니다.
• 비규격 전선은 전화문의바랍니다.
• 22cm, 23cm, 25cm (50구) @ 65,000 (2줄이상)
• 30cm (50구) @ 65,000 (2줄이상)
• 35cm (50구) @ 70,000 (2줄이상)
• 40cm (50구) @ 73,000 (2줄이상)
• 50cm (50구) @ 75,000 (2줄이상)
• 1 m (50구) @ 90,000 (2줄이상)
• 2 m (25구) @ 80,000 (2줄이상)





바림등(6cm) @2,500원 (60개이상)
바림등(8cm) @3,000원 (30개이상)



일반연잎 6,000 일반연잎大 6,000 바림연잎 7,500 한지바림연잎 9,000 천바림연잎 30,000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그 솜씨 원력 배우며 대이어



2011년, 아버지 김익홍 선생 추모기념 전시를 열었다. 김도래作 '아빠와 나'



김익홍 · 백태남 부부는 일본 한 대학의 보고서에 소개될 만큼 도금 기술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남편 故김익홍 선생과 아내 백태남 원장의 작업 모습.



백태남 원장은 좋은 가문을 만들고자 자식들에게 불교미술을 전수하는 일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문이었죠. 이 모두가 제가 자라온 환경 덕분이었고 이는 불교미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같은 스승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는 큰 행운이죠. 하지만 치열하게 불교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는 제가 곱게 보일리 없었죠. 그제서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 모두가 저의 운명임을 알고 불교미술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래 씨는 아직도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산다고 말한다. "불교미술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셨어요. 무엇이 궁금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께 여쭤보면 어떤 질문이든 술술 답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해박한 분이셨죠. 예전에는 제 실력보다 아버지의 명성 때문에 주목 받는 게 싫기도 했는데, 돌아가신지 7년이 된 지금도 아버지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는지 새삼 느끼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이제 갓 군대를 제대한 아들 종정 군은 어린 나이에 불교미술가로 살아갈 것을 결정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래픽디자인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누나 도래 씨의 설득으로 단 하루만에 고민을 끝냈다고. "집안의 장남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고 큰 혼란은 없었었어요. 가장 속편할 때가 어머니랑 사포질할 때에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더 많은 걸 못 배운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생 인연으로 불교미술을 하고 있다고 백 원장은 말한다. "남편은 전생에도 이 일을 했고 다음 생에도 이 일을 할 거라고 늘 말했어요. 남편은 장공인들과 이야기 하는 걸 좋아했죠. 그들이 일하는 초막에 가서 이야기 듣고 기록되지 않은 비법을 알아왔어요.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장공인들이 사투리로 말하는 그들만의 용어들을 알아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해 작업에 적용했죠. 이 모두가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가능한 일이죠. 어떤 스님이 저희 가족들이 전생에 모두 도반이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같은 일을 하는 우리 가족의 인연은 매우 지중하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에 담다

가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김익홍 선생은 7년전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경희대 동국대 동산불교대 등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한국전통미술의 중요성과 기법을 전수했던 불교미술계의 장인이자 예술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불교미술의 길로 이끌어준 큰 스승이었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작고하고 3년이 지난 2011년 가족들은 전시를 열었다. '북촌선생 식솔전' 은 제자인 동시에 가족인 식솔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리로 조각과 개금 단청과 회화, 전통과 비전통 모사와 창작 등 불교미술의 모든 것을 보여준 전시라 할 수 있다. △백 원장은 탈금법을 활용한 '아미타삼존' 과 금채법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을 △도래 씨는 아버지 김익홍 선생을 그린 '아빠와 나' , 연꽃으로 표현한 '연화장세계' △나래 씨는 '무념' , '해수관음' 을 △종정 군은 '사자상' 등을 선보이며 각자 아버지에게서 배운 재능을 펼쳐보였다.

올해 3월에도 이들 가족은 특별한 나들이를 했다. 일섭문도회(회장 김성규)가 주최한 두 번째 회원전 '2015불모들의 향연' 에 나란히 작품을 전시한 것이다. 회화, 조각, 단청, 공예 등 불교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 이번 회원전에서 △어머니 백태남 원장은 '목조아미타불 개금' △도래 씨는 수의에 아미타불 옷의 문양을 금박으로 표현한 '극락으로 가는 날' 을 △나래 씨는 '화엄경 변상도' 를 출품해 주목받았다. 특히, '극락으로 가는 날' 은 도래 씨가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한 수의 작품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냈다.

백 원장은 늘 남편이 그립다고 말한다. 열흘이고 한 달이고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제 나간 사람처럼 '도래 엄마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하며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보고 듣고 익힌 것을 아내에게 말하던 남편. 언제 떠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 때문에 속 끓였던 젊은날이 있었기에 남편이 집에 나선 날을 기억하지 않았고 돌아올 날을 애태우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만 매진했다는 아내 백태남 씨. 그의 네 자녀는 이제 아버지의 재능과 어머니의 끈기를 닮아가며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생에는 남편을 도반으로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 생에 열심히 더 공부해 남편과 함께 불교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백태남 씨는 다음 생에도 꼭 남편과 만나고 싶다는 발원을 했다.

앞으로 김익홍 선생의 추모 10주기를 맞는 3년 후, 가족들 모두는 다시 전시회를 열기로 약속했다. 얼마만큼 자신들이 성장했는지 또 얼마마큼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그들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염불과 다라니 수행의 매력

비록 신심이 있고, 공부가 많이 되었다 해도 '신행' 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맹신이 되거나, 알음알이에 사로잡혀 잘난 척만 하고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기에, 나와 인연이 닿는 분들에게는 신행 실천법으로 염불과 다라니 독송을 권한다.

부처님의 가피와 더불어 업장을 소멸해주는 염불과 다라니가 일상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환희심을 충만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 믿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상에서 화두수행에 전념하기 힘든 불자님들에게 염불과 다라니 독송은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성불암에서 매주 특정일을 잡아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을 하고 1시간씩 참선을 하자고 권했더니 모두가 흔쾌히 함께 정진하겠노라 하였다. 2010년 여름날 수요일 저녁 7시, 목탁 소리가 '똑똑또로로록' 울리면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난 후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이 시작되었다. 비록 5명이라는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그 어떤 숫자보다 내겐 큰 의미로 다가왔다.

부처님께서도 첫 설법을 5비구로 시작하셨기에 아마도 그 의미가 남달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시작된 '신묘장구대다라니' 첫 독송은 계속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그 까닭은 '다라니' 독송을 하며 느낀 점을 주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권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이 참석했을 때는 20명 가량 되었고, 고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들도 10여 명이 됐다.

어느 날 다라니 독송을 마치고 의견을 살며시 비춰보았다. "매주 수요일 이렇게 다라니 독송만 할 것이 아니라 다라니 독송을 천일 동안 해보는 것은 어떻냐"고. 매 주 수요일은 성불암 법당에서 독송하고, 그 외의 날은 댁에서 매일 21독을 하시면 된다고 방법을 일러 주었더니 모두들 흔쾌히 다라니 독송 천일 서원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천일기도' 의 원이 세워졌고,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모임의 이름은 '선우회(禪友會)' 로 결정했다. 비록 다라니 독송으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조계종은 '간화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풍으로 모든 수행을 보듬고 있었다. 그렇기에 '선(禪)' 을 함께 닦아나가는 도반(벗)의 의미인 '우(友)' 로 하였다. 그리고 다라니 독송을 마치면 늘 참선으로 수행을 마무리 하였기에 '선우(禪友)' 라는 이름이 맞기도 했다.

문제는 성불암이 관악문화원도서관과 아파트 중간에 위치한 점이었다. 아파트와의 거리가 채 50미터도 안되었으며 도서관 역시 인근에 있어 다라니 독송에 어려움이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이면 법당문을 열고 독송을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 또 도서관의 중고등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 등으로 독송 삼매가 깨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신고 등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얼굴을 대면하며 멋쩍어 하던 적이 많았다. 법당이 추운 관계로 겨울철이면 입에서 입김이 나오고, 목탁을 치면서도 손이 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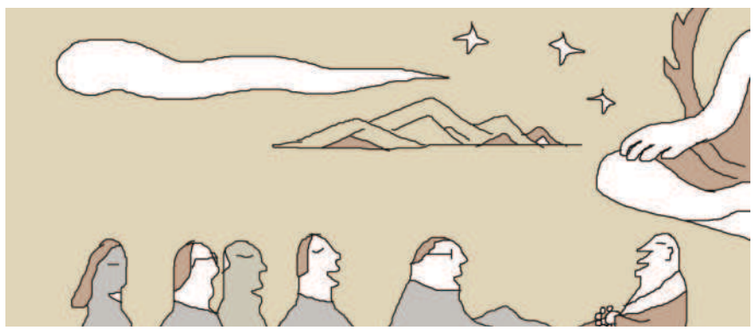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윽고 3번의 여름과 3번의 겨울을 보내며 천일기도를 달성했다. 선우회 법우들은 다라니 CD를 만들었다. 음반 기획사에 근무하고 있던 혜성(이치훈) 법우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녹음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녹음 진행은 순조롭게 되었다. 이름은 '자비의 마음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로 붙여졌다. 고맙게도 불교방송에서도 협찬을 하여 현재도 배포되고 있다.

다라니 독송을 계기로 뭉친 선우회 법우들은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늘 함께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여기면서 말이다. 앞으로도 이 귀한 인연 함께 하소서!



법찬 스님 (서울 성불암 주지)





대행 스님

근본에서는 진정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칠포세대가 되었는데

질문 얼마 전에 국립국어원 추가 신 어에 삼포, 오포세대에 이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매 포기에 더해서 꿈과 희망까지도 버린 칠포세대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젊은이들에게 이 마음 법을 전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내야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는지요.

답변 어떤 분들은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님! 지금 당장 몸이 아파서 죽겠고 가환이 들끓는데 무슨 공부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주인공에 맡기라고 그러십니까." 이럽니다. 주인공에 맡기는 일이 바로 그런 고통을 없애는 일이라고 수없이 말을 해 줬는데도 말입니다. 자기가 엎드러 으면 자기에게 일어날 힘도 있는 거지 일어날 힘이 없다면 엎드러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 사랑, 의리, 도의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항상 같이해 주는 그 마음, 어찌 그것을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 그 참된 도리를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죠. '당신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테지만….' 하는 사람도 있겠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건가.'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무 건 알지 못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아주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호히 거짓이 아닙니다. 일가친척이나 동네 사람이 만약에 극단에 처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스스로 한생각을 낼 수 있다면 그대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깨치면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지만 깨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주상 보시를 못합니다. 무주상 보시란 한생각에 보시가 되는 것이죠. 굶는 다 할 때 쌀 한 됫박 쌀 한 가마 갖다 주는 것보다 무주상 보시를 해 준다면 그 집이 저절로 펴져서 밥을 먹게 될 때 영원히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말을 다 못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도리를 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경제난에 허덕이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고만 있을 게 아닙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주인공을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놔 버리고 여기에서는 진정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들어갈 때 비로소 해결이 될 테니까요. 각자 걱정할 게 없고 한생각 던지면 던지는 대로 그대로 물바퀴 돌아가듯 슬슬 돌아가면서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정과 사회와 내 몸, 내 아들 딸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산 사람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들도, 지옥에 있는 것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차려 놓는다고 해서 영혼들이 잘 차려 놔서 잘 먹었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물 한 컵 가지고도 우주 삼라만상을 대처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떡 하나 가지고 유생(有生) 무생(無生)을 다 먹이고도 또 그 떡 하나는 되남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번뇌심과 보리심이 둘이 아닌지

질문 한생각 일어났다 없어 다 하는 그 마음을 이름 붙여서 생멸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생멸심과 적멸심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번뇌심과 보리심이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 관습에 의해서 본래심이 번뇌심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광대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 를 해낼 수도 있고, 창 력을 기를 수도 있고 계발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저 수행하는 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료.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료.

항상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 방울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걱으로다가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쳤더라. 이건 무슨 까닭인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팥죽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게 그 속에서, 한 속에서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모든 건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에 제대로 되놔라 하는 소립니다, 그게.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 하고 친 게 자기 마음의 주장자로서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마다 거기다가 놓으라고 그런 방편을 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이며 일어나는 그 마음 번뇌도 망상도, 또는 도라는 이름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걸어오듯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걸어오듯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레공법이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해서 불이 들어와서 가정이 밝게 살고 사회가 밝게 살 수 있는 것이니 바로 한마음에 밝게 불이 켜 을 뿐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질문 평생의 꿈인 내 집 장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집을 고르려면 방향도 봐야 하고 수맥도 봐야 하고 이사를 가려면 날짜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겁을 줍니다. 스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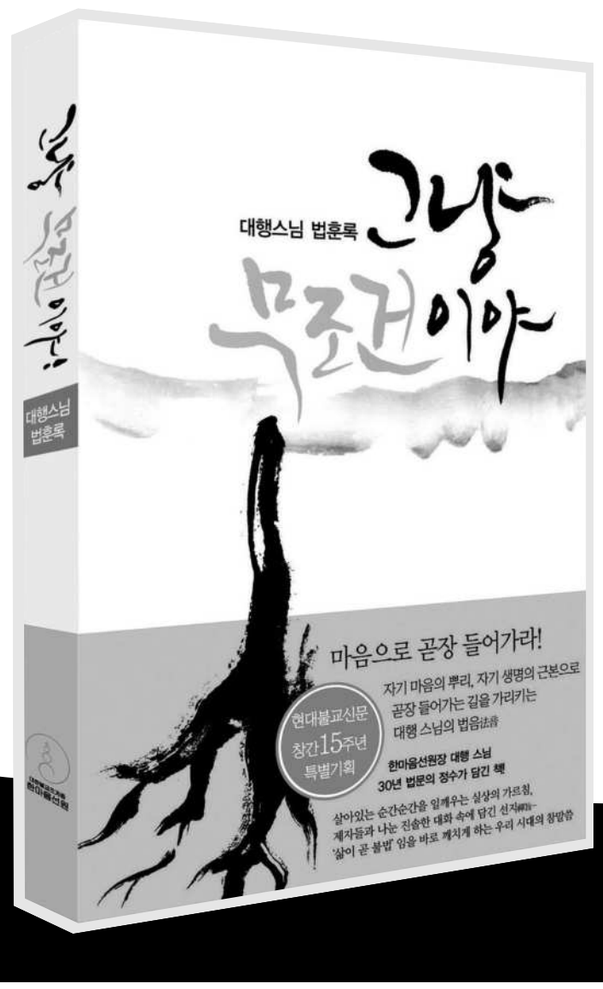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답변 마음이 모든 작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본, 이 자체가 영원한 씨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있는 건데 그 습으로 인해 얽매여서 살아요.

어떤 사람이 "스님! 집을 지어야 할 텐데 굴왕신이 내렸답니다. 집을 못 짓겠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아, 당신이 태어나고부터 이 세상이 있고 집도 짓는 거지 누가 굴왕신이 내렸다고 못 짓게 하던가? 굴왕신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굴왕신을 내리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굴왕신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귀신이야! 네 마음이 귀신 노릇을 하니 어찌 귀신이 안 덤빌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 마음이 귀신이 아니라면 그대로 지을 것이고 네 마음이 바로 굴왕신이라면 못 지을 것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해에 집을 짓고도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잘 지냈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마음 하나에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이자 道!

☞ 29면에서 계속

다. 마음으로 발발발발 떨면서 삼재가 들었으니까 부적을 해다 붙여야지, 또 물어봐야지 하면서 온통 난리를 치고 또 살림을 해 나가면서도 잘못될까 봐 겁이 덜컥덜컥 나고, 꿈만 금 잘못 꿔도 온통 난리가 나죠.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금 먹고살기도 바빠서 죽겠는 세상에 교마저도 그렇게 허덕지덕 하고 괴로움이 많으니,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 그게 바로 감옥이지요. 그게 바로 지옥이지 딴 데 지옥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쳐 넣어 놓고 산하대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만들어 놓는 것에 바로 귀신들이 있는 것이지 아니, 누굽니까? 누가 귀신을 만듭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만들고 귀신을 섬기고 또 귀신한테 말리고 이러는 거죠. 하늘이나 땅이나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만생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강요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시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삼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도 여러분이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너희 맘대로 하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알고 몸뚱이로 부딪치는 걸 알고, 육근 육진 육식을 다 알아서 모든 물질세계나 정신세계에 둘이 아니게끔 다 돌아가면서 잘 생각을 해서 너에게 이익 하도록 해라. 이익 하도록 생각하지 이익 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말라. 남을 이익 하게 생각하면 내게 이익 하게 돌아오고 내가 이익 하게 생각하면 남도 이익 하게 생각해 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해서 돌아가는 이 마음이 그대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불국토가 될 것이고, 악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말세 말입니다. 말세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을 지키고 마음의 계발을 숭상함으로써 마음의 발전을 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행이 벌어지지 않고 모든 애고가 벌어지지 않고, 유전성 영계성이 벌어지지 않게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그렇게 발전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감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체 만물만생이 내 스승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고 일체 만물만생의 아픔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 보지도 말고 낮게 보지도 말고 자기같이만 본다면 바로 우리가 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로 보지 않는 중용 말입니다.

참나와 거짓 나에 대해서

질문 저는 큰스님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와 닿아서 진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찾아야 될 나, 참나와 맡기고 놓아야 될 이 가아(假我)와의 차이가 많이 혼동이 옵니다.

답변 가아(假我)도 없고 참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기둥 하나가 이렇게 방편으로 있다면 굴레가, 거기에 끼고 돌아가는 굴레가 있습니다. 기둥은 움죽거리지 않지만 그 굴레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 그 수레가 역시 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가짜 나가 믿고 찾는 거, 또는 진짜 참나가 하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찾지 마세요. 주인공 했으면요, 그 기둥째 수레째, 내가 찾는 나와 더불어 같이, 지금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수레에서 굴러 나오는 거와 같습니다. 수레에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수레에서 나오는 대로 그 수레에다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선을 하고 또는 참나를 찾으면서 절을 하고 이러는 것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럴 때 그냥 그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이자 그냥 도예요. 그러니까 행주좌와(行住坐臥)를 그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앉아서 참선 할 사이가 없는데도, 시간이 없는데도 참선 한답시고 시간을 내서 앉았다면 그건 참선이 아니에요. 진짜 참선이라는 것은, 똥 누면서도 진짜 진실히 돌아간다면 이거는 참선이 돼서 그게 공덕이 되는 거고요, 공심(共心)으로 돌아가는 게 공덕이에요. 공심으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한마음으로 움죽거리고, 한마음으로 먹고, 한마음으로 살고, 한마음으로 용을 하고, 모두 이러는 것이 그대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살고 이런다면 자기를 보기까지, 참자기가 자유스럽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생활 자체가 당신이 보고 듣고 하고 만나고,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랑하고 돈 벌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당신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하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믿고 일임하고, 그리고 꺼내 쓸 때는 거기서 또 꺼내 쓰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아드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밖에 없다.'고 했을 때 감옥에 있던 아드님이 나와서 사흘을 지내고 난 뒤에야, 같이 계시다 돌아가셨다고요. 어때요? 이것이 우연 같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그냥 생각하고 사는 게 그대로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얘기했죠. 아, 이성계가 꿈을 다섯 가지를 꿨죠. 너무나 기막힌 꿈을 꿨죠. 색경이 그냥 와르르르 깨지는 거와, 꽃이 그냥 활짝 폈다 활짝 지는 거와, 대문에다가 허수아비를 매달아 놓은 꿈과, 까마귀가 까옥까옥하고 짖고 가는 꿈, 이렇게 모두 꿈을 꿨을 때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럴 때에 무학 대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 얘긴 다 집어치우고 본론만 말하자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학 대사가 어떻게 꿈 해몽을 해 줬는지 아십니까? "당신 생각에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꿈이요, 꿈 꾼 것도 꿈이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당신 생각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하고 나서 잠자코 있으니까 야, 까옥까옥 짖는 그 까마귀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요, 가옥이니까, 색경이 와르르르 깨지는 거는 주변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는 꿈이요, 또 그 꽃이 활짝 피었다가 지는 것은 열매가 맺는 꿈이요, 또 허수아비를 쳐다보는 거는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우러러보는 것이요. 아, 요렇게 딱 말씀을 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하하. 그래서 임금 노릇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한생각에 생활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은 이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두 사람들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절을 하게 돼 있죠. 아, 이런 비밀도 내가 얘기를 하니 이거 야단났죠. 하하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생 중생을 항복을 받는다면은, 복을 받는다면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응신(應身)이 돼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응해 주시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모든 걸이 한마음으로서 복을 받아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 내 자생 중생을 조복받는다면
> 보살로 화해서
> 천백억화신으로서 응신(應身)이 돼서
>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응해 주시느니라.

이것이 정말 좋은 징조인지요

질문 오랜 기간을 다리가 근육이 풀려 힘이 없어지는 그런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선원 다니면서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쪽 발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나오기만 하면 바스러 는데 이유를 몰랐죠. 지금도 불편은 합니다마는 어느 날 목욕탕을 가서 보았더니 발톱이 말짱하게 원형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톱 양쪽이 전부 나와서 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징 인지요? 저는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제 개인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오직 주인공만 믿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안심하고 자식들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 그거야 물론이죠. 그거야 물론이고말고요. 그래서요, 이 공부라는 게 너무도 좋아서 부처님이 여북하면 '세세생생에 내 몸뚱이 고깃덩어리가 없어도 너희가 있다면 내가 있는 것이니까 열심히 그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러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선장이고 마음내는 거는 제멋대로 내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려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하려면 사기질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면 좋은 일을 하고 마음내는 거는 멋대로예요.

그런데 그 선장이 되는 마음이란 놈은 그 멋대로 내는 마음이 나쁘고 좋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걸 아는 놈이란 말입니다, 요 마음이라는 놈이. 마음내는 놈이 그렇게 마음대로 내니까 마음이란 놈이 선장이 돼야죠.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란 놈이 선장이 돼라, 선장이 돼서 다스려라 이겁니다. 다스려 나가되 그 다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이것저것 내게 하는 것은 업식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몸뚱이 속에 헤아릴 수 없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가지고 업식이 돼서 내 몸 안에 잔뜩 들어 있는 거죠. 들어 있으면서 이거 내보내고 저거 내보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근본 선장은 요놈이 나쁘게 생각을 하는지 좋게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다스려서 되돌려 놔라 이런 겁니다. 되돌려 놔라 이런다면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느냐? 되돌려 놓는다면 업식인 그 마음 의식에 통신이 돼 가지고 '아, 이런 거로구나.' 하고선 그 선장의 뜻에 다 따라 주게 돼 있죠. 이 선장의 마음에 다 따라 주게 돼 있으니까 모자라는 건 채우면서 작용을 자꾸 해 가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소아마비에 걸려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뇌염 환자가 많이 성행했을 때 그것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대로 공부해서 가는 다리가 제대로 되고 지금 성장해서 아주 모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다니고 잘 사니 나 좋고 그 사람 좋고, 세세생생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를 본보기로 하고 또 마음을 발전시켜서 자기라는 놈이 그렇게 선장으로 있다는 것도 알았고, 선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자생 중생들이 다 따라 준다는 것도 알았고, 따라서 행해 준다는 것도 알았으니 점차적으로 가다 보면은 다 자생 중생들한테 항복을 받는 거죠. 예? 항복을 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말일 뿐이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돼서 없어지니까 이거는 항복을 다 받았느니라 이러는 거거든. 나중에는 항복받았기 때문에 항복받은 것도 없고 안 받은 것도 없느니라.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러니 이것이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은 '저렇게 빨리 되는 사람은 빨리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빨리빨리 해야 할 텐데 하는 것도 그냥 놓고 가십시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빛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땐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지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아,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돌려놔야 합니다, 또. 오신통(五神通)도 벗어 놔야 하니까 말입니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전계전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전계전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전통 010-3545-5060


◆3칸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가격 : 평당 1,500,000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700 / 다그라스 대들보 180×210
다그라스목재도리 180×180 / 다그라스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황토흙 ALC 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